

B



S



COVER STORY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G

오페라 연출가
이의주의 백 스테이지 오페라
번갯불 백스테이지?
아니, 라이브 온 스테이지!

유럽 박물관 기행
바티칸 박물관의 '최후의 심판'



G



2020년 부산 도슨트과정 2기 회원모집



부산도슨트협회

비영리단체 부산도슨트협회(since2019)B.D.A 도슨트 교육을 안내합니다.
협회등록번호: 602-82-70***

2기 기초반 교육 프로그램

2020. 3. 9.(월)
~ 6. 1.(월)

총 12회 과정+현장체험

교육목적 21세기 문화를 풍요롭게 할 '도슨트'라는 전문가를 양성시킴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미술, 예술,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것이며 미술관, 갤러리, 각종 아트페어에 작품해설 및 안내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작가와 관람, 대중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전과 도슨트협회 회원 양성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집장소 갤러리 아라, 갤러리 위즈아츠스페이스, 기장대로 563 현대 A동 상가 2층

수강료 35만원(총12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803-788953 부산도슨트협회

문의 부회장 박덕남 010-6207-0767

1강	3/9 (월)	개강식 도슨트 기본 자세와 매너	한명희 정연은	회장(계명대 외래교수) 미술 칼럼니스트, 동아대 철학 박사
2강	3/16 (월)	스토리로 만나는 현대미술사	유이시	미술평론가, 박사
3강	3/23 (월)	위대한 멘토 괴테를 만나다	안장혁	동의대 교수
4강	3/30 (월)	미술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은미	Museum Educator, MERG Director
5강	4/6 (월)	미의 3대 요소	임봉규	전 신라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6강	4/13 (월)	대화 감상 도슨팅 기법	정연은	미술 칼럼니스트, 동아대 철학 박사
7강	4/20 (월)	예술로의 사진의 시작과 변화	최용부	전 KNN 서울본부장 전 부산영어방송 본부장
8강	4/27 (월)	4차 산업혁명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안장혁	동의대교수
9강	5/4 (월)	알면 보이는 미술학 이야기	유이시	미술평론가, 박사
10강	5/11 (월)	갈매기 날개 위에 기장 문화를 달다	황구	기장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11강	5/18 (월)	미술과 음악이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김민석	동남원자력의학원 센터장
12강	5/25 (월)	아는 대로 보이는 대로 감상하기	구본호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전 동명대 겸임교수, 티엘갤러리 관장

현장 체험 : 마린시티 블루 요트아트페어 현장실습

※ 월요일 저녁 6시30분 ~ 8시30분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교육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슨트 프로그램은, 기초반, 심화반으로 이루어집니다.

F. Schubert

Die Winterreise

합창으로 만나는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지휘_전진



바리톤_이광근

2020. **2. 13**(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관람료 : 균일 10,000원 예매 : www.bscc.or.kr 문의 : 607-3116(시립합창단)
607-6074~5(정기회원)

할 인 :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 임산부, 의사자 및 유족, 의상자 및 직계가족, 모범납세자 30% 단체(30명 이상),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문화예술인패스 소지자, 초·중·고등학생, 대학생(학생증소지자) 20% 단체(20명 이상), 가족할인(3인 이상 가족), 외국인




국제수준 어쿠스틱음향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

제8회 글로벌
영아티스트
 전국음악경연대회

GloVil National Young Artist Competition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음악영재들의 향연
2020. 2. 29. (토)

- 장소** 글로벌아트홀
- 부문** 피아노·성악·현악·관악·작곡·중창·실내악
- 대상** 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홈스쿨링 재수생 포함)
- 접수처** 글로벌아트홀 홈페이지(www.glovil.org) 또는 콘테스트(www.contest.co.kr)
- 접수기간** 2020년 1월 18일(토) ~ 2월 25일(화)
- 과제곡** 전 부문 자유곡 1곡
- 참가비** 8만원 국민은행 99776600054 글로벌아트홀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하고 참가비는 접수 후 반환하지 않음)
- 시상** 최우수상·1등상·2등상·3등상·장려상
- 심사기준** 각 부문별, 각 학년별 절대평가로 채점
- 수상자 특전**
 -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
 - 영아티스트 페스티벌 음악회 출연 자격 부여(참가비 면제)
 - 고화질 동영상 원본 제공(소장용, 국제콩쿨오디션용, 유학용으로 활용, 제작비 120만원)
 - 제29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쿨참가 시 참가비 50% 면제
 - 〈부문별 1등상·2등상·3등상 수상자〉
 - 영아티스트 신예음악회 출연자격 부여(참가비 10만원 본인 부담)
 - 고화질 동영상 원본 제공(소장용, 국제콩쿨오디션용, 유학용으로 활용, 제작비 120만원)
 - 〈시상식 및 영아티스트 페스티벌 음악회〉
 - 시상식 : 2020년 3월 7일(토) 15시 30분
 - 영아티스트 신예음악회 : 2020년 3월 7일(토) 16시 (녹화 16시)
 - 영아티스트 페스티벌 음악회 : 2020년 3월 7일(토) 17시 (녹화 17시)

주최 |  **GloVil Art Hall** 주관 | 글로벌예술원 후원 | 글로벌콘서바토리 협찬 |  JOSEPH X STACEY 

CONTENTS

2

월간문화예술정보지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예술의 초대 February 2020 Vol.338

2020년 2월호 통권 338호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용관

편집인 황해순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헌,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홍보팀장 서정환

편집 정복엽

발행일 2020년 1월 25일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 06 **Column**
우리가 생활하는 곳,
그곳이 문화예술이 꽃피는 현장이다
- 08 **Cover Story**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 12 **Poem**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⑦ 남향집
- 14 **반갑습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김종욱
- 16 **Backstage Opera**
번갯불 백스테이지? 아니, 라이브 온 스테이지!
- 18 **Museum Of Europe**
미켈란젤로의 유언장
바티칸 박물관의 '최후의 심판'
- 23 **Preview**
- 34 **Issue**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앨런 플레처 in 부산展
- 38 **Review**
- 44 **Program Guide**
- 54 **New Book**
- 55 **BSCC News**
- 56 **Column**
극장장의 손 편지 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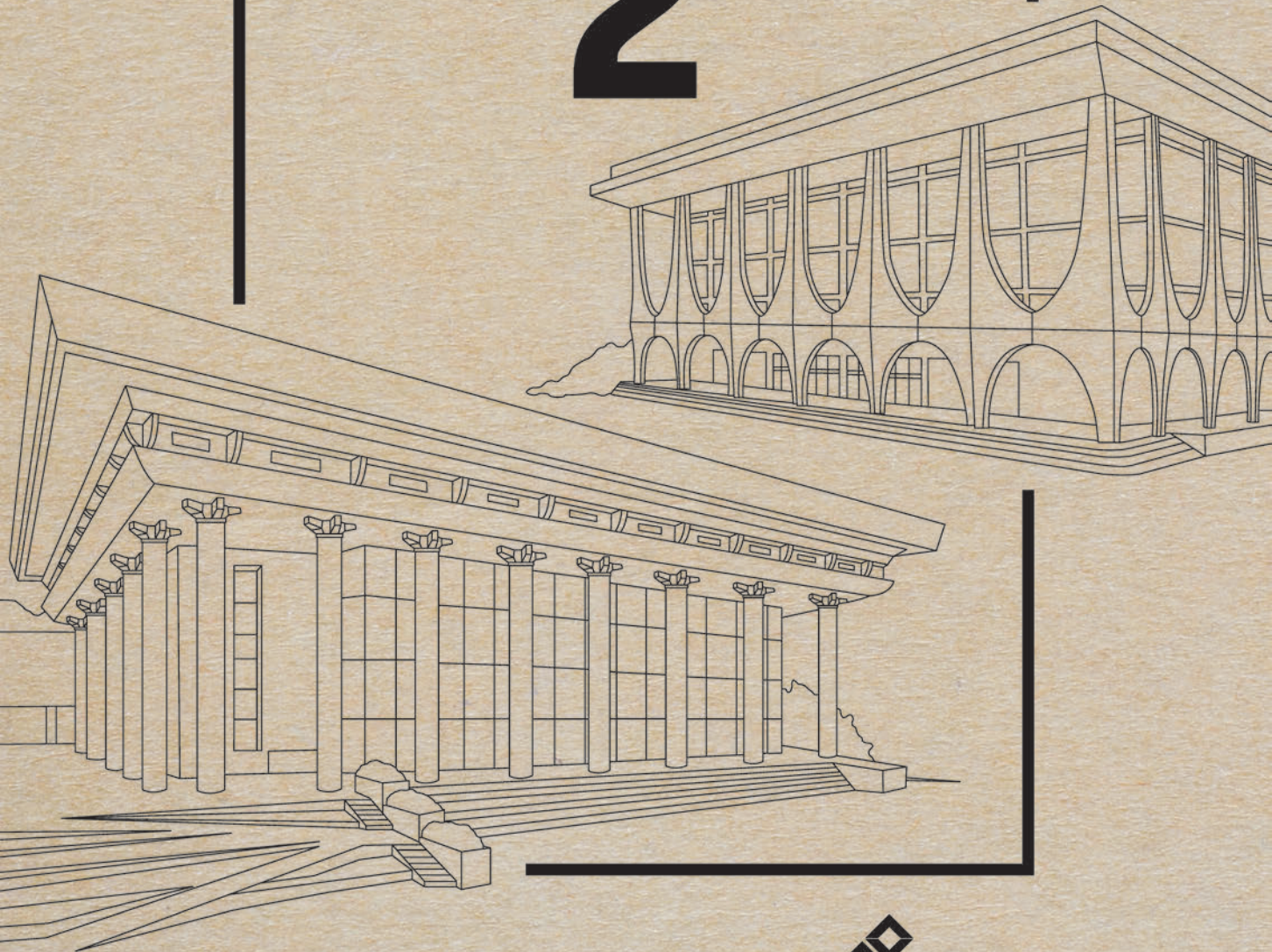
BSCC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2020 February

부산문화회관 · 부산시민회관 - 월간 공연 & 전시 일정표

2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가입안내

회원가입

- 가입신청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 051)607-6116~7
 무통장입금 부산은행 101-2042-6796-01 [예금주/(재)부산문화회관]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 발급(10일 이내)
-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1년)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부산시내 외부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10%~)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라운지 무료 이용(회원카드 제시 시 음료 등 제공)



-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각 4매 증정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에 따라 선착순 예약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좌석 중에서 예약가능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 ※ 지정된 기획공연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를 통해 따로 공지 (조기마감)
 - ※ 부산시립예술단: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공연 초대권 4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부산시립예술단(5개 단체) 가입단체 공연 초대권 2매 증정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전시) 및 부산시립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10~30%)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 ※ 가입단체 초대권 증정, 비가입단체는 예술단공연 입장료의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음.



SUN	MON	TUE	W
<p>전시실</p> <p>부산문화회관</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스' 2019년 12월 25일(수)-2020년 4월 5일(일)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6:00 (입장 마감 오후 5:00) - 매주 월요일 휴관 •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1천원, 어린이 9천원(36개월 미만 유아 무료) (주)커뮤니케이션 070-4800-9301</p>	<p>부산시민회관</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Welcome to my studio!' 옐런 플래처 in 부산 展 2월 22일(토)-4월 26일(일) • 관람시간/오전 10:00~오후 8:00 (금-토요일은 오후 7:00까지, 종료 1시간 전 입장마감) • 일반 9천원, 초·중·고등학생 4천원, 미취학 아동 2천원 (36개월 미만 유아, 장애인 무료) (재)부산문화회관 630-5235</p>		
<p>2</p> <p>가족뮤지컬 '알라딘' 11:00, 14:00 Ⓢ 전석 4만4천원/극단 예일(02-555-0822)</p>	<p>3</p>	<p>4</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년음악회 '2020 경자년 신년다례연' 19:30 대 2만원 1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0, 3124)</p> <p>World Ballet Grand Prix-Korea 16:00 중 한국발레재단(010-7345-7432)</p>	<p>BBS 특집 공개방송 '합계' 7 챔 BBS부산불교방송(7</p>
<p>9</p> <p>가온누리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5:30 중 무료/가온누리 청소년오케스트라(010-2486-0772)</p> <p>제3회 효원음악 정기연주회 14:00 Ⓢ 효원음악(638-2587)</p>	<p>10</p>	<p>11</p> <p>제5회 사랑나눔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중 초대/사랑나눔합창단(755-5311)</p>	<p>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챔 초대/아트뱅크코레아</p>
<p>16</p> <p>BODY&GROOVE 18:30 Ⓢ 그루비댄스스튜디오(010-5851-1259)</p>	<p>17</p>	<p>18</p>	<p>1</p>
<p>23</p> <p>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벨 에포크 17:00 대 5만원 3만원 2만원/승인문화재단(010-7912-2339)</p> <p>◆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_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 제1기 뮤지컬 '피터팬' 17:00 중 1만원 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p> <p>경향음악콩쿠르 10:00 Ⓢ 경향아트(462-7071)</p>	<p>24</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어르신을 위한 부산시향의 感謝' 14:00 중 전석 5천원(만65세 이상 무료)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25</p> <p>◆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 '중견 해금연주자를 위한 협연의 밤 시리즈 1' 19:30 대 1만원 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0, 3124)</p> <p>◆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어르신을 위한 부산시향의 感謝' 14:00 중 전석 5천원(만65세 이상 무료)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p>	<p>2</p> <p>2020 아지무스오페라단 콘서트 19:30 대 전석 1만원/아지무스</p> <p>KBS부산소년소녀합창단 중 무료/KBS부산소년소</p>

Busan Cultural Center & Busan Citizen's Hall Schedule of Performances

WED	THU	FRI	SAT
			1 가족뮤지컬 '알라딘' 11:00, 14:00, 16:00 ☎ 전석 4만4천원/극단 예일(02-555-0822)
5 이 하먼 행복합니다' 19:30 (97-5131)	6 World Ballet Grand Prix-Korea 13:00 ☎ 한국발레재단(010-7345-7432) 양상블 We 행복음악회 with 무지카비바 앙상블 19:30 ☎ 초대/양상블 We(010-3706-7642)	7 남구소년소녀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19:30 ☎ 남구소년소녀합창단(607-4064)	8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0 감필 콘서트 'Colours' ☎ 전석 11만원/취월드쇼마켓(1566-5490) 창단 20주년 기념 기정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 무료/기정청소년오케스트라(010-6222-7617) 김대환&김도연 바이올린&비올라 듀오 리사이틀 17:00 ☎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제4회 김규남 벽해무용단 공연 18:30 ☎ 김규남(291-1010)
2 추모음악회 19:30 (442-1941)	13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만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19:30 ☎ 전석 1만원/부산시립합창단(607-3116)	14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9회 정기연주회 '프랑시스 뉘앙스' 19:30 ☎ 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동물원과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19:30 ☎ 5만5천원·4만4천원/(재)부산문화회관(630-5200)	15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0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스윗 발렌타인데이' 17:00 ☎ 대 7만원·5만원·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NT Live '헤다가블라' 14:00, 18:00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바이올리니스트 홍기경이 들려주는 음악이야기 18:00 ☎ 무료/H 챔버앙상블(010-4550-9961) ☎ 동물원과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17:00 ☎ 5만5천원·4만4천원/(재)부산문화회관(630-5200)
9	20 무용극 '빛으로 숨어 되어' 20:00 ☎ 대 전석 2만원/주앤스킵퍼니(010-6787-5526) ☎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_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 제1기 공연 '피터팬' 19:30 ☎ 중 1만원·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 에델 현악사중주단 창단연주회 19:30 ☎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제2회 대신 더발레 발표회 19:00 ☎ 무료/대신 더발레 학원(911-8741)	21 ☎ 이의주의 오페라 콘서트 '라 트라비아타' 19:30 ☎ 대 5만원·3만원·2만원·1만원 나무앤쇼(cmy0785 카톡문의) ☎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_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 제1기 공연 '피터팬' 19:30 ☎ 중 1만원·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	22 ☎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_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 제1기 공연 '피터팬' 17:00 ☎ 중 1만원·5천원/부산시립극단(607-3123, 3125) 경향음악콩쿠르 10:00 ☎ 경향아트(462-7071)
16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 콘서트' 19:30 연희합창단(010-5533-7706)	27 제9회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속제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 ☎ 초대/김강규(010-8496-0691) ☎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자화상의 비밀' 19:30 ☎ 4만원 2만5천원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02-766-7623) 이강현 첼로 리사이틀 19:30 ☎ 전석 1만5천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	28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아용광' 11:00 ☎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	29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NT Live '로렌즈린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14:00, 18:00 ☎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소프라노 김수진 독창회 15:00 ☎ 영음예술기획(010-5091-5404) 동백대상국제음악콩쿠르 10:00 ☎ 동백엔터테인먼트(201-0222)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을 클릭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 그곳이 문화예술이 꽃피는 현장이다

—

문화유목민 정두환
본지 편집위원,
음악평론가

“인생은 우리가 사는 그것이 아니라, 산다고 상상하는 그것이다.”

파스칼 메르시어(Pascal Mercier)의 책 <리스본행 야간열차>(570p)에 나오는 글귀다. 필자가 이 글을 읽으면서 받은 충격은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의 실제일까? 아니면 상상일까? 분명한 것은 상상한다는 것이다. 내가 실현하고 있다고 상상하면서 살아가든 아니면, 상상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살아가든지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상상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네 삶을 상상력으로 극대화시키면 어떨까? 멋진 상상인데, 무엇이 그

상상하는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필자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상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 이것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은 개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자본을 투자한다. 이유는 이것이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켜 개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상을 극대화시키는 이것을 찾는 일은 우리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의외로 쉽게 나올 수 있다.

필자는 29년째 후학을 가르치는 일을 생업(生業)으로 하고 있다. 가르치는 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오래 하니 타인들은 필자를 가르치는 일에 전문가라고 하지만 오랜 시간을 그냥 흘러 보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배우려는 사람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최선의 도구 중 최고의 도구는 상상력이다. 이 상상력은 같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각자의 다른 상상력이 지금의 단계를 최고로 이끌어 보다 다양한 사회를 그리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음악에 있어 줄리아드는 예술가들이 선망하는 예술분야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유럽보다 늦게 출발한 대학이 세계 정상에 대열에 자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고의 교수진과 최고의 시설이 있으면 되는 것일까? 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카네기 홀이라는 환경을 바라보았다. 카네기 홀은 줄리아드와 접하고 있고 매일같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르는 공연장이다. 결국, 학생들이 매일 보고, 느끼는 것은 세계 최정상급의 연주자들이 펼치는 공연이다. 학생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세계 최정상들의 무대를 바라보며 그 곳에서 연주하는 자신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의 상상이 현실로 만나는 순간이 주변에서 많아지게 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게 되면서 줄리아드는 세계 정상급의 대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 나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킨 결과이다.

필자는 이러한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이 생기던 초창기에 집을 부산문화회관 근처로 옮겼다. 자연스럽게 부산문화회관은 필자가 주로 머무는 현장이 되었고, 매일같이 공연장을 찾게 되면서 직원들과 친해지고 부산문화회관의 개선점을 건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젊었을 때라 아이들과 함께 음악회장을 찾았는데 아이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놀이방을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져 대극장 3층에 조그마한 놀이방이 생겼다. 필자의 아이들은 공연이 열리는 동안은 놀이방에 머물다 보니 집에서 보던 책이며, 장난감 등을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옮기게 되고 공연장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놀이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던 문화예술은 지금은 그들의 삶이 되었다.

결국,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상상할 수 있는 환경은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이 중요한 이유는 상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책을 통하여 생각을 다지고, 예술을 통하여 상상하는 힘을 극대화할 때 모두는 스스로가 꿈꾸는 아름다운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생업으로 가르치는 일을 했다면 필자의 본업(本業)은 음악가다. 생업과 본업을 구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은 삶의 필요충분조건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싶어서였다. 본업처럼 생업을 하면 아름다운 일이다. 이러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는 묘안(妙案)은 없을까? 그 길은 먼저 알고 있는 이, 즉 직접 보고 느낀 자, 먼저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예술을 먼저 느낀 이의 숙명인지도 모를 일이다.

상상하는 힘! 이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자 신의 선물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일이 많아지길 간절히 빌어본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 일시 : 2월 28일(금), 4월 24일(금), 5월 29일(금)
7월 31일(금), 8월 28일(금), 10월 30일(금)
오전 11:00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 전석 1만원(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

○ 할인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 마티네 패키지 할인

6편 전 공연 동시 구매 시 30%

4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10% 할인

※ 단체 30명 이상 50% 할인

○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 음료와 빵을 무료로 드립니다(선착순 제공)



아나운서 박찬민과 함께하는 브런치 무대

(재)부산문화회관의 특별한 브랜드 무대인 ‘마티네 콘서트’가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지난 2017년 재단법인으로 첫 발을 내딛은 후 시작된 ‘마티네 콘서트’는 저녁시간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관객들을 위한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이자 클래식 입문 프로그램으로, 다른 곳에서는 만날 수 없는 깊이 있는 해설음악회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오페라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페라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했던 마티네 콘서트는 올해부터 SBS 간판 아나운서이자 클래식 애호가인 박찬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음악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다.

클래식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박찬민은 2000년 SBS 공채 8기 아나운서로 입사하여 올해 20년차를 맞은 베테랑 아나운서로, TV 예능프로그램인 ‘스타주니어쇼 붕어빵’에 세 딸과 함께 출연하여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재는 SBS 대표 아침방송 프로그램인 ‘좋은아침’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2.28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응광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첫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바젤 오페라 하우스의 전속 주역을 역임한 ‘스위스의 보석’ 바리톤 이응광. 2월 28일 열리는 이번 무대는 ‘오페라, 재즈가 되다’라는 주제로 바리톤 이응광과 소프라노 구민영, 피아니스트 이소영이 출연,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밀러커 오페레타 ‘가스파로네’, 레하르 오페라 ‘메리 위도우’ 등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해 거슈윈의 첫 번째 재즈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만날 수 있다.

유럽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활동해온 이응광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5년 도독,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음대에서 디플롬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이듬해인 2006년 독일 알렉산더 지라르디 국제콩쿠르 우승, 2008년 이태리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콩쿠르 1위 및 3개의 특별상 수상, 2010년 스위스 에른스트 해플리거 국제콩쿠르 1위 등 연이은 수상행진으로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응광은 스위스 바젤 오페라극장의 전속가수로 캐스팅되어 유럽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현재는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0/2021 시즌 스위스 루체른 오페라극장과 리히텐슈타인 오페라극장에서 로시니의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타이틀 롤인 피가로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바리톤 이응광과 함께 무대에 서는 소프라노 구민영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과 Accademia A.I.D.M, Accademia di Roma를 졸업했다. 귀국 후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으로 각광받으며, 국내외 주요 오페라단의 주역으로 활동해온 구민영은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서정적이면서도 에너지가 넘치며 아카데믹한 테크닉과 함께 화려한 기교를 겸비한 소프라노’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4.24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는 4월 24일 관객과 만난다. 지난해 1월, 가수 인순이와 함께 희망과 감동을 전하는 특별한 신년 무대로 부산을 찾았던 드니 성호는 특히 부산에서 태어나 생후 9개월 만에 벨기에로 입양된 그의 개인사가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당시 많은 화제를 낳았다. 드니 성호는 지난 2005년 ECHO(유럽 콘서트홀 협회)로

부터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어 뉴욕 카네기 홀에서 데뷔 무대를 가진데 이어 2012년에는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된 마르타 아르헤리치 프로젝트에 기타리스트로서는 최초로 초청받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또 쿠바 출신의 작곡가 겸 거장 기타리스트 레오 브라우어의 작품을 녹음한 음반이 독일의 클래식 음악지 'KLASSIK'으로부터 '역사에 남을 연주'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줄을 튕기는 순간 '기타는 나의 운명'임을 느꼈다는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전자음악과의 콜라보레이션 무대까지 직접 만들어 공연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유럽 데뷔무대를 가진 후 폭넓은 음악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윤여영과 함께하는 파가니니 '기타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콘체르타타'를 비롯해 영화 '금지된 사랑'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나르시소 예페스의 '로망스', 류이치 사카모토의 '전장의 크리스마스',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그리고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등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친숙한 곡들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5.29 동요, 클래식이 되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가정의 달인 5월 29일에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피아니스트 박종화를 만날 수 있다. 지난 199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에서 최연소 입상하면서 '천둥처럼 나타난 한국의 젊은 천재'로 화제를 모

았던 박종화는 2003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입상 및 부조니상, 루빈슈타인 콩쿠르 특별상, 스페인 산타데르 국제피아노콩쿠르 특별상 및 청중상 수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박종화는 2012

년 첫 국내 앨범 'HEROES' 발매를 통해 새로운 해석과 연주로 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유년기와 청년기를 타국에서 보내야 했던 박종화는 딸아이의 동요책에 있던 동요를 들으며 나의 뿌리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동요를 탐구하기 시작, 지난 2015년에는 전래동요에서 창작동요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동요를 피아노곡으로 재해석한 두 번째 음반 'NUNAYA'를 발표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의 '24개의 프렐류드 작품 28' 중 12곡과 함께 '새야새야 파랑새야', '꽃밭에서', '아리랑' 등 그가 새롭게 해석한 동요를 감상할 수 있다.

7.31 바이올린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 자리매김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은 7월 31일 네 번째 무대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한국인 최초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부악장으로 활동중인 김재원은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

스트라 아카데미 단원, 파리 국립오페라하우스 아카데미 단원, 프랑스 릴 국립오케스트라 객원 부악장을 역임하고 지휘자 정명훈이 창단하여 주목받은 원 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선발되어 활동한 바 있다. 한국 예술종합학교와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금호영재아티스트로 선정되어 한국 음악계에 데뷔했다. 독일 클로스터 쉐탈 국제콩쿠르, 이태리 리피체 국제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입상하여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김재원은 홍콩 손펠드 국제음악협회 콩쿠르 입상, 브람스 국제콩쿠르 바딤레핀 특별상 수상, 소피아 비르투오조 국제콩쿠르 2위 등 세계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2017년에는 프랑스 나테시스 반케 재단 아티스트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14년 헤이스팅스 국제피아노협주곡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과 더불어 청중상을 거머쥐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린 피아니스트 이택기와 함께 슈만의 '3개의 로망스 작품 94', 베토벤 '로망스 제1번 작품 40', 시벨리우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작품 81', 브람스 'F.A.E 소나타', 생상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 등 감미로운 바이올린 선율이 돋보이는 곡들을 들려준다.

8.28 드라마틱 플루트 플루티스트 필립 운트



한국과 유럽을 오가며 K-클래식의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스위스 출신의 플루티스트 필립 운트는 8월 28일 관객과 만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헨음대에서 플루트를 전공한 이색 경력의 필립

운트는 KBS 교향악단 수석 플루티스트와 뮌헨 필하모닉, 뮌헨 챔버 오케스트라, 슈투트가르트 필하모닉, 바이에른 주립 오케스트라 단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 객원으로 활동했다.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중 한국 음식에 매료되어 2008년 한국을 찾은 필립 운트는 한국 음식을 통해 시작된 한국 사랑으로, 유럽과 한국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콘텐츠를 유럽에 소개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곤지암 뮤직 페스티벌 음악감독, 스위스-한국 문화교류재단 이사, 스위스 뇌샤텔 음악원 교수로 있으며, 2020년부터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로 후학 양성에도 힘을 예정이다. 특히 필립 운트는 한국 드라마의 매력에 깊이 빠지면서 지난 2018년, 수백 편의 한국 드라마 OST 중 직접 선곡하고 편곡한 곡들로 '드라마틱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무대에서도 & duo 멤버, JUNGS DUO 멤버, 전문반주자 및 편곡

자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연효정과 함께 모차르트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크람카프 '라트라비아타 환상곡', 타파넬 '마탄의 사수 환상곡', 모라치 '스위스 목동'을 비롯해 드라마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 화제가 된 드라마 OST를 들려준다.

10.30 베토벤, 영웅이 되다 피아니스트 홍민수



2020년 마티네 콘서트 마지막 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홍민수가 함께한다. 10월 30일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홍민수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토벤 소나타 제

8번 '비창', 제14번 '월광', 그리고 소나타 제32번을 들려준다. 베토벤이 26년에 걸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32곡은 피아노에서 신약성서로 손꼽힐 정도로 음악사에 중요한 작품이다.

일찍이 국내외 콩쿠르에서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은 홍민수는 특히 2011년과 2014년에는 세계적 권위의 페루치오 부조니 콩쿠르에서 2회 입상했으며, 2017년에는 윤이상 국제콩쿠르에서 3위로 입상한데 이어 2018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네덜란드 리스트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2위 입상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화려한 수상경력과 더불어 만 9세의 나이에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데뷔무대를 가진 홍민수는 그동안 서울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부천 필,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TIMF 오케스트라, 중국 상하이오케스트라 등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국내를 비롯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모로코, 이스라엘 등 세계 곳곳에서 독주와 협연, 실내악 연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홍민수는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에 다니고 있다.



시가 있는
산골 이야기 7

남향집



시인, 본지 편집위원장 **동길산**

✉ dgs1116@hanmail.net

둘도 없는 당신이 햇살

여름엔 마루도 넘지 못하게 하는 햇살을
겨울엔 방안까지 들이는 남향집
집에도 마음이란 것이 있어
추운 날 내 집에 온 손님
몸은 녹이고 가라고 방 안까지 들인다
남자 혼자 지내는 방이 궁금한지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해 햇살은
슬금슬금 마루에서 비비적대거나
슬쩍슬쩍 장판을 쓸어 보는 기척이다
몸이 다 녹았을 만도 한데
그만 일어서려는 눈치라곤 없이
있을 때까지 있어 보자는 심산인 겨울 햇살
그러거나 말거나
이왕 내 집에 들인 손님
있을 때까지 있어 보라는 심산인 남향집

동길산 詩 '남향집'

66

저 먼 곳, 밝고 따뜻한 당신

웅크린 몸을 펴게 하고

마음마저 펴게 하는

99

햇살은 눈치가 없다. 마루 아래 처마에서 기웃대더니 마루를 넘보고 방까지 넘본다. 눈치가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속으론 반갑다. 덕분에 마루에 온기가 감돌고 방에 온기가 감돈다. 한겨울 웅크린 몸까지 짹 펴지는 기분이다.

겨울은 해가 짧다. 짧고 낮게 뜬다. 여름 해는 높다랗게 떠 마루에서 보이지 않지만 겨울 해는 나지막하게 떠 방에서도 다 보인다. 나지막하게 떠서는 초가삼간 개조한 지붕 낮은 집에 종일 햇살을 보낸다. 짧고 낮지만 속은 깊은 겨울 해다.

속 깊기론 집도 마찬가지로. 지붕 낮은 누옥이지만 예의는 바르다. 오죽했으면 이런 집을 찾았을까, 마음의 문 활짝 열고서 손님을 들인다. 차를 내오고 두런두런 말을 나눈다. 햇살은 속 깊은 수면에 닿으면 반짝반짝 그러고 속 깊은 집에 닿으면 두런두런 그러다.

해와 집 둘 다 속이 깊어도 자세히 보면 집이 더 깊다. 해는 퍼질러 앉아 갈 생각이 없어 보이고 집은 그러거나 말거나 내보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 손님을 재우려면 아궁이 불도 때야 하고 밥상도 차려야 하고 할 일이 한둘 아닌데 집은 참 태평이다.

내가 사는 산골 집은 남향집. 여름엔 해를 들이지 않고 겨울엔 해를 들인다. 마루에 있으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그래서 여름이든 겨울이든 해가 떠서 지기까지 마루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 마루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심심해지면 마루에서 잔다.

손님 뜬 산골 집에서 햇살은 귀한 손님이다. 먼 걸음 해 줘서 그렇고 함께 있으면 밝고 따뜻해서 그렇다. 햇살만 그럴까. 저 먼 곳, 밝고 따뜻한 당신. 돌도 없는 당신이 바로 햇살이다. 한겨울, 나아가 한 생애, 웅크린 몸을 펴게 하고 마음마저 펴게 하는.

반갑습니다
+



김종욱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

신임
수석지휘자

인터뷰·글 권은영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음악이란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게 붙은 것이요
텅 빈 것으로부터 나와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여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樂也者 出於天而禹於人 發於天而成於自然
所以使人心感而動湯血脈流通精神也)

개념으로 말할 수는 있으나 모두 개념으로 담아낼 수 없을 때 비유, 상징을 쓰거나 침묵한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기보다 ‘나는 너를 머쉬멜로우해’라고 말할 때 전달되는 사랑의 메시지가 달콤하게 사르르 녹는 혀의 감각으로 와 닿듯 악학계범 서문에서 말하고 있는 악(樂)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온도로 몸으로 다가와 휘감긴다. 우리 음악이 무형이며 무한한 하늘의 음향적 구현이며 그 메커니즘이 자연이라는 이해로 이끄는 이 문장의 시적인 아름다움을 처음 만났을 때의 충격과 감동을 잊을 수 없다. 하늘과 자연이라는 거대담론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우리 전통음악이 서양 오케스트라의 형식을 받아들여 국악 관현악으로 현대화되었지만 그 소리그릇과 음악의 메커니즘은 여전히 오롯이 우리의 음악이다. 그러하기에 각각의 소리들을 소중히 보듬어 땅의 조화로움으로 엮어내야 하는 국악 관현악에 있어서 지휘자의 역할은 서양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는 결의 차이가 있다. 플라타너스의 결과 오동나무의 결이 다르듯.

오랜 기다림 끝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새로운 지휘자를 맞이하였다. 지난해 8월부터 세 번에 걸친 수석지휘자 선정을 위한 경선 끝에 이루어진 결과이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김종욱 씨, 경자년 1월 봄날처럼 따뜻한 오후, 하늘의 에너지를 담은 음악을 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맡은 그를 만났다. 여섯 명의 평가위원들이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음악성, 지휘의 역량,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김종욱 지휘자를 선택하였다. 그는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의 모든 장르를 두루 섭렵하고 있으며 수석지휘자 경선을 위한 공연에서 세심하게 음악을 해석하여 안정된 연주를 이끌어 내면서 주목을 받았다. 한국음악, 부산의 국악과 공연문화 그리고 음악을 둘러싸고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한참 수다를 떠는 가운데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3년을 어렵פות하게나마 그려 볼 수 있었다.

대금연주자였던 그를 지휘자의 길로 이끈 힘은 뚜렷한 경계가 없는 현대의 음악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펼쳐지고 있는 음악들을 접하면서 발견한 우리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가능성으로만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같다. 그는 펼쳐져 있는 가능성들을 의미 있는 음악 실체로 구현해내고 싶었던 것이다. 오늘 국악 관현악이 풀어야 할 난제 중의 하나는 예술성과 대중성의 아우름이다.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해 그는 첫째 좋은 연주, 둘째 오케스트레이션의 최적화, 셋째 좋은 작품을 꼽는다. 모두 녹록지 않은 과제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놓칠 수 없음에 공감한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동시에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어 모든 변화를 주관한다면 우리음악에서 변하지 않는 그 무엇, 우리음악을 우리음악답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의 생각을 들어보자.

“우리음악은 극도의 자유로움에서 출발합니다. 선법과 장단이라는 질서 안에서 그것을 해체하고, 조합하고, 다른 길을 시도하고, 좀 더 확장해갑니다. 인간의 심리적인 안정과 쾌감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음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면서 36년 전통의 악단답게 연륜이 짙게 배어 있는 단원들의 호흡에 깊이 감명받았다고 하는 김종욱 지휘자는 앞으로 단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음악에 대한 포부를 이렇게 밝힌다.

“극도로 정제된 음향의 균형을 통해서 객석에 전달되는 소리의 감각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소리는 간결하면서도 자극적입니다. 반면에 그 소리를 감싸고 있는 배경의 소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죠. 이러한 소리는 청각에 집중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소리들의 완벽한 균형을 통해서만 느껴질 수 있겠죠. 많은 시간을 단원들과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순해 보이던 김 지휘자의 눈빛에서 섬광이 번뜩인다. 외유내강인 그의 내공이 감지되면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제대로 인연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게 붙은 몸짓을 그의 손끝에서 볼 수 있기를, 텅 빈 것으로부터 나온 자연의 떨림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울림으로 객석과 공명하기를 기대해본다.

번갯불
백스테이지?

아니,
라이브 온
스테이지!

이의주 오페라 연출가

나는 지난 3년간 부산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월간 <예술의 초대>의 귀한 지면을 허락받아 그 어느 곳에서도 검색해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페라의 무대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과 지나간 뒷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었다. 예전에도 몇몇 매체에 글을 써본 경험이 있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34회라는 많은 횟수는 처음이다. 아마도 내 인생에 많은 경험과 추억들이 있는데 그중 분명히 <예술의 초대>와의 인연은 내게 큰 성장과 발전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마지막 연재의 글을 빌어 부산시민들과 부산문화회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토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사랑의 묘약'

2015년 우연한 기회로 부산문화회관에서의 ‘문화대학’ 강연을 시작으로, 2016년 ‘내가 사랑하는 오페라’ 상, 하반기 강연에 이어 2017년 5월부터 <예술의 초대>에 원고를 게재하는 등 5년 여간 부산문화회관과 연애에 빠졌다. 특히 지난해 토크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사랑의 묘약’, 부산문화회관 첫 제작 전막 오페라 ‘리골레토’, 그리고 연말 송년무대 ‘오페라&뮤지컬 하이라이트’ 등 다양한 공연으로, 내가 마치 부산 사람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부산 사랑에 넋을 잃었다. 여러 공연 관계자들을 만나서도 마치 부산의 홍보대사라도 된 것처럼 부산 얘기만 한 것 같다. 부산은 오페라 블루 오션이라고.

성공적으로 끝난 ‘리골레토’는 재공연까지 성사되어 내년엔 다시 부산시민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나 역시 순회공연은 많이 다녀봤지만 재공연하는 것은 이번이 난생 처음이다. 같은 공연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이미 경험한 그 작품의 제작 노하우를 십분 발휘할 수 있기에 제작비 절감은 물론 무대 세트와 의상에서부터 캐스트 모두 완성도에 있어서도 큰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극장들은 계속해서 좋은 프로덕션의 작품들을 짧게는 5년, 길게는 몇십 년을 공연하고 있다. 비엔나 스타츠오페의 경우는 얼마 전 별세한 이탈리아의 명연출가 프랑코 제피렐리의 50년 된 ‘카르멘’을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렸다.

아, 이게 끝이었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처럼 부산과의 인연은 이게 끝이 아니기에 새로운 모티브를 마련하고자 나는 큰 사고를 쳤다. 작년 ‘리골레토’에 대한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과 3년간의 <예술의 초대> 시리즈를 마치는 아쉬움에 공연 기획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의주의 오페라 콘서트-박현진의 트라비아타’를 기획하게 되었다. 순수한 뜻이다. 공연을 제작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클래식, 그것도 오페라를 만든다는 것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다. 돈 좀 벌겠다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난해 부산에서의 여러 공연을 통해 공명심보다는 뛰어난 부산 음악인들의 무대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사명감이 큰 나를 발견했다. 그래서 소프라노 박현진부터 차례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자주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부산의 오페라 인구 저변확대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이 글을 쓰기 2주 전인 2020년 1월 2일 나는 큰 결심을 했다. 1천 석도 더 넘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의 수시대관을 신청하기로 말이다. 마침 나의 뜻에 동참한 기획자는 흔쾌히 서류를 만들어 정식 절차를 통해 신청한 후 대관 승인을 기다렸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떨리는 마음으로 포스터, 전단, 그리고 트레일러까지 다 만들어 놓았다. 만일 안 되더라도 다음 기회 미리 준비한 셈 치면 되니까... 결과는? 짜자잔! 우리가 신청한 바로 딱 그날인 2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 허가를 받게 되었다. 기다리는 긴장감도 짜릿했다. 극장에 내 이름의 공연명으로 대관 신청하여 받은 첫 사례이다.

사실 2월은 공연계의 보릿고개라 조수미, 조성진 급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시기이다. 그럼에도 나는 아쉬움에 지면의 집필을 마치면서 부산 하늘에 파리의 하늘을 구현하고 싶었다. 시간이 없다. 준비할 것도 너무나 많다. 긴장이 되고 떨린다. 하지만 기대해도 좋다. 이 많은 객석은 여러분들이 채워주실 거라 확신한다. Opera must go on! 이제 다시 시작이다. 부산에서 말이다!



미켈란젤로의 유언장

바티칸 박물관의 '최후의 심판'

글·사진 김성민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유로자전거나라 교육팀장

회자정리(會者定離)

며칠 전 친한 선배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문을 다녀왔다. 어머니가 원래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 5년 가까이 투병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죽음은 마치 사고처럼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외국에서 10년간 박물관을 방문하는 여행자들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기 때문에 헤어짐이 너무 아프지 않게, 새로운 만남에 들뜨지 않으려고 다짐했지만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여전히 마음을 아프게 한다. 또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태어난 딸을 지켜보면서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문득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과도 언젠가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진짜 마음이 무너질 것 같다.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이별이 너무 슬프지 않게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과 매 순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헤어짐의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처음 이곳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2020년이 되어 26번째 마지막 글을 쓰고 있다. 개인적으로 내 생각을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족한 글을 잘 정리해주고 멋지게 만들어준 부산



1. 바티칸 전경
2. 바티칸 박물관 야경



문화회관 <예술의 초대>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 글에 어울리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the last judgement)'이 떠올라 이번 시간에 소개하려고 한다.

반종교개혁과 최후의 심판

2018년 1월호에 바티칸 박물관에서 이미 소개했던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 1475~1564)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다.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시대에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특히 독일에서 시작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1517)이 대표적인 사건이다. 9세기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가 크리스트

교를 중심으로 서유럽을 통합한 이후 유럽사회는 다양한 민족들과 나라들이 있었으나 종교는 하나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바티칸 교회 스스로의 타락과 동로마제국 멸망 이후 그리스어에 대한 연구로 인해 성경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연구물들은 인쇄술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결국 가톨릭교회는 분열되었다. 한편 외부에서 가해진 종교개혁의 반동으로 바티칸 교회 내부에서의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종교개혁이라고 한다. 특히 개혁적인 노선을 펼쳤던 교황 바오로 3세(재위 1534~1549)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무너진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전임 교황이 추진했던 시스티나 성당 전면의 대형벽화 작업을 미켈란젤로가 할 수 있게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미켈란젤로에게 시스티나 성당은 어





편 곳인가? 자신의 30대 절반의 시간을 바쳐 완성한 천장벽화가 있는 곳이다. 이제는 22년의 시간이 흘러 60대의 노장이 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치열했던 젊은 시절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으리라 생각한다. 미켈란젤로는 가톨릭교회의 가장 핵심인사들이 미사를 드리는 시스티나 성당 전면(가로 11m, 세로 18m)에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요한묵시록(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는 예수의 재림을 그리기로 한다. 제작 기간은 5년 6개월 가까이 걸렸는데 바쁜 미켈란젤로가 매일 작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실제 그림을 그렸던 날은 450일 정도였다고 한다.

그림 정중앙에는 심판자로 재림한 예수의 모습이 있다. 그리고 그 왼편에는 성모마리아가 심판받는 자들이 불쌍해서인지 고개를 돌리고 있다. 예수와 성모마리아 주변에는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었고

그림 왼편 아래는 승천하는 사람들과 그림 오른편 아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칭송받는 이 작품이 미켈란젤로 당시에는 수많은 이단논쟁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의 모습이 너무 젊고 수염이 없어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부터 성모마리아의 요염해 보이는 모습과 날개 없는 천사의 모습까지 다양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무엇보다 미사를 드리는 엄숙한 장소에 예수와 성모마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인물들이 누드로 그려졌으니 분명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 벌거벗은 채로 태어났으니 최후의 심판 때도 신분을 나타내는 옷은 생략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그림을 없애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친구이자 제자였던 다니엘레 다 볼테라라는 화가가 덧칠작업을 통해 그림 속 인물들의 주요 부분을 팬티처럼 그려버림으로 일단락되었다.(이 화가는 이후 기저귀 작가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한편 작업기간 내내 이단 의혹을 제기하며 미켈란젤로를 괴롭혔던 교황의 수석 보좌관은 자신의 모습이 그림 속에 등장했다는 말에 부리나케 성당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자신의 모습이 지옥의 심판관 미노스로 그려진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당장 교황을 만나러 간 그는 그림 수정을 명령해달라며 교황에게 요청하지만 교황은 미소를 지으며 “지옥에는 내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이라네”라고 대답함으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지켜줬다고 한다.

미켈란젤로의 유언장 최후의 심판

젊은 시절 이미 부와 명예를 다 얻었던 60대의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당시 가톨릭교회는 종교개혁의 원인을 사악한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고 생각했으나 미켈란젤로는 그 원인은 부패한 가톨릭교회 내부에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 그의 편지를 보면 ‘신의 은총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시 독일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던 면벌부(면죄부



로 알려진)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자. 그림 중앙에 위치한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천사들의 책을 보면 왼편의 작은 책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명부이며 반대로 오른편의 큰 책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명부이다. 이곳이 바티칸 수뇌부의 미사 장소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결국 종교개혁의 가장 큰 원인은 이 그림을 보며 기도하고 있는 부패한 성직자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예수의 오른편 아래 위치하고 있는 살가죽이 벗겨져 순교당한 예수의 제자 바돌로매의 살가죽 속을 보면 이상한 얼굴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보기 싫어서 두 눈까지 뽑은 상태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미켈란젤로는 이단 논란으로 자신을 공격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바꾸지 말고 부패한 세상이나 바꾸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사실 그리스 문명의 재생을 추구하며 그리스 신화연구에 열중했던 르네상스 사람들에게 살가죽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그는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악기 대결을 펼쳤다가 결국 살가죽이 벗겨져 죽은 마르시아스라는 인물이다. 실제 당시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악기 연주를 하다가 죽음을 당한 마르시아스를 예술가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칭송했는데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얼굴을 살가죽에 그린 것은 바로 죽음(순교)을 각오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 교회 내부에서 개혁적인 노선의 추기경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정도로 교회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잃을 것이 없는 젊은 나이도 아니었고 세상의 명성과 부를 다 가지고 있었던 60대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의 유언장과 같은 작품이라 할 수 있겠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고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더라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형태로든 흔적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미켈란젤로처럼 전 인류에게 엄청난 흔적을 남길 수는 없겠지만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벌써 2020년 2월이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이별을 준비하며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 3. 시스티나 성당 전면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 전체 모습
- 4. 천국과 지옥의 명부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
- 5. 심판자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 6. 지옥의 왕으로 그려진 다체세나 추기경은 당시 가장 부패한 성직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 7. 미켈란젤로 자화상



Invitation

가온아트홀	1600-1601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51
동래문화회관	550-6611
레몬트리소극장	626-0116
무대공감 전용극장	623-0678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예술평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309-46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성원아트홀	1899-5435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950-6500
소극장 6번출구	625-2117
소민아트센터	991-2200
수아트홀	744-141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액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소극장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축제소극장	070-4211-8879
한결아트홀	1588-9155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AN아트홀 서면	070-4175-9035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KBS부산홀	620-7181
MBC롯데아트홀	760-1177
SM아트홀	1600-1602



to the Arts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만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연가곡 '겨울 나그네' 전곡을 합창으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가 2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낭만주의 가곡 장르를 대표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는 사랑에 실패한 청년이 살 희망을 잃은 채 눈보라 치는 들판을 방황하는 모습을 그린 연가곡으로, 총 24개의 가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은 한 청년이 추운 겨울 연인의 집 앞에서 이별을 고하고 방랑의 길을 떠나면서 시작된다.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추운 들판을 헤매는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까마귀, 환상, 도깨비불, 백발과 같은 죽음에 대한 상념이 마음속에 자리잡게 된다. 마지막으로 마을 어귀에서 손풍금을 연주하는 늙은 악사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하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겨울 나그네'를 작곡할 무렵 30세였던 슈베르트는 다가올 죽음을 예감한 듯 고독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곡을 완성한 이듬해 가난과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겨울 나그네'는 실연의 아픔에 힘들어하는 나그네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음울하고 어두운 정조가 가득한 비극적인 노래

로, 그 쓸쓸하고 적막한 감정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면서 다양한 성악 및 기악 편성이 만들어졌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바리톤 이광근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바리톤 솔로와 합창이 함께하는, 그레고르 메이어가 편곡한 '겨울 나그네' 부산 초연무대로, 기존 곡의 솔로와 피아노 부분의 가사와 멜로디는 유지한 채, 합창파트를 새롭게 추가하여 전곡에 걸쳐 외로운 방랑자 분위기를 더욱 더 다양하고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다.

바리톤 솔로로 무대에 서는 이광근은 연세대학교를 수석졸업하고 이태리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석사, 독일 마인츠 음악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동안 일본 교토, 이태리 부세토, 스페인 바르셀로나, 노르웨이 오슬로 등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으며, 2006년 독일 울름극장을 시작으로 유럽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페라 '돈 카를로', '토스카', '오텔로',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나부코' 등 오페라 주역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온 이광근은 2018/2019년 하겐 극장에서 객원가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일시 2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지휘 아드리앙 페뤼송

● 뛰어난 재능, 리더십을 겸비한 프랑스 출신의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송의 객원 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9회 정기연주회가 2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시립교향악단 팀파니 수석으로 활동한 뛰어난 팀파니스트이기도 했던 아드리앙 페뤼송은 지난 2014년,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지휘자로서의 화려한 데뷔 무대를 가진 후 몽펠리에 국립 오케스트라, 로렌 국립 오케스트라, WDR 방송교향악단,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등 유럽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했다. 2016년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이어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미국 데뷔 무대를 가졌으며, 2017/18 시즌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8/19 시즌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 벨기에 앙트워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성공적인 무대를 가졌다. 한국에서는 2015년 대관령음악제를 통해 데뷔한 후 2017년 통영국제음악제에서 빈 필하모닉 앙상블을 이끌며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어 2018년 7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들과 함께 한국을 찾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며, 그 해 10월에는 윤이상 국제콩쿠르 본선 연주회를 이끌기도 했다.

페뤼송은 이날 무대에서 올해 탄생 250주년을 맞은 베토벤의 ‘피델리오’ 서곡을 시작으로 프랑스의 인상파 작곡가 드뷔시의 곡으로 무대를 꾸민다. 첫 곡인 베토벤의 ‘피델리오’ 서곡은 프랑스 대혁명 시대를 배경으로 작곡된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에 붙여진 네 개의 서곡 중 한 곡으로, 이들의 서곡 중에서도 가장 충실하며 극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드뷔시가 완성한 유일한 오페라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으로, 특히 이번 무대를 통해 국내 초연으로 들려준다. ‘펠리아스와 멜리장드’는 우리에게 ‘파랑새’의 작가로 알려진, 벨기에 작가 모리스 메테르링크의 동명의 희곡을 대본으로 한 오페라로, 초연 당시 큰 성공을 거두며 20세기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2부 첫 곡인 드뷔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은 드뷔시의 출세작일 뿐 아니라 인상주의 작품을 확립한 음악사상 획기적인 명작으로, 오늘날 드뷔시의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곡 중 하나이다. 마지막 곡인 드뷔시 ‘바다’는 그의 관현악곡 중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다의 다양한 모습을 선율과 음색의 미묘한 변화를 통해 그려내고 있다.

- 일시 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0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스위트 발렌타인데이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감성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부산을 찾는다.

일본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한국에서 뉴에이지 열풍을 주도했던 유키 구라모토는 지난 1999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첫 내한공연이 매진을 기록한 이후,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 1986년 첫 피아노 솔로앨범인 '레이크 미스티 블루(Lake Misty Blue)'에 수록된 '레이크 루이즈(Lake Louise)'가 크게 히트하면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유키 구라모토는 이후 영국 런던 필하모니와 협연한 앨범 '리파인먼트(Refinement)'가 높은 음악성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으면서 대표적인 뉴에이지 뮤지션으로 자리매김했다. 음반 발매 외에도 아사히TV의 '호텔', NHK의 '한 번 더 키스' 등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도 참여했으며, 케이블 TV, 레이저 디스크 등 영상음악뿐만 아니라 일본항공 등 항공사의 '인 플라이트 뮤직(In Flight Music)'으로도 각광받았다. 2004년 일본 레코드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 7월에는 처음으로 뮤지컬 음악 작곡에 도전하여 일본 창작뮤지컬 '폭풍의 언

덕' 전곡을 작곡하여 호평받았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8년 정식으로 음반이 수입되면서 음악 팬들에게 알려졌으며, 특히 그의 음악이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을동화', 영화 '달콤한 인생', '우리 형'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2009년 3월과 11월에는 한국 공연 데뷔 10주년, 2014년 3월과 10월에는 한국 공연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전국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09년부터는 매년 전석 매진 행렬을 이어오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스윗 발렌타인데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에 관한 섬세하고 따스한 시선을 담은 그의 대표곡들을 피아노 솔로와 콰르텟(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과의 앙상블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온 'Romance'를 비롯해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지켜보는 사랑을 표현한 'Warm Affection', 변함없이 영원한 사랑을 표현한 'Timeless Love' 등 그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멜로디가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 **일시** 2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초등학생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어르신을 위한 부산시향의 感謝(감사)



지휘 이민형

소프라노 신민원

테너 조윤환

● 그동안 부산시립교향악단만의 차별화된 무대로 관객과 만나왔던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올해부터는 다양한 관객층을 위한 기획음악시리즈 'Casual Season'을 새롭게 운영한다.

그 첫 무대로 어르신을 위한 '부산시향의 感謝'가 2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신민원, 테너 조윤환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대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이번 무대의 첫 곡인 바흐의 'G 선상의 아리아'는 아름다운 선율과 장중한 분위기로 오늘날에는 팝이나 재즈로도 편곡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어지는 곡인 헨델의 '쾌활한 사람, 사려깊은 사람, 온화한 사람' 중 '새벽이 밤을 훑쳐 가듯이'는 존 밀튼의 시에 곡을 붙인, 오라토리오도 오페라도 아닌 목가적 노래(Pastoral ode)로 아름다운 칸타타 풍의 아리아이다. 로시니의 '춤은 악보집 '저녁의 음악'에 포함된 곡으로, 이탈리아 무곡인 '타란텔라'의 매우 빠른 템포와 박진감 넘치는 리듬이 특징이

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봄의 소리' 왈츠는 마치 봄날, 지저귀는 새소리와 젊은이들이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밝고 가벼운 왈츠곡이다. 이어서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에 이어 마지막 곡으로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음악적 완성미를 보이는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미완성'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 협연자로 관객과 만나는 소프라노 신민원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와 미국 맨해튼 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맨해튼 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동안 오페라 '마술피리', '코지 판 투테', '수잔나', '헨젤과 그레텔' 등 다수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섰으며, 현재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영재원, 부산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교회음악과와 오스트리아 비엔나국립음악원, 독일 베를린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악원(마이스터엑자멘)을 졸업한 테너 조윤환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성악부문에서 입상하고 현재 고신대학교, 브니엘 예술고등학교 외래교수, 금정구여성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 일시 2월 24일-25일 월-화요일 오후 2: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전석 5천원(만 65세 이상 무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 중견 해금연주자를 위한 협연의 밤 시리즈 I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해금연주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가 2월 2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예술감독 김정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준희, 고수영, 서은영, 안은경, 방병원 등 중견연주자 5인이 해금선율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창작곡으로 '5인 5색' 무대를 펼친다. 첫 무대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지도단원이자 추계예술대학교 초빙교수로 있는 김준희의 무대로, 가냘픈 두 줄에 기대어 세상의 모든 소리를 품으려는 해금의 이야기를 담은 해금협주곡 '활의 노래'(이정면 곡)를 들려준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및 동대학원,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김준희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해금수석 및 악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10월 디지털 앨범 '나비 X- Xclaim Wave'를 출판한 바 있다. 이어지는 무대는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으로 있는 고수영의 무대로, 화려하고 선이 선명한 가락을 느낄 수 있는 '서용석류 해금산조 협주곡'(이준호 곡)을 들려준다. 고수영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앙상블 라메르에릴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이화

여자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으로 있는 서은영은 위안부 할머니의 아픈 과거와 치유의 시간을 그린 해금협주곡 '터널의 끝을 향해'(박영란 곡)를 부산초연으로 들려준다. 한양대학교 국악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과정,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서은영은 한양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강사로 있다. 상반되는 2개의 주제선율이 인상적인 해금협주곡 '추상'(이경섭 곡)은 KBS국악관현악단 해금 수석으로 있는 안은경이 들려준다.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반대학원 국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안은경은 한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타악그룹 '고고앙상블'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방병원이 특이한 장단과 선율이 인상적인 옴니버스 형식의 해금협주곡 '월백 설백 천지백'(김성경 곡)을 들려준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한 방병원은 현재 해금·아쟁 연주단 해아연 회장으로 있으며 부산대학교 강사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일시 2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1층 1만원, 2층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0, 3124

Preview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지휘 이민형

피아니스트 홍민수

● 보헤미안을 대표하는 작곡가 스메타나와 드보르작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60회 정기연주회가 3월 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고 부산 출신의 차세대 피아니스트 홍민수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메타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를 시작으로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제1번',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을 들려준다. 첫 곡인 스메타나의 연작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두 번째 곡인 '몰다우'는 체코 슬로바키아의 역사적인 장소와 자연, 전설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표제에 충실한 음악의 흐름, 아름답고도 친밀감을 주는 선율로 그의 작품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곡이다. 이어지는 곡은 작곡가 특유의 화려한 낭만적 악상과 현란한 피아노 기교가 유감없이 발휘된 리스트 '피아노협주곡 제1번'으로, 지난 2017년 프란츠 리스트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이 곡으로 2위 입상한 피아니스트 홍민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통찰력 있는 음악성과 견고한 연주'로 호평받는 홍민수는 일찍이 쉰멜 국제청소년콩쿠르 1위를 시작으로 오벌린 국제청소년콩쿠르, 이스트만 국제청

소년콩쿠르, 에틀링겐 국제청소년콩쿠르, 모로코 필하모니 콩쿠르, 쾰른 쇼팽 콩쿠르, 하노버 쇼팽협회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특히 2011년과 2014년에는 세계적인 권위의 페루치오 부조니 콩쿠르에서 2회 입상했으며, 2017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네덜란드 프란츠 리스트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2위 입상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화려한 수상 경력과 함께 만 9세때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무대로 데뷔한 홍민수는 그동안 서울시립교향악단, 성남시립교향악단, 부천 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라임 필, 서울신포니에타, TIMP 오케스트라, 중국 상하이 오케스트라, 모로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네덜란드 라디오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다. 홍민수는 현재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최고연주자과정에 다니고 있다.

이번 무대의 마지막 곡은 드보르작이 사랑했던 보헤미아의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된 '교향곡 제8번'. 그가 작곡한 9개의 교향곡 중에서도 드보르작의 민족적, 정서적 배경이 전면에서 드러난 작품으로 '교향곡 제9번'과 더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일시 3월 6일 금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Preview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NT-Live 패키지 할인

- 2편 동시 예매
-40,000원> 32,000원(20% 할인)
- 패키지 티켓 문의 및 예매
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센터(051-607-6000)

헤다 가블러(상영시간 180분)

2.15^토 2:00, 6: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출 | 이보 반 호프(Ivo van Hove)
원작 | 헨릭 입센(Henrik Ibsen)
출연 | 루스 윌슨(Ruth Wilson), 라프 스폴(Rafe Spall) 외
제작 | 내셔널 시어터
관람연령 | 15세 이상(중학생)

연계 강좌

일시 | 2020.2.4(화) 19:00 ~ 21:00
장소 |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강의실1
강사 | 김미혜(한양대 명예교수 / 한국 유일의 입센 전문가)
수강료 | 5,000원(NT Live <헤다 가블러> 예매자 무료,
당일 현장확인)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영국 최고의 공연을 실제처럼 관람할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NT-Live가 2020년에도 계속된다. NT-Live는 영국국립극장(National Theatre)이 영미 연극계 화제작을 라이브로 촬영해 다른 지역의 상영관에서 생중계, 혹은 녹화로 상영하는 프로그램! 세계적인 배우들이 출연하는 연극 공연을 이해하기 쉬운 자막과 함께 VIP석 같은 시야를 확보하며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 65개국 이상에서 많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2월에 상영되는 작품은 헨릭 입센의 <헤다 가블러>와 톰 스토포드의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부산문화회관에서는 예비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작품의 전공 교수들이 진행하는 사전 연계 강좌를 마련한다. 이 강좌를 맡은 전공 교수들로부터 원작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자. NT-Live도 아는 만큼 보일테니까 말이다.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상영시간 180분)

2.29^토 2:00, 6: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연출 | 데이비드 르보(David Leveaux)
원작 | 톰 스토포드(Tom Stoppard)
출연 | 다니엘 래드클리프(Daniel Radcliffe)
조슈아 맥과이어(Joshua McGuire) 외
제작 | 내셔널 시어터, 올드 빅 시어터(Old Vic Theatre)
관람연령 | 12세 이상

연계 강좌

일시 | 2020.2.18(화) 19:00 ~ 21:00
장소 | 부산문화회관 아카데미 강의실1
강사 | 권혜경(동서대 영어학과 교수 / 톰 스토포드 전공)
수강료 | 5,000원(NT Live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예매자 무료, 당일 현장확인)



여성이 아닌 ‘한 개인’ 헤다 가블러

김미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1891년 1월 31일 <헤다 가블러>의 세계초연에서 관객들은 어둡고 이해 불가능하다고 반응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닌 캐릭터였다. 가블러 장군의 딸로 다시 상류사회의 마돈나가 되기 위해 문화사가인 테스만과 결혼을 했고 6개월간의 신혼여행을 끝내고 돌아와 이틀 만에 권총으로 자살하는 헤다. 헤다는 세상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지루함만을 느끼는 것이며, 여성이라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을 모성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성성을 거부하며,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사랑이란 단어를 “근적끈적”하다고 거부한다. 또한 아버지가 남긴 권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에 매우 용감한 듯하지만 스캔들을 두려워하고 겁이 많다. 무엇보다도 타인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조종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입센은 작가로서 ‘개인의 해방’을 최고 가치로 생각했다. 그런 입센에게 헤다는 여성이 아니라 ‘한 개인’이다. 그래서 헤다는 서양의 관례를 거부하며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는다. 그녀는 헤다 테스만이 아니라 여전히 헤다 가블러이다. 또한 그녀는 남편을 부를 때도 이름이 아니라 성으로 부른다.

입센의 <헤다 가블러>는 4막 구성에 극적 장소는 단 한 곳, 테스만 가(家)의 빌라이다. 헤다는 세 명의 남성들에 둘러싸여 있다. 결혼 전 진정으로 사랑했던 에일레르크 뵘보르그, 남편 워르겐 테스만,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각관계를 원하는 브라크 판사가 그들이다. 헤다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모든 남자들이 열망했던 자신과 결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테스만과 그 조카에 봉사하는 것을 삶의 최고 목표로 살고 있는 시 고모들이다. 헤다는 남자들이 자신의 집에서 ‘수탉’으로 군림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자들에 봉사하는 여자들의 종(從)의식도 경멸한다. 헤다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헤다 가블러>에서 무대는 대개 감옥으로 해석된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헤다는 극 내내 무대를 떠나지 않고 끝내는 자신의 관자놀이에 권총을 발사한다. 극의 마지막에 브라크 판사는 널브러진 헤다의 시체를 보며 말한다: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아!” 헤다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짓을 한 인물이다. 누구와도 소통하지 못하고 소통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헤다는 현대인의 면모를 이미 130년 전에 보인 인물이다. 바로 이러한 현대성 때문에 <헤다 가블러>는 130년 동안 세계무대에 오르고 있다.



‘햄릿’의 유쾌한 전복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

권혜경 동서대학교 영어학과교수

톰 스토포드(Tom Stoppard, 1937-)는 심도 있는 주제와 다양한 연극적 기법을 시도해 온 현존하는 영국 최고의 극작가이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으로 1946년 영국으로 건너온 그는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다 1967년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죽었다>로 영국 연극계에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부조리한 세계 속에서 떠도는 등장인물들의 지적인 언어유희와 의미의 상대성을 담은 이 작품으로 그는 토니상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스토포드는 <햄릿>이라는 정전 속에서 그다지 큰 존재감 없이 등장하는 두 인물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을 자신의 극 작품에 주인공으로 소환하였다. 작품의 제목 역시 <햄릿>의 마지막 장면, 여러 구의 시체가 둥구는 현장에 영국 대사가 나타나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이 죽었다”는 뒤늦은 보고를 하는 대목에서 따 온 것이다. 스토포드는 이유도 모른 채 덴마크의 궁전으로 소환되어 오거나, 또한 영국으로 가는 선상에서 갑자기 햄릿 대신 자신들이 처형을 당하는 이해 불가한 상황 속에 내던져진 두 인물이야말로 삶과 죽음, 희망과 절망이라는 모순된 요소로 점철된 부조리한 인간 상황을 잘 드러낸다고 보았다. 작품 곳곳에 <햄릿>의 대사들이 적절히 삽입되어 있어 셰익스피어 비극의 패러다임을 관객에게 상기시키는 한편 스토포드 극의 흐름은 방해하지 않고 있다.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은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에 등장하는 두 인물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에 자주 비교된다. 두 사람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찾아 고도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 불가해한 상황 역시 그들 자신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끊임없이 주고받는 대화와 슬랩스틱 같은 놀이일 뿐이다.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 역시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끝없이 문답 놀이를 하고 반복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다. 확률의 법칙을 벗어난 채 수십 차례 연속적으로 동전의 앞면만이 반복되는 상황 또한 그들이 처한, 피할 수 없는 반사실적 세계를 반영한다.

나아가 스토포드는 <햄릿>에서 극중극을 담당한 순회연극단과 배우들을 작품의 주된 연극적 요소로 활용한다. 스토포드 극에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은 <햄릿>에서처럼 ‘곤자고의 살인’이란 연극을 공연하는 한편,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의 운명을 나타내는 극중극을 하거나 그들에게 비극 배우의 역할을 암시함으로써 연극의 고유한 ‘연극성’(theatricality)을 부각시킨다. 이 작품이 연극 그 자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메타드라마로도 분석이 가능한 지점이다.

스토포드는 진지하고 사변적인 햄릿 대신 주변부 인물인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텐을 통해 <햄릿>의 세계를 유쾌하게 전복시킴으로써 고전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패러디를 성공적으로 완성하였다.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20년 공연일정

온가족이 함께 찾는 어린이전용극장으로 사랑받는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20년 뮤지컬 '8시에 만나요' 등 세 작품 상연



어린이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특화된 전용극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이 가족뮤지컬 '8시에 만나요'를 시작으로 올해도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지난 2017년 9월, 어린이 전용극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사랑채극장은 그동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관객과 만나왔다. 개관 기념작인 에듀테인먼트 '로보카 폴리-세 가지 안전 약속'을 시작으로 2018년 전래동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어린이 뮤지컬 '개구리네 한술밥'에 이어 지난해는 어린이 뮤지컬 '꼬비깨비의 신나는 여행', 창작가족뮤지컬 '아빠! 우리 같이 놀자!', 어린이 안전체험 뮤지컬 '도와줘요 안전맨' 등 다양한 작품을 상연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나들이 장소로 각광받아 왔다.

특히 사랑채극장은 지난해 9월, 가족극장으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가족 관객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객석을 리모델링하여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 사랑채극장은 기존 212석이었던 객석 수가 300여석으로 늘어났으며, 가족극장에 어울리는 컬러풀한 색깔의 벤치형 객석으로 교체됐다.

3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사랑채극장의 2020년 첫 작품으로 무대에 오르는 '8시에 만나요'는 2006년 독일 청소년 문학상 아동문학상, 2006년 독일 아동극 대본상을 수상한 올리히 훔의 동명의 동화를 어린이 뮤지컬로 제작한 작품으로, 구약성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를 소재로, 우정으로 뭉친 펭귄들의 대홍수 탈출기를 담고 있다.



가족뮤지컬

'8시에 만나요'

3월 3일(화)~4월 5일(일)
오전 11시
※ 월·수요일 공연없음

가족뮤지컬

'프랭키와 친구들'

6월 2일(화)~7월 26일(일)
오전 11시
※ 월·수요일 공연없음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

8월 27일(목)~10월 25일(일)
오전 11시
※ 월·수요일, 9월 30일~10월 2일
추석연휴 공연없음

입장료 | 전석 2만원(24개월 이상 입장가능, 전화예매에 한해 단체 10인 이상 65%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00, www.bscc.or.kr)

예매 | 인터파크(1544-1555, www.ticketpark.com)





눈하고 얼음뿐인 세상에 살고 있는 펭귄 세 마리는 매일 티격태격 싸우고, 놀리지만 둘도 셋도 없는 친구이다. 끝도 없이 비가 내리는 날, 수다스런 불평쟁이 비둘기가 대홍수에서 탈출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 티켓을 단 두 장만 전한다. 펭귄은 세 마리인데...,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떡하지? '8시에 만나는 대홍수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아의 방주에 타야 하는 펭귄 세 마리가 '한 쌍' 만이라는 조건을 어기며 친구를 몰래 태우고, 이를 들켜지 않기 위해 애쓰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단단한 우정을 확인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노아의 방주' 속 '8명의 가족'은 방주에 승선해야 하는 '8시까지'라는 시간적 제한으로 등장하고, '노아의 방주'에서 올리브 잎을 물고 와 대홍수가 끝났음을 알려주었던 비둘기는 동물들에게 노아의 전언을 전달하고, 모든 동물들을 총괄 관리하느라 끊임없이 잔소리를 해대며 고군분투하는 역할로 등장한다. 노아의 방주에 탄 각양각색의 동물들은 좁은 방주 안에 끼여 앉아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남의 자리까지 차지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규칙을 어기고 몰래 음식물을 들고 타거나 숨어서 카드놀이를 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며 사람들을 풍자한다.

6월 2일부터는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떠나는 모험 이야기 '프랭키와 친구들'이 무대에 오른다. '프랭키와 친구들'은 어린이들에게 바른 식습관과 친환경적인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순수 국산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아

름다운 동화 마을에서 살고 있는 꼬마곰 프랭키는 저녁 식탁에 나온 콩요리가 싫어 거리에서 파는 위생적이지 않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다. 프랭키는 왜 배가 아픈걸까? 프랭키와 도깨비 친구 쿠양, 뚜우, 풍은 그 원인의 범인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데...

건강한 식재료를 음식으로 만들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의미와 바른 식습관을 알게 하는 '프랭키와 친구들'은 요리와 마법 소재가 만나 재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 맛있는 식탁 이야기로 평소 편식을 심하게 하는 어린이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간다. 입이 좋아하는 음식만 좋아하는 우리 아이의 생각을 바꿔줄 식생활 개선 뮤지컬 '프랭키와 친구들'은 7월 26일까지 계속된다.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소재를 통해 웃음과 삶의 지혜를 전해줄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는 8월 27일부터 어린이 관객들과 만난다. 지독한 방귀로 시댁에서 쫓겨날 뻔 했으나 방귀로 왜적을 물리치게 되면서 가족의 사랑을 받게 된 방귀쟁이 며느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방귀쟁이 며느리'는 우리 옛이야기의 구수함과 정겨움에 현대적 감성을 가미한 색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옛 사람들의 사회적, 정서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따스한 인정이 넘치는 작품이다. 특히 기존의 이야기에 살을 덧붙여 상징적이면서도 빠른 극의 진행으로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의 즐거움을 안겨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KT&G 상상마당
20세기 거장 시리즈 일곱 번째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 앨런 플레처 in 부산展

2. 22^토 ~ 4. 26^일

부산시민회관 갤러리

관람시간 오전 10:00~오후 6:00

(금-토요일은 오후 7:00까지, 종료 1시간 전 입장마감)

관람료 일반 9천원, 아트전공(미술, 디자인, 패션, 사진 등)
대학생·대학원생, 일반 단체 4천5백원,
초·중·고생, 경로우대 4천원,
미취학아동 2천원(36개월 미만 유아, 장애인 무료)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30-5235

그래픽 디자인을 영국에 처음 선보인 디자인계의 신화, 앨런 플레처(Alan Fletcher, 1931~2006)의 국내 최초 회고전 '웰컴 투 마이 스튜디오!(Welcome to my studio!)'가 부산을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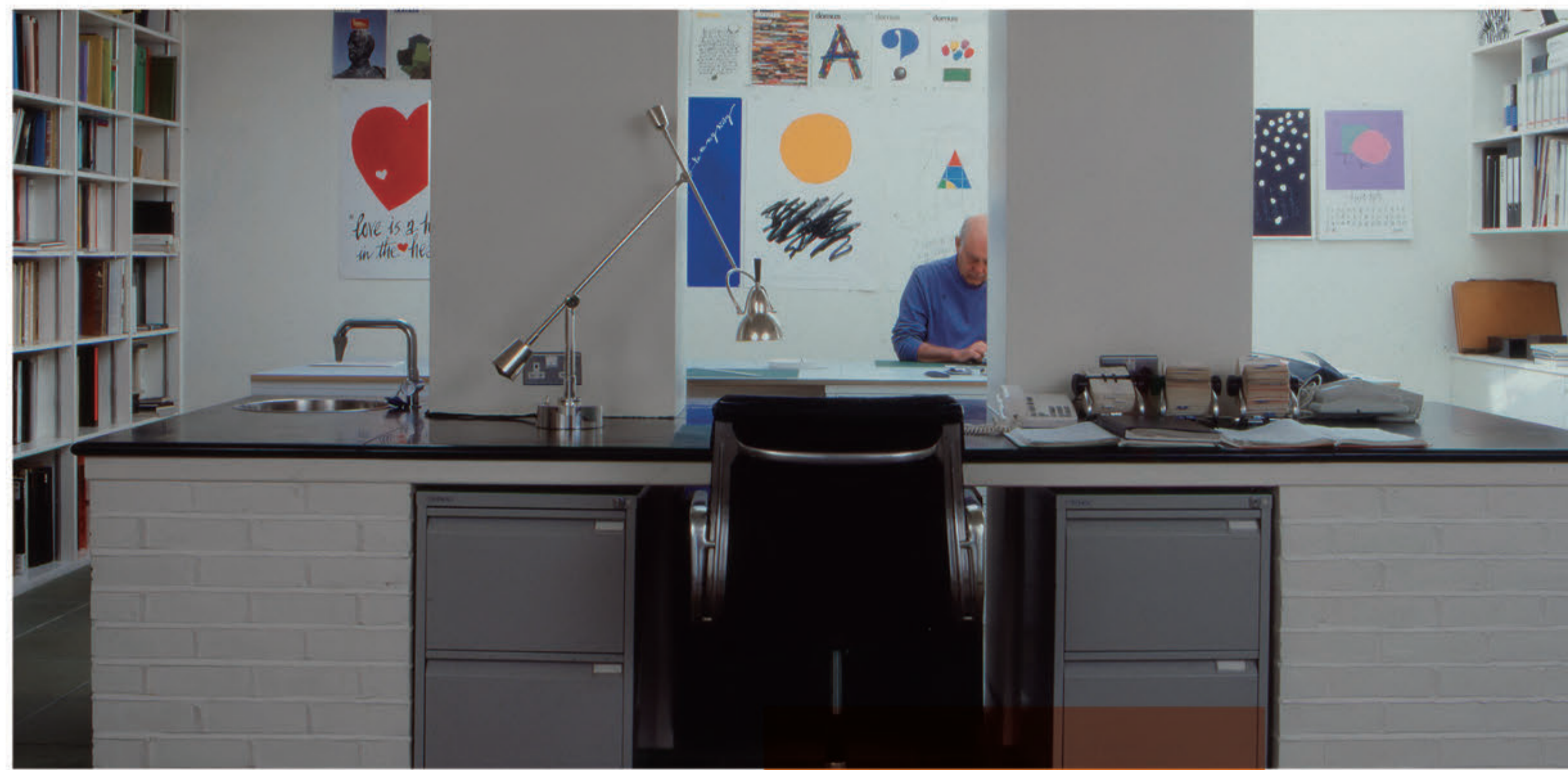
지난해 '스타일은 영원하다-노만 파킨슨' 사진전의 성공적인 전시에 힘입어 올해도 KT&G상상마당과 함께하는 이번 전시는 당대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앨런 플레처의 디자인 인생을 총망라하여 포춘 매거진(Fortune Magazine), IBM, 런던 로이즈(Lloyds of London),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A) 등과 작업한 무려 50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매 작품마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마치 그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한 듯한 느낌을 전하는 전시장 연출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 기간 중에는 특강 등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며, 학생들을 위한 '전시 활동지'를 무료로 배포한다.



삶을 바꾸고 규범이 되는 디자인

황석권 월간미술 편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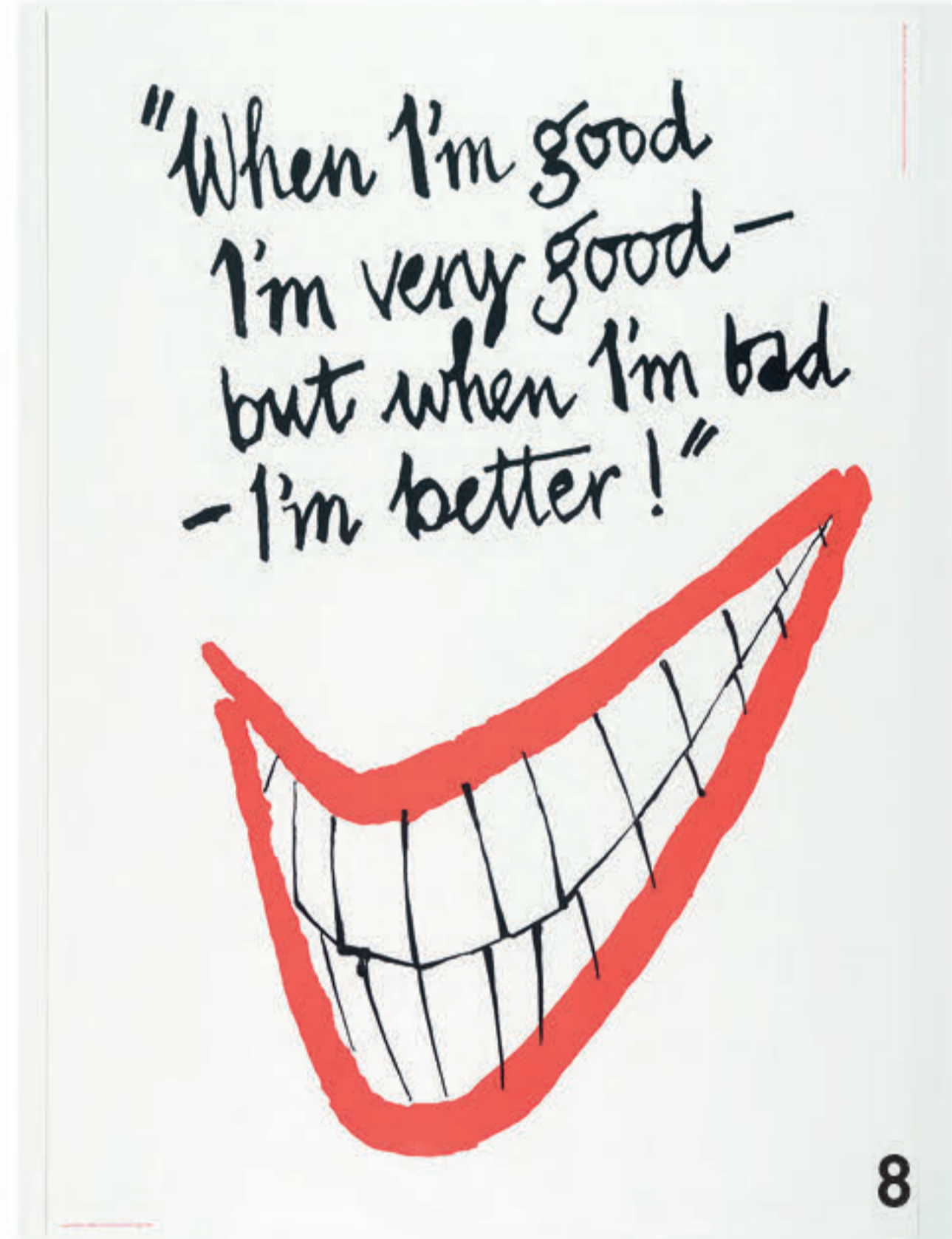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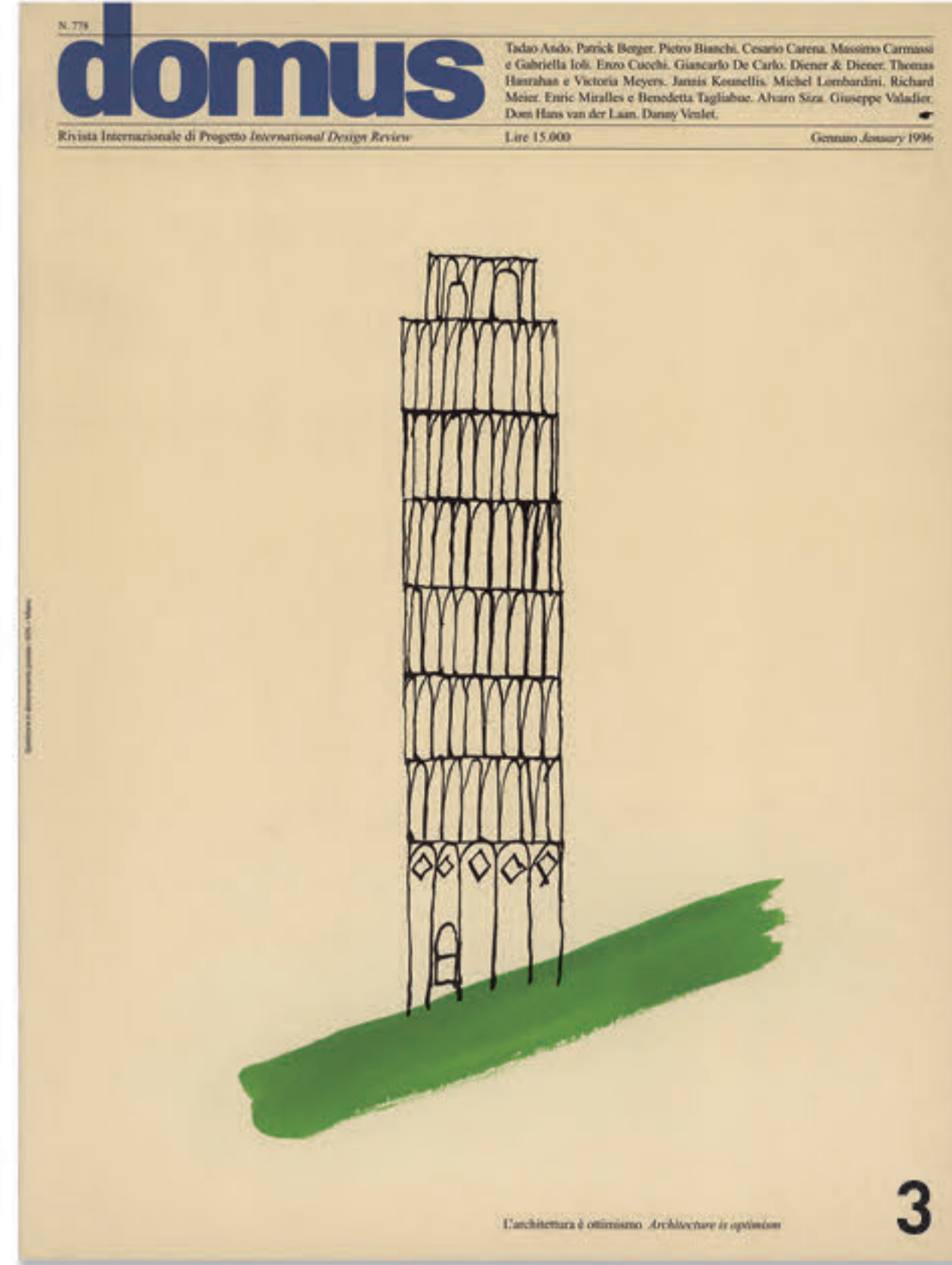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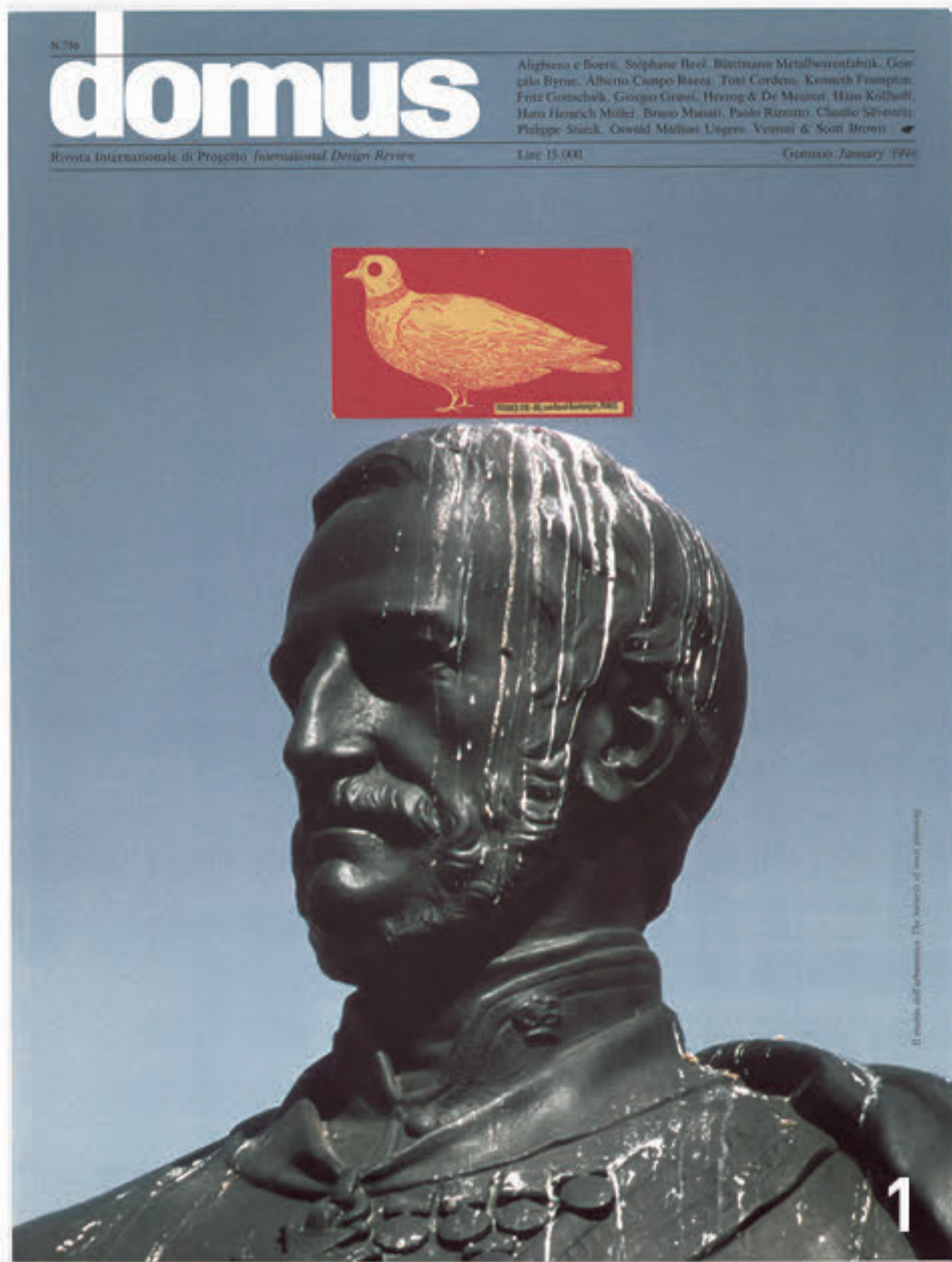


흔히 ‘디자인(*design*)’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단순히 기능과 형태, 만듦새 정도에 국한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래서 이른바 ‘잘된’ 디자인을 마치 편의점이나 마트의 계산대 앞에 놓인 작고 예쁜 물품을 충동 구매하듯 대하게 된다. 고도의 상술과 디자인이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이너의 삶도 나름 ‘멋짐’에만 울타리를 둔다. ‘다른 생각을 하는 창조자’로서 디자이너는 순수미술 작업을 하는 이들과 동급 취급을 받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디자인이라는 지시어 혹은 행위에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좀 더 생각을 좁혀보자. 디자이너가 펼치는 기발함은 철저히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극단의 상업성의 추구, 대중의 취향과의 접점 등이 교묘하게 결합해야 ‘성공’으로 인정받는다. 여러 갈래의 실타래를 한 묶음으로 모으듯 디자인은 철저히 ‘소통(*communication*)’에 기반해야 하고 그러한 소통은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입장을 전제해야 하는 고단한 일이다. 그 산고와도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세기의 디자인’은 상업적 성공을 거두면서 궁극적으로 타인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일이다. 위대한 디자인은 결국 시대의 규범이 되니까.

인류의 삶을 바꾼 위대한 디자이너가 있다. 1931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근무지인 케냐 나이로비에서 태어난 앨런 플레처(*Alan Fletcher*, 1931~2006). 해머스미스 예술대, 센트럴 예술공예학교, 영국 왕립예술학교, 그리고 예일대 등 다양한 미술학교를 다니며 디자이너로서 기본과 양식을 쌓아나간 앨런 플레처는 20세기 최고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평가받는다. 영국을 대표하는 뮤지엄 V&A (*Victoria and Albert*) 박물관의 로고와 세계적인 뉴스 공급사 로이터의 포인트 로고를 만든 바로 그다. 또한 예술전문 출판사 파이돈 (*Phaidon*)의 대표 예술서 <The Art Book>(1996)의 커버 디자인으로도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

앨런 플레처는 인쇄매체에 특화된 그래픽 디자인에 평생을 몸담았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대부분 종이 위에 찍힌 모든 것, 즉 레터링, 타이포그래픽, 로고, 사진, 일러스트 등을 망라한다. 광고를 비롯해 포장지, 로고가 삽입된 가방, 포스터, 카탈로그, 책 커버 등 그 자체로 물품을 대변하는 앨런 플레처의 작업은 일상성에서 비롯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의미를 어렵지 않게, 그리고 단순하게 하여 흘깃 보는 행위만으로도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일은 대상을 충분히 관찰하고 내부 이야기를 확실히 이해해야만 가능하므로 일상의 관찰이 일이 되어버리는 그래픽 디자이너는 고단함과 긴장을 놓칠 수 없다. 그렇다면 앨런 플레처는 일을 취미처럼 하지 않았을까? 수집이 취미였던 그는 자신이 방문한 곳에서 획득한 물품, 친구들과 나눈 편지와 우표 등에서 발견한 이미지를 작업에 고스란히 반영했다.



1. Cover design_N.756 January 1994_Domus Magazine_1994
3. Cover design_N.778 January 1996_Domus Magazine_1996
5. Cover design-Wallpaper magazine_Wallpaper magazine_2006
7. Stax(ashtray)_Design Objectives_1972

2. Cover design_N.776 November 1995_Domus Magazine_1995
4. Limited edition print_Beware Wet Paint_1996
6. Promotional poster_Designers Saturday Committee_1982
8. Mae West-When I'm good_Pentagram poster series_1988

“디자인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다(Design is not a thing you do. It's a way of life, <The Times> 부고란)”

앨런 플레처를 이야기할 때 그가 4명의 파트너와 세운 디자인 스튜디오 펜타그램(Pentagram)을 빼놓을 수 없다. 런던, 뉴욕을 비롯해 베를린과 오스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지점을 둔 펜타그램은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디자인 회사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업을 주요 클라이언트로 둔 펜타그램이다.

자, 이제 전시장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전시는 앨런 플레처의 활동에 따라 연대기 순으로 5개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섹션은 앨런 플레처의 뉴욕 시기 활동 섹션으로 앨런 플레처가 예일대(Yale School of Art and Design)를 다니며 폴 랜드(Paul Rand), 브래드버리 톰슨(Bradbury Thompson), 요제프 알베르스(Josef Albers)와 같은 당

대 최고의 디자이너들에게 배우며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기반을 다졌던 시기를 조명했다. 뉴욕의 유명한 잡지인 <타임 앤 라이프(Time and Life)>와 <포춘 매거진(Fortune Magazine)> 표지 디자인을 맡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던 그는 다른 잡지 홍보를 위한 책자도 의뢰받아 일했다.

두 번째 섹션은 앨런 플레처가 다른 디자이너와 협업하던 시기의 작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후 1960년대 초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컬러를 활용한 방식의 디자인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러한 중에 1962년 런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던 앨런을 찾아 뉴욕에서 날아온 밥 질(Bob Gill)을 콜린 포브스(Colin Forbes)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은 함께 각자의 이름을 딴 ‘플레처 | 포브스 | 질(Fletcher | Forbes | Gill)’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게 된다.

그래픽 디자인을 진일보시킨 시기로 자신들의 디자인 철학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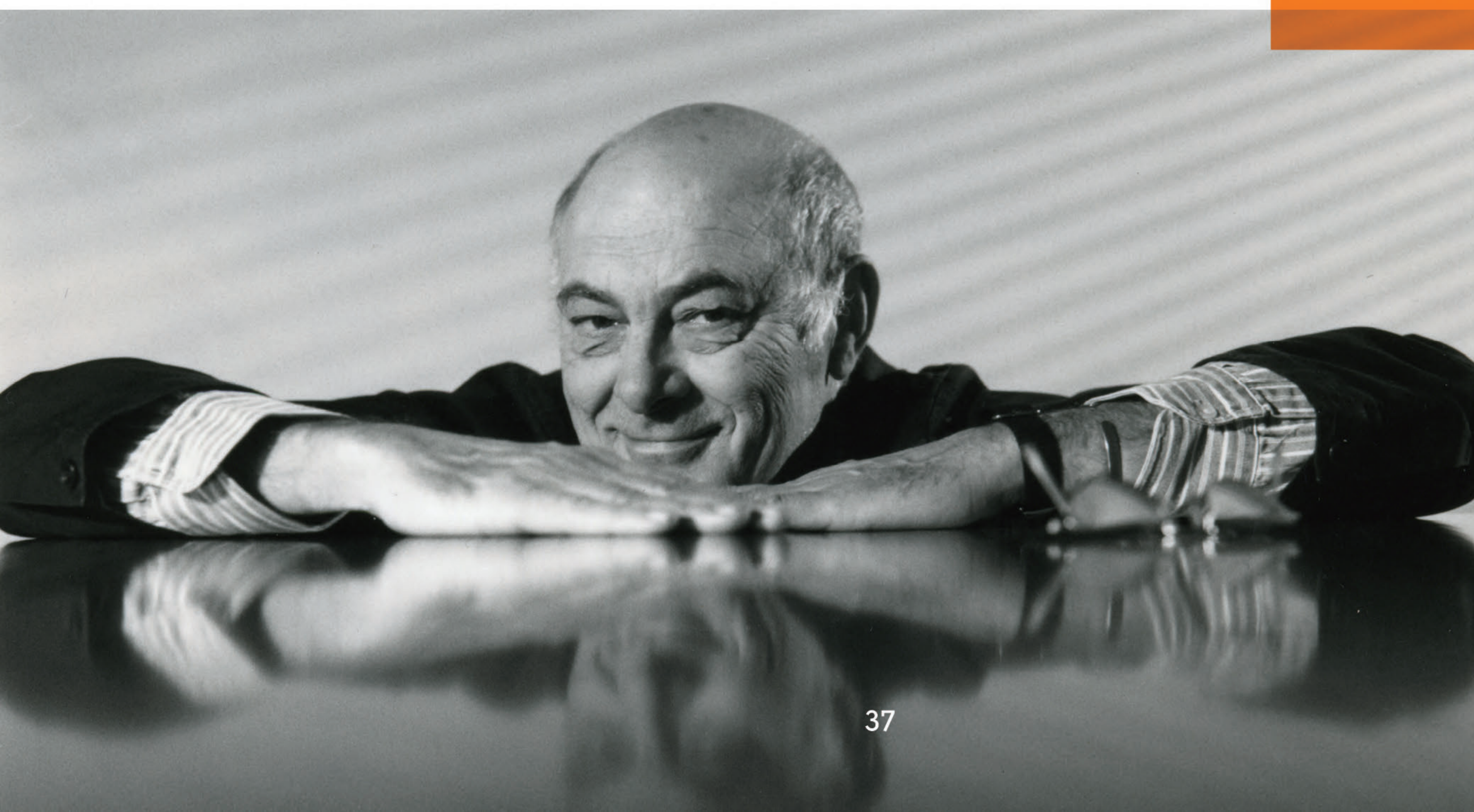
트폴리오북을 발간하여 알려나갔다. 이 시기에 가장 반향을 일으킨 작업은 유명 타이어 회사인 피렐리(Pirelli)의 광고를 이층버스 외벽에 펼친 디자인이다. 창문 아래 다리를 그려 넣어 승객과 절묘하게 매치되는 위트 넘치는 작업으로 이 디자인은 다른 버스 외벽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되는 바다.

세 번째 섹션은 '플레처 | 포브스 | 질' 스튜디오의 주력 사업인 인쇄물을 위한 디자인 시기를 넘어 공간 디자인까지 영역을 확장한 작업들을 보여준다. 그래픽 디자인에 더 머무르기를 원했던 밥 질이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고 새로 건축 디자이너 테오 크로스비(Theo Crosby)가 합류해 '크로스비 | 플레처 | 포브스'가 출범했다. 셸(Shell), 아서 앤더슨(Arthur Andersen) 등과 같은 유수의 기업을 클라이언트로 두며 이들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기 위해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한 작업을 선보였다. 말 그대로 'CI(Corporate Identity)'를 구축하고 일관되고 통일성을 갖춘 기업 이미지를 구현한 것이다.

네 번째 섹션은 현재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펜타그램(Pentagram)'을 창설, 운영한 시기를 보여준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을 구가하던 시기로 기업의 형식으로 디자인계를 석권했다. 케네스 그랜지(Kenneth Grange)와 멀빈 컬란스키(Mervyn Kurlansky)가 합류한 펜타그램은 앞서 언급했듯 수평적 경영체제와 프로젝트 운용을 바탕으로 IBM, 런던 로이즈(Lloyds of London), 쿠웨이트 상업은행(CommercialBank of Kuwait),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V&A), 그리고 산타바바라 미술관(Santa Barbara Museum of Art)과 같은 굴지의 클라이언트를 두고 주요 기업 및 기관들의 로고와 상징물, 사이니지(signage, 도로나 길의 표지판) 등을 디자인했다.

전시는 마지막으로 대형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온실을 벗어난 앨런 플레처의 독립스튜디오 운영 시기를 보여준다. 런던 노팅 힐 게이트(Notting Hill Gate)의 자택에 개인 스튜디오를 연 그는 파이돈 프레스(Phaidon Press), <도무스(Domus Magazine)> 같은 예술 혹은 건축, 디자인 잡지의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500여 점의 앨런 플레처 작업이 선보인 이번 전시는 규모 면에서 그의 디자이너로서의 족적을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그는 타인의 삶을 억지로 이끄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너무나 인간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디자이너였다. 수많은 앨런 플레처의 작업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재성뿐만 아니라 <Wild Flowers Poster>(2002)와 같은 따뜻한 인간미였다.



지역적 리얼리티와 디테일을 담은 차세대 예술의 도래를 예감하다

2019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 춤 비평가 이상헌

● 잇을 만하면 나오는 불편한 말이 있다. '부산은 문화 불모지'라는 표현이다. 문화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부산 예술계 이야기다. 이 표현에는 부산 예술 생태계에 대한 불편한 심정이 들어 있다. 그러니 예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술인으로서는 당연히 듣기 좋을 수가 없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에 문화 불모지는 없다. 기형적으로 문화 과잉 상태인 서울과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 나뉠 뿐이다. 비정상적인 문화 과잉을 비판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문화 불모지라는 자조적 표현은 삼가야 한다. 부산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문화·예술이 분명히 있다. 부산의 리얼리티와 디테일이 살아있는 문화·예술이 있다는 뜻이다. 그것만으로도 족하고 모자라면 넘나들면 된다.

부산의 차세대 예술(가)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자는 의도로 기획한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이하 '페스티벌')은 작명부터 신중했다. '청년'과 '신진'을 두고 고민했는데, '신진'이 '청년'을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선택됐다. '신진예술가'가 아니라 '신진예술'로 정한 것은 공연예술이 개인의 아이디어로 시작하지만 여럿이 함께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가'가 아닌 '예술'을 선택했고,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이름이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나흘간 진행된 페스티벌에는 연극, 춤, 다원 부문 8개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다원 부문에 마술, 서커스 등 공연장에서 잘 만날 수 없었던 분야가 포함된 것은 신선하다. 다원 세 작품, 연극 세 작품 그리고 무용 두 작품이 선정됐으며, 무용은 이팝무용단의 '똥 : 방 안의 꼬끼리'(안무 박연정)와 한국 춤 프로젝트 가마의 '진실의 변주'(안무 한지은)이다.

페스티벌 개막날 포럼과 네트워크파티가 열렸고, 매 공연이 끝나면 관객과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개막작으로 두 작품이 선보였는데, 사랑채극장에서 '조선 최초의 서커스 부남사당'(이하 '부남사당')이, 대극장에는 미디어·일루전 융합각색극 '모던 파우스트'가 올랐다. '부남사당'은 예매에서 전석 매진이 됐고 유료객석 점유율이 91%나 될 만큼 인기가 있었다.



작품의실의진가마의춤프로젝트비평가이상헌

Review

겨울이 아니었다면 이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야외에서 공연해도 좋았을 듯하다. '모던 파우스트'는 마술을 중심으로 영상이 결합한 융합극이다. 마술이 극적 구성을 하고 무대화를 시도한 점은 좋았다. 문제는 극 구성이 대극장에서 60분을 끌고 갈 만큼 탄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작품의 포인트라고 할 영상이 만들어 내는 일루전(환영)도 새롭지 않았고 출연자와 호흡이 맞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전개 속도가 처지고 주제 전달이 선명하지 못했다. 관람 연령이 만 4세 이상이라 가족 관람객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다음날 공연한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운악'은 2013년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으로 이미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연출과 출연진 대부분이 교체됐다고는 하지만 새로움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작품은 공연의 질을 떠나 평가가 이미 끝난 작품을 부산의 차세대 예술로 볼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했다. 극단 오오씨어터의 가족 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는 기대하지 않은 데서 발견한 의외의 수작이었다. 일반적으로 가족 뮤지컬은 작품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전문가의 기대가 낮은 편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이 열리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관객 만족도와 전문가 평가 모두 최상을 받았다. 살펴보니 주연 배우 이혁우는 2013년 동녘이 '운악'으로 전국무용제 대통령상을 받았을 때 우수연기상을 받은 배우이고 다른 배우와 제작진의 면면이 소규모 극단이 밥벌이용으로 만드는 가족 뮤지컬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 작품은 올해 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으로 초청되었다.

페스티벌 마지막 이틀은 네 작품이 공연됐다. 배우창고의 '한여름 밤의 꿈'은 전문가 평가보다 시민평가단의 호응을 많이 받았고, 하이클래식 아트컴퍼니의 '오페라 살인 리콜레토'는 전문가, 시민 평가단 모두에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팝무용단의 '똥 : 방 안의 꼬끼리(이하 '똥')'는 30명이 넘는 출연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빠른 전개와 애니메이션, 국악, 스트리트 댄스, 대규모 무대 세트로 꽉 채운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엄청난 물량 공세로 관객과 전문가의 찬사를 받았다. 한국 춤 프로젝트 가마의 '진실의 변주'는 한국 춤의 정서를 오롯이 살려 춤 맛으로 밀고 나가는 뚝심을 느끼게 했다. '똥'과 '진실의 변주'는 대조적인 작품 스타일을

보여 주면서 그야말로 부산 무용 차세대의 희망을 보여 주었다.

첫걸음을 디딘 페스티벌은 많은 의미와 과제를 남겼다. 먼저, 예술인들이 지원금 정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제작비 형식으로 지원한 점은 큰 호응을 얻었다. 여기에 무료 대관과 기획, 홍보 지원까지 더했으니 어느 경우보다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된 것이다. 기계적 장르 안배에 신경 쓰지 않았던 점도 의미 있었다. 덕분에 마술, 서커스 등이 부산문화회관 무대에 설 수 있어서 관객의 선택 폭이 넓어졌고, 예술을 향유할 기회가 다양해졌다. 공연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문화재단 지원금 외에 또 다른 지원 창구가 생긴 것이고, 신진예술 발굴이 목적이라 기성 예술인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었다.

무엇보다 큰 의미는 '시도' 그 자체다. 앞장서서 시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시작이 있기에 기대가 생기고 비판도 나온다. 그렇게 되면 부산 공연계가 들쭉거리게 된다. 운영위원과 부산문화회관 관계자들의 회의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개최 시기, 명칭, 확장성 여부, 페스티벌 성격 규정 등 모든 의견은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견들은 잘 갈무리해야 하고, 페스티벌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더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첫걸음에서 부산의 지역적 리얼리티와 디테일이 살아있는 차세대 예술의 도래를 예감했기 때문이다.

이팝무용단 '똥 : 방 안의 꼬끼리'



부산 시민들에게 선사한 작은 새해 선물

(재)부산문화회관
2020 신년음악회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 경성대학교 음악학부 교수 **김원명**

● 클래식 애호가라면 누구나 평생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러나 웬만해서는 엄두내기조차 힘든 꿈의 음악회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빈 필하모닉 신년음악회’가 아닐까? 평자 역시 언젠가 꼭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올려두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빈 필이 새해 벽두에 제 발로(?) 부산을 찾아 시민들에게 ‘작은’ 신년음악회를 선사해 주고 갔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자체 기획으로 지난 1월 10일 저녁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마련한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 음악회가 그것.

평자가 ‘작은’ 신년음악회라 표현한 이유는, 온전한 규모의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13명의 빈 필 멤버들이 만드는 앙상블 음악회였기 때문. 허나 이 앙상블은 그 수나 악기 구성에 있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실내악 편성이 아니다. 실내악을 위한 실내악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음향을 구현해 내기 위해 작지만 효율적으로 편성된, 차라리 미니 오케스트라라 부르는 게 나을성싶은, 바이올린(2),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등 현악기 5개와 플루트,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등 목관악기 4개, 그리고 트럼펫, 호른(2), 타악기 편성이다. 트롬본과 튜바를 제외한 사실상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들어가 있다. 더 작아질 수 없는, 최대한 효율적인 구성이다.

이런 미니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그러나 결코 미니가 아니다. 명불허전! 바로 그것이다. 세계 최고 오케스트라 단원들



답게 개개인의 기량은 말할 것도 없고, 지휘자 없이 연주하는데도 완벽에 가까운 호흡과 예술적 완성도를 이끌어낸다.

눈을 감고 들으면 실제로 빈 필 신년음악회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 아무렴 이들이 빈의 직계 선배 음악가들이 만든 음악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또 얼마나 자주 연주했을까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 날 연주곡들은 예년의 신년음악회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올해 초에 열린 빈 필 신년음악회 레퍼토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 앙코르로 연주한 곡을 제외하면 전반부에 7곡, 후반부에 8곡 등 모두 15곡이 무대에 올랐는데, 오페레타 '박쥐' 서곡, 왈츠 '봄의 소리', '예술가의 생애', 폴카 '천둥과 번개', '트리치트라치' 등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곡들이 대부분이고, 그 사이사이에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폴카 '불타는 사랑', 프란츠 레하르의 왈츠 '금과 은', L. 들리브의 '피치카토 폴카', 그리고 특이하게도 J.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번'이 들어가 있어 눈에 띈다. 중후하기 이를 데 없는 브람스의 작품들 중 그나마 신년음악회 분위기에 어울릴 수 있는 곡은 '헝가리 무곡'이 유일하지 않을까. 다소 생뚱맞긴 해도 브람스 역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와 동시대에(브람스가 8세 연하) 빈에서 활동한 대 선배 음악가 아니던가.

왈츠의 본고장 사람들이 들려주는 온전한 왈츠! 마치 '왈츠는 이런 것이야'라고 음악으로 말해주는 듯 자연스럽게 그지없는 이들의 호연에 만석의 관객들은 큰 호응으로 화답했다. 예정된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객석에 앉아 박수로만 감동을 표하던 관객들은 앙코르 곡이 연주되자 일부가 기립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거의 모든 관객들의 환호와 기립박수로 이어졌다. 보기 드문 장면이다.

첫 앙코르 곡은 왈츠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너무나 유명한 이 곡이 공식 연주곡목에 들어있지 않아 앙코르로 준비했으리라 짐작했던 터다. 다만 신년음악회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없이 맛있게 끝나가 싶

었는데, 마침내 한국인의 심금을 울릴 회심의 한 곡이 두 번째 앙코르 곡으로 울려 퍼진다. 역시 '아리랑'이다. 예상대로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는데, 어쩌면 이 방법은 한국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이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들이 아리랑을 원형대로만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날의 분위기에 맞추어 왈츠 리듬 혹은 폴카 리듬으로 편곡해서 멋지게 선보였더라면 더 짜릿한 이벤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는 비단 평자만의 것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13명으로 구성된 앙상블 편성은 최소 인원으로 오케스트라 음향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최적의 악기 편성이지만, 나름 아쉬움도 없지 않다. 특히 현악기와 관악기의 음량 밸런스가 맞지 않아 느껴지는 답답함은 현악기 연주자들의 탁월한 기량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귀를 파고든다. 이를테면 목관악기 1대와 맞먹는 체감 음량을 내기 위해 현악기는 훨씬 많은 수가 필요한데 그것을 각각 한 대의 현악기가 감당하려니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모든 앙상블 멤버들이 열일 하지만, 특히 눈에 띄는 건 타악기 연주자 클라우스 차우너. 팀파니와 스네어드럼 등 여럿이 나누어 연주할 타악기들을 혼자 쉴 새 없이 감당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분은 다른 연주자들보다 개런티를 좀 더 받았으면 싶다.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은 바이올리니스트 슈켈첸 돌리가 2013년 창단하였고, 최근 관악기 섹션을 추가하여 13명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지난 2017년 첫 내한 공연을 가졌으며, 작년 내한공연에는 5회 연속 전석 매진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산의 대표 공연장 신년음악회가 머나먼 곳에서 온 이방인들의 연주로 채워져야 하는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이긴 하다.

공연장 전체를 꽃 장식으로 뒤덮진 못했지만, 부산문화회관의 2020 신년음악회는 분명 부산 시민들에게 나눠준 작은 새해 선물이었다.

Review

서둘러도 괜찮아! 서둘라고 말해도 돼~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展

◆ 미술비평가 장원

● “맛을 그려 보아라!” 이는 오래 전에 인기를 끌며 사극의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드라마 ‘대장금’에서 한상궁이 장금이를 훈육시키기 위해 과제를 내주며 했던 말이다. 이 대사는 장금이뿐만 아니라 수련을 받겠다고 자청했던 수라간나인들 역시 당황시켰는데, 시청자들도 대부분 마음속으로 ‘맛을 어떻게 그리지?’ 라고 되뇌었을지 모른다. 이 드라마에서는 서로 어울릴만한 음식의 재료들을 상상 속에서 짚어보라는 의미로 앞의 대사처럼 표현했었는데, 지금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알머슨(Eva Armisen, 1969-)의 전시인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을까?

스페인 출신의 화가 에바 알머슨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런데 이 화가는 그 어느 곳보다 한국에서 특히 많은 대중적 사랑을 받으며, 전시회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과의 콜라보를 통해 더욱 친숙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알머슨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도 왜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지 의아하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은 현대미술의 가장 앞선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기법을 구사하는 것도 아니며, 비싼 재료를 사용하거나 거창한 주제들을 과시하지도 않는다. 그녀의 작품들은 주로 자신을 그린 자화상이나 다른 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인물화들이 많으며, 그 인물들은 우리가 흔히 동경하는 연예인들처럼 미모 때문에 눈길이 가진 않는다. 그럼에도 에바 알머슨의 작품 속 인물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요즘에는 한 두 명의 주연보다는 개성 넘치는 조연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각광받고 있다. 그 이유를 짐작컨대 과거에는 선망의 대상으로서 동경의 눈길로 바라봤던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 비해, 근래에는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비슷한 이



야기 혹은 곧 나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는 역할, 대사, 옷차림, 몸짓 등이 더욱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모습보다는 무언가 서투르고 어딘가 어색한 부분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이다. 에바 알머슨의 작품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까?

부산의 한 병원에 근무하면서 여러 방송의 상담 프로그램들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최근에 출간한 <서툴다고 말해도 돼>(권명환 지음, 호밀밭, 2019. 12)라는 책이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이 책은 매일 70명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일상의 다양한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평범한 이들과 대화하며 돌아본 내용들을 에세이로 풀어 쓴 것으로, 저자는 “숨을 헐떡이며 정신없이 달리는데도 갈수록 공허해져만 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서툴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항상 무엇에 쫓기듯 완벽함과 자신감으로 무장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강박적 사회 안에서 ‘서투름’이란 제거하거나 감추어야 하는 요소일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현실 안에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놓쳐왔던 일상의 단순한 행복을 에바 알머슨의 작품들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작가 스스로가 한국에서의 인기 비결이 정말 궁금하다고 말하면서도, 한국 관객들이 무언가 특별한 방식으로 어떤 감동을 받는 것 같다고 밝힌 연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결코 기교로 멋부리지 않은 소박한, 심지어는 어린 아이가 그린 것처럼 서툴러 보이는 그녀의 단순명쾌한 그림 속 인물들의 미소 안에서 우리는 한숨을 돌리고 스스로에 대한 여유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려운 글과 설명 혹은 미술작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듯이, 쉽고 친숙한 글과 설명 혹은 미술작품이 반드시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알머슨의 ‘서툴러’ 보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미소와 일상의 소소한 행복한 모습들은 관객들로부터 정서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렇기에 알머슨의 작품들에 대한 호응과 공감은, 출간된 지 한 달여 만에 독자 평점 9.7이라는 호응이나 공감을 얻어낸 서적과 유사한 맥락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 모두는 최근의 어느 드라마 대사처럼 일

상의 ‘ordinary(평범한)’로부터 ‘extraordinary(놀랍고 대단한)’ 것들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에바 알머슨의 그림들은 유년기적 상상들을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공감을 더해준다. 자화상으로 그려진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다의 물결 모양이나 그녀가 생각하는 마을의 모습을 그린 듯 집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작가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동경하는 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각종 동물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화상은, 작가의 말에 따르면, 미소를 지으며 행복감에 젖어 있는 모습과는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고 한다. 가령 곰은 자녀를 지켜내려는 엄마의 강인한 모습이라거나, 다른 동물들은 자신의 실제 모습과 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면처럼 스스로를 위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 자신의 설명에도 우리는 그녀의 동물 그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최근의 호주 산불을 떠올리며 행복한 그림 저편에 있는 비극과 안타까움 또한 곱씹어 보게 된다. 사람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동물들까지도 함께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만큼 알머슨이 전해주는 일상의 행복과 감동은 우리를 비롯하여 우리의 주변까지도 돌아보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행복을 그려내는 그녀의 창조적 능력일 것이다. 알머슨 작가는 그림에서 무엇보다도 색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정서를 직접적이면서도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단순하고 서툴러 보이는 형태 위에 밝고 생기 있는 색들을 펼침으로써 행복의 감정을 극대화시킨다.

과거에 에바 알머슨의 한 전시회에서는 “지친 당신에게, 화사한 행복 한 다발 안겨드릴게요”라는 문구로 관람객들을 초대하는 적이 있었다. 새 봄에는 그동안 너무나도 평범해서 눈여겨보지 않으며 잊고 있었던 행복,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과 나 자신의 모습으로 꾸며서 에바 알머슨이 차려준 8가지 행복의 만찬 코스를 부산문화회관에서 음미해보며, 새로운 일상의 기운을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선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해보자. “서툴러도 괜찮아! 서툴다고 말해도 돼~”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신년음악회
2020 경자년 신년다례연

일 시 | 2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0, 3124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다도(茶道)와 함께 펼쳐지는 '신년다례연(新年茶禮宴)'.

김정수 예술감독의 지휘, TBN 교통방송 손지현 아나운서의 사회, 국가무형문화재 제36호 가곡 이수자 이아미, (사)한국차인

연합회(부산지원장 최순애), 춤과 사랑(대표 김갑용)의 협연으로 이준호 곡 '밝누리', 신영사회상, 황익종 곡 '아침 햇살이 꽃 피어날 때'를 행다 시연과 함께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인 다례(茶禮)와 융합하여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종합무대로, 깊고 은은한 다향(茶香)과 어우러지는 품격높은 무대를 만날 수 있다.

- 지휘/김정수(예술감독)

앙상블 We 행복음악회
with 무지카비바 앙상블

일 시 | 2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앙상블 We 010-3706-7642



발달장애인 음악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에서 당당하게 인정받고 더 나아가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결성된 앙상블 We가 마련하는 행복음악회.

바이올리니스트 박성진, 오인제, 비올리스트 박수완, 첼리스트 진시원, 플루티스트 이시현으로 구성된 앙상블 We는 무지카비바 앙상블 예술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비롯한 연주자들의 헌신적인 지도하에 매주 연습을 통해 음악적 기량을 쌓아오고 있다.

무지카비바 앙상블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비발디, 호프마이스터, 파헬렐, 바흐 외에도 디즈니 메들리, 맘미아 메들리 등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해설/전명희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0 김필 콘서트 COLOURS

일 시 | 2월 8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 3층석에 한해 10% 할인)
문 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진심으로 노래하는 감성 보컬리스트 김필이 전하는 따뜻한 위로, 2020 김필 콘서트 'Colours'.

2020년 새해 첫 공연으로 부산을 찾는 김필은 이번 무대에서 매력적인 보컬과 강렬한 밴드 사운드의 완벽한 음악, 그리고

컬러풀한 매력으로 부산관객들과 만난다.

특히 데뷔 8년만의 첫 정규앨범인 'Your, Sincerely'의 발매와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야기와 음악으로 무대를 채우는 한편, '변명', '블랙(Black)' 등 정규앨범의 신곡들과 JTBC 예능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 3'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여진의 '그리움만 쌓이네' 등 독보적 감성을 유감 없이 선보일 예정이다.

창단 20주년 기념
제20회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 010-6222-7617



지난 2000년 기장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지역민들을 위한 클래식 문화의 저변 확대에 힘써온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의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기장청소년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차성문화제, 한여름밤의 음악회, 기장군민을 위한 별빛음악회, 정관 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등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가해오고 있으며 요양원, 노인복지회관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찾아가 음악을 통한 따뜻한 이웃사랑을 펼치고 있다.

- 단장/김기원
- 지휘/홍성택
- 소프라노/김아름
- 바이올린/박찬미

김대환&김도연
바이올린&비올라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2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대환과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있는 비올리니스트 김도연이 함께하는 듀오 리사이틀.

듀오 연주를 통해 개개인의 역량과 재능은 물론 두 사람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줄 이번 무대는 특히 경쟁이 아닌 서로 간의 음악적 소통과 존중, 이해를 통해 완벽한 하모니를 들려주면서 관객과의 경계를 허물고 클래식의 순수함을 상기시켜줄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작곡가이자 피아노 제작자인 플레엘의 곡을 시작으로 모차르트, 브라질 작곡가 빌라 로보스, 힐보르센의 파사칼리아까지 다양한 곡이 연주된다.

가온누리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9일 일요일 오후 3: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가온누리청소년오케스트라 010-2486-0772



음악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을 발굴, 육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창단된 가온누리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5년 창단한 후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가온누리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재능기부 연주를 통한 지역봉사를 통해 장애인, 환우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음악사랑도 함께 펼쳐오고 있다.

- 가야금/이문희
- 고수/구환석
- 바리톤/김창돈

제5회 사랑나눔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사랑나눔합창단 755-5311



음악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나눔합창단의 다섯 번째 정기연주회. 그동안 사랑나눔음악회를 통해 소외된 이웃과 함께해온 사랑나눔합창단은 이번 무대에서 지휘자 임재우가 지휘하고 아젠투스 챔버 오케스트라,

사랑나눔 어린이합창단의 협연으로 노르웨이 출신의 작곡가 올라 예일로의 합창과 현악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미사 '해돋이 미사(Sunrise Mass)'와 한국창작합창곡,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창작합창곡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특히 다채로운 화성과 음색으로 이루어진 '해돋이 미사'는 태고의 우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도시, 그리고 마침내 우리 내면의 자아에 도달하는 소리의 여정을 마치 한 편의 파노라마와 같은 시각적 묘사로 표현한 작품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모음악회

일 시 | 2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피아니스트 故 한명희 교수의 제자들이 1주기를 맞아 마련한 추모음악회. 이화여자대학교 음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학원을 마친 후 1982년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30년을 재직하신 한명희 교수는

부산피아노듀오협회 회장, 부산대학교 음악연구소 초대 소장을 맡아 부산 음악계를 주도하며 지역의 음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박종화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동의대학교 김소형 교수, 부산대학교 김정권 교수, 동아대학교 최지은 교수, 피아니스트 김일주, 곽소정, 박시현이 출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모음악회를 펼친다.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만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일 시 | 2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16



슈베르트의 대표적인 연가곡 '겨울 나그네' 전곡을 합창으로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낭만주의 가곡 장르를 대표하는 슈베르트의 명곡 '겨울 나그네'는 사랑에 실패한 청년이 살 희망을 잃은 채 눈보라 치는 들판을 방황하는 모습을 그린 연가곡으로, 총 24개의 가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전진이 지휘하고 바리톤 이광근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바리톤 솔로와 합창이 함께하는, 그레고르 메이어가 편곡한 '겨울 나그네'를 부산 초연무대로 선보인다.
• 지휘/전진(부지휘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일 시 | 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뛰어난 재능과 리더십을 겸비한 프랑스 출신의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송의 객원지휘로 열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9회 정기연주회.

아드리앙 페뤼송은 지난 2014년,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지휘자로서의 화려한 데뷔 무대를 가진 후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 프로그램**
베토벤/피델리오' 서곡
드뷔시/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국내 초연)
드뷔시/목신의 오후' 전주곡
드뷔시/바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0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스윗 발렌타인데이'

일 시 | 2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감성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스윗 발렌타인데이'. 일본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 한국에서 뉴에이지 열풍을 주도했던 유키 구라모토는

지난 1999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첫 내한공연이 매진을 기록한 이후,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에 관한 섬세하고 따스한 시선을 담은 그의 대표곡들을 피아노 솔로와 콰르텟(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과의 앙상블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NT-Live '헤다 가블러'

일 시 |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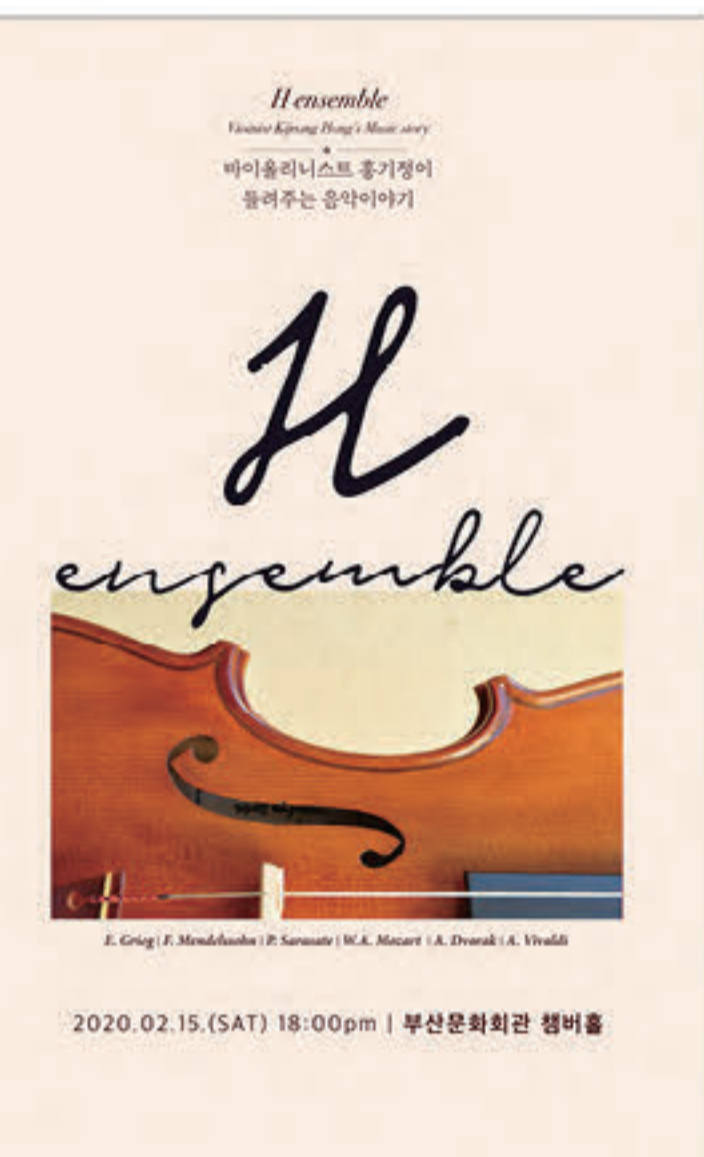
영국의 국립극장 내셔널 시어터에서 상연되는 연극의 공연실황을 라이브 스크린으로 감상할 수 있는 'NT 라이브' 2020년 첫 번째 상영작 '헤다 가블러'.

헨리크 입센의 1890년작인 '헤다 가블러'는 그의 1879년작 '인형의 집'에 이어 결혼으로 불행해진 페미니스트의 아이콘을 다룬 작품으로, 주인공 헤다(Hedda)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팜므 파탈, 여전사, 이상주의자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특히 2014년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루스 윌슨의 압도적인 연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상영시간 180분, 15세 이상(중학생) 관람가]

바이올리니스트 흥기정이 들려주는 음악이야기

일 시 | 2월 15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H양상블 010-4550-9961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수석, 무지카비바 앙상블 단원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흥기정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H 앙상블'의 무대. 사제지간의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감동이 있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 작품 40
- 멘델스존/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 사라사테/서주와 타란텔라
-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 다단조 작품 45 등
- H 앙상블/박완서, 장아름, 박설미, 박은지, 박선미, 이미림, 이상엽, 신요한, 변은석
- 솔로 연주/하희원, 이하은, 김요한

주댄스컴퍼니 무용극 빛으로 숨이 되어

일 시 | 2월 20일 목요일 오후 8: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사전예약)
 문 의 | 서주은 010-6787-5526

...



희망나눔을 통해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예술인들과 협력, 공연 수입 기부금 사업을 실천해온 주댄스컴퍼니(Ju Dance Company)의 무용극 '빛으로 숨이 되어'. 주댄스컴퍼니는 '문화예술이 위로와 희망이 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된다'는 생각으로 지난 10년간 문화사업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빛으로 숨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빛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이야기를 춤사위로 그려낸다.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공연 뮤지컬 피터팬

일 시 | 2월 20일-21일 목-금요일 오후 7:30
 22일-23일 토-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극단 607-3123, 3125

...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공연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신설된 부산시립극단 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의 가족뮤지컬 '피터팬'.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23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는 올해 1월 13일부터 20여 일간 부산시립극단 배우들을 비롯해 전문 스태프로부터 연기 및 음악, 안무 등 전문 트레이닝을 진행해왔다. 이번 무대는 교육과정을 마친 어린이들이 그동안의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피터팬'을 선보인다.

에델 현악사중주단 창단연주회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연주회 I

일 시 | 2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클래식의 본고장인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에서 수학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로 결성된 에델 현악사중주단 창단연주회.

'우아하다'라는 뜻을 지닌 에델 현악사중주단은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친숙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연주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에델 현악사중주단은 그 첫 무대로 현악사중주 1번과 14번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베토벤/현악사중주 바장조 작품 18 제1번
- 베토벤/현악사중주 올림다단조 작품 131 제14번

이의주의 오페라 콘서트-박현진의 트라비아타 라 트라비아타

일 시 | 2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나무앤숲 cmy0785(카톡문의)

...



2020년 신년과 함께 오페라 도시 부산을 꿈꾸는 토크 오페라 무대, '이의주의 오페라 콘서트' 지난해 (재)부산문화회관의 첫 제작 오페라 '리골레토'를 연출하며 부산 오페라계에 큰 족적을 남긴 연출가 이의주가 지난해 부산시민들의 호응에 보답하기 위한 음악선물로 마련하는 이번 무대는 이의주의 해설로 '라 트라비아타' 한 편을 감상할 수 있는 토크 오페라 형식의 콘서트이다.

한국에서 공연된 최초의 오페라인 '라 트라비아타'는 뒤마의 소설 '춘희'를 원작으로, 순진한 귀족청년 알프레도와 사교계의 꽃 비올레타의 비극적 사랑을 담은 이야기이다.

지난해 오페라 '리골레토'에서 질다와 만토바로 무대에 섰던 소프라노 박현진과 테너 이재욱, 감성보이스 바리톤 송기창이 누구나 한번은 들어보직한 '라 트라비아타' 대표곡 '축배의 노래'를 비롯해 '빛나고 행복했던 어느 날(Un di, felice, eterea)', '아, 그인가...언제나 자유롭게(Ah, fors'è lui... Sempre libera)', '안녕, 지난 날이여~(Addio del passato)' 등 주요 아리아를 들려준다. 성악가들의 역량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반주는 피아노로 진행하며, 오케스트라 무대를 보듯 화려한 무대 영상으로 현장의 감동을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연출가 이의주가 지난 3년간 (재)부산문화회관의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에 연재했던 '이의주의 백스테이지 오페라'를 마치며 부산음악애호가들과 함께 백스테이지 오페라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공연 중 관객들로부터 실시간 사연을 받아 바로 그 곡을 연주하는 '스페셜 프로포즈 스테이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 연출, 해설/이의주
- 소프라노/박현진
- 테너/이재욱
- 바리톤/송기창
- 음악코치/이은정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벨 에포크

일 시 | 2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 의 | 송인문화재단 010-7912-2339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의 화려한 앙상블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벨 에포크'.

지난 2016년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열렸던 '프랑스 실내악의 밤'을 시작으로 매년 수준높은 앙상블 무대를 선사해온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니스트 변애영, 임수연, 김가람, 첼리스트 필립 물러, 임재성, 바이올리니스트 보리스 가를리츠키,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 플루티스트 이소영이 출연, '벨 에포크' 시절을 거친 작곡가들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들려준다.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뜻의 '벨 에포크(Belle Epoque)'는 프랑스 19세기 말부터 1차대전 발발까지 사회, 경제, 기술, 건축 등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를 회고한 표현이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어르신들 위한 부산시향의 感謝(감사)

일 시 | 2월 24일-25일 월-화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만 65세 이상 무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이민형이 지휘하고 소프라노 신민원, 테너 조윤환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무대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나 친숙한 클래식 명곡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바흐/G 선상의 아리아
 헨델/쾌활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 온화한 사람
 중 '새벽이 밤을 훑쳐 가듯이'
 로시니/춤
 슈트라우스 2세/'봄의 소리' 왈츠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등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05회 정기연주회 중견 해금연주자를 위한 협연의 밤 시리즈 I

일 시 | 2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1층 1만원, 2층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0, 3124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 해금연주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예술감독 김정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김준희, 고수영, 서은영, 안은경, 방병원 등 중견연주자 5인의 '5인 5색' 무대가 펼쳐진다.

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이정면/해금협주곡 '활의 노래'
 이준호/서용석류 해금산조 협주곡
 박영란/해금협주곡 '터널의 끝을 향해'
 이경섭/해금협주곡 '추상'
 김성경/해금협주곡 '월백 설백 천지백'
 • 지휘/김정수(예술감독)

2020 아지무스오페라단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콘서트

일 시 | 2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아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9



지난 2002년 창단된 후 다양한 무대를 통해 오페라 저변확대에 앞장서온 (사)아지무스오페라단이 마련하는 2020 신춘음악회.

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루이스 사란과 아순시온 국립음대 박종휘 교수가 지휘하고 국내 유명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투란도트', '마술피리', '토스카', '카르멘' 등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2중

창을 대형 영상자막과 함께 들려준다.

- 소프라노/신미경, 김혜경, 황윤정, 김은수, 김미성, 김달의
- 테너/박호승, 강학운, 김준연
- 바리톤/박대용, 심정보
- 연주/카메라타부산 오케스트라

KBS부산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26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KBS부산소년소녀합창단
 010-5533-7706, 010-8557-6006



음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어린이들과 함께 맑고 고운 창작동요의 발굴과 보급에 힘써온 KBS부산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지난 1955년 창단한 KBS 부산소년소녀합창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KBS부산창작동요대회, KBS부산청소년합창제, 부산청소년합창제, KBS어린이합창단 교류음악회, 일본 후쿠오카 한일 주니어 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서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가곡 '사계', WORLD POP, K-POP, 전래동요 등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 특별출연/부산진구 라온소년소녀합창단, 윤해승(해금)

제9회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 축제합창단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27일 목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강규 010-8496-0691



(사)송인문화재단(이사장 변원탄)이 부산지역 아마추어 남성합창단 단원들과 부산합창음악의 부흥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마련하고 있는 코랄하우스 100인 남성축제합창단의 2020년 무대.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를 역임하고 현재 (사)송인문화재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고 부산트리오 멤버로 지역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고신대학교 권준 교수의 피아노 반주로 중후한 남성합창의 매력을 들려준다.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자화상의 비밀

일 시 | 2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S석 4만원, A석 2만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두손클래식엔터테인먼트 02-766-7623



음악과 그림이 함께 하는 해설이 있는 클래식 콘서트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 The Concert' 다섯 번째 무대.

지난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초청작으로 시작된 '그림 읽어주는 베토벤'은 '고흐vs고갱', '미켈란젤로 vs다빈치'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600회 이상 공연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자화상의 비밀'이라는 테마로 고흐 '자화상', 베르메르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훔바인 '대사들' 등 인물화 속에 숨어있는 의미와 수많은 자화상들에 대해 조숙현 클래식 큐레이터의 명쾌한 해설과 일미터 클래식 앙상블의 연주로 알아본다.

- 일미터 클래식 앙상블/바이올린 남근형, 클라리넷 김다솔, 바순 김민성, 피아노 박상호

이강현 첼로 리사이틀

일 시 | 2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도독, 뤼벡 국립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현재 최고 연주자과정에 재학중인 첼리스트 이강현 독주회.

2014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기획한 '라이징스타' 솔리스트, 2017년 제80회 조선일보 신인음악회에 출연하여 평론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강현은 스웨덴 출신의 거장 첼리스트 프란츠 헬머슨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수상, 2019년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페스티벌, 2020년 첼로 마스터클래스에 전액장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을 받았다.

프로그램

바흐/무반주 첼로조곡 제1번 사장조 BWV1007
 드뷔시/소나타 라단조
 바흐/무반주 첼로조곡 제2번 라단조 BWV1008
 프로코피에프/소나타 다장조 작품 119

부산시민회관

동물원과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널 사랑하겠어

일 시 | 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R석 5만5천원, S석 4만4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30-5200, 607-6000



지난 1988년 데뷔 이후 그들만의 독특한 노랫말과 색깔로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 동물원과 함께하는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故 김광석, 유준열, 김창기, 박기영, 박경찬, 이성우, 최형규 등 창단 당시

7명의 멤버에서 현재 유준열(기타·보컬), 박기영(건반·보컬), 배영길(기타·보컬)이 활동하고 있는 동물원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9개의 정규 앨범과 라이브 앨범, 리마스터 앨범, 미니앨범 등을 발표하며 주옥같은 곡들을 선보여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거리에서', '변해가네',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널 사랑하겠어' 등 세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에 의해 불리고 있는 그들의 히트곡들을 들려준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재즈가 되다_바리톤 이응광

일 시 | 2월 28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SBS 간판 아나운서이자 클래식 애호가인 박찬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리는 2020 마티네 콘서트 첫 번째 무대.

'오페라, 재즈가 되다'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스위스의 보석 바리톤' 이응광과 소프라노 구민영, 피아니스트 이소영이 출연,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밀러커 오페레타 '가스파로네', 레하르 오페라 '메리 위도우'의 주요 오페라 아리아를 비롯해 거슈윈의 첫 번째 재즈 오페라 '포기와 베스'를 만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NT-Live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일 시 | 2월 29일 토요일 오후 2:00, 6: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인간 실존에 대한 철학적 유머와 위트와 가득찬 'NT 라이브' 2020년 두 번째 작품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영국의 현대 극작가 톰 스토파드를 거장의 반열에 올린 초기작으로, 초연 당시 토니상, 뉴욕 연극평론가상, 이브닝 스탠다드상 등을 수상한 명작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영화 '해리 포터'의 주인공 다니엘 래드클리프가 로젠크란츠 역을 맡아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길덴스턴 역의 조슈아 맥과이어와 함께 환상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상영시간 180분, 12세 이상 관람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Welcome to my studio! 앨런 플레처 in 부산

일 시 | 2월 22일(토)-4월 26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 9천원, 초·중·고 4천원,
 미취학아동 2천원
 (36개월 미만 유아, 장애인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30-5235



현대적 의미의 그래픽 디자인을 영국에 처음 선보인 디자인계의 신화, 앨런 플레처의 국내 최초 회고전 'Welcome to my studio!'.

세계적인 디자인 컨설팅 회사 펜타그램의 창립 멤버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앨런 플레처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예술가로서 50여 년간 방대한 양의 작품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서는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매 작품마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앨런 플레처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듯한 느낌을 전하는 전시장 연출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음악

국립부산국악원 명품 레퍼토리
2020 토요일신명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15일 공연 없음)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A석 1만원, B석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국립부산국악원이 매주 토요일 전통예술 계승과 국악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하는 '토요일신명'. 국악을 처음 접하는 관객은 물론, 외국인과 국악 애호가들까지 폭넓은 관객층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국악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 1일 종묘제례악 '전폐희문', 포구락, 현악취타 '수요남곡', 진쇠춤, 판소리, 버나와 재담
- 8일 보허자, 처용무, 경기영남민요, 천년만세, 부채춤, 사물판굿
- 22일 대취타, 장구춤, 거문고중주 '우현의 춤', 동래학춤, 한량춤, 동해안무속장구가락, 강강술래
- 29일 해령, 춘앵전, 관악 산조독주, 태평무, 가야금병창, 무을판굿

2020 짜장콘서트
우리를 적시고 간 노래들

일 시 | 2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로비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과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의 공동주최로, 매월 첫 주 토요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석당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짜장콘서트' 2월 무대. 콘서트가 끝난 후에는 관객들이 연주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짜장면을 먹는 뒤풀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마련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리톤 유용준, 소프라노 배규린이 출연, 우리 귀에 익숙한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과 만난다.

- 진행/이진이
- 피아노/정은희

황미리 플루트 독주회
My Journey with Music II_독일편

일 시 | 2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The Artist 010-6834-1471



풍부한 음색과 맑은 소리로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이고 있는 플루티스트 황미리와 함께 떠나는 'My Journey with Music' 시리즈 그 두 번째 무대 '독일편'.

이번 무대에서는 바흐, 베토벤, 뫼, 슈만, 힌데미트 등 시대별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곡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 바흐/플루트 소나타 내림마장조 BWV1031
- 베토벤/로망스 제2번 바장조 작품 50
- 뫼/엘레지 작품 47
- 슈만/3개의 로망스 작품 94
- 힌데미트/플루트 소나타
- 피아노/유영옥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5일(제712회) Duo Ven의 첫 번째 무대 'with Sring'

플루티스트 오신정, 피아니스트 이은정으로 구성된 'Duo Ven'의 첫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 Duo Ven은 바이올리니스트 서은아, 비올리니스트 오은정, 첼리스트 변은석과 함께 이베르 '2개의 간주곡', 아서 푸트 'Sarabande And Rigaudon' 작품 60', 쿨라우 '3개의 대 삼중주 작품 119', 무진스키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다채로운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12일(제713회) 소프라노 이은미의 한국가곡의 밤 '다시'

사랑이 피어나고 지는 과정을 테마로, 총 11곡의 한국가곡을 만날 수 있는 소프라노 이은미의 한국가곡의 밤 '다시'.



19일(제714회) 이화경 피아노 독주회 '눈으로 보는 음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경북예술영재교육원에 출강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화경 독주회.

라벨의 '피아노를 위한 소네티네', 프랑크의 '프렐류드, 코랄과 푸가' 등 다양한 곡들로 관객들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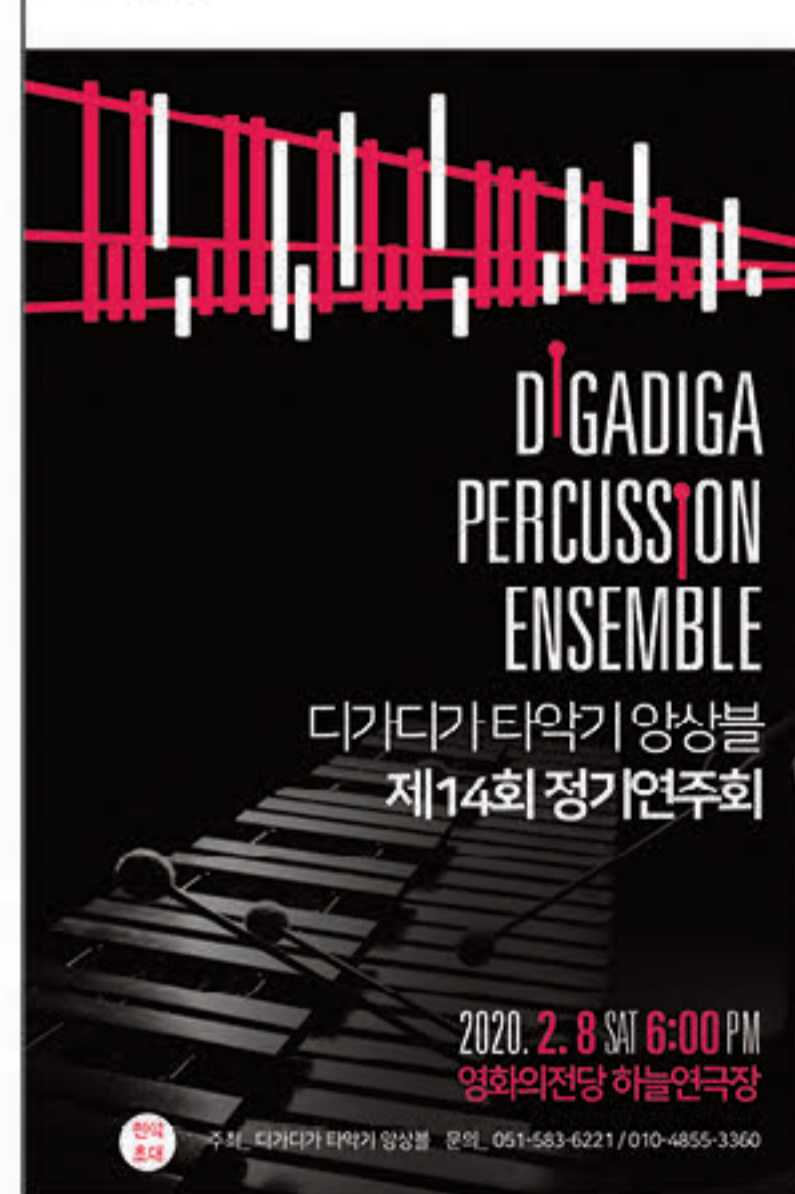
26일(715회) 클라라트리오 피아노트리오 걸작선 시리즈 1 '대공 & 뚝키'

바이올리니스트 조혜운, 첼리스트 조승연, 피아니스트 신지아로 구성된 클라라트리오의 무대.

'피아노트리오 걸작선 시리즈' 첫 번째 무대로, 베토벤 피아노트리오 '대공'과 드보르작 피아노트리오 '뚝키'를 들려준다.

디가디가 타악기 앙상블 제1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2월 8일 토요일 오후 6:00
영화대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디가디가 타악기 앙상블 583-6221, 010-4855-3360



부산에서 활동중인 타악기 연주자들과 초·중·고등학생들로 결성된 타악 연주단체인 디가디가 타악기 앙상블의 정기연주회. 지난 2006년 부산 타악기의 발전과 어린 연주자 발굴 및 연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단한 디가디가 타악기 앙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부산 아쿠아리움 초청연주회 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경쾌한 타악연주의 매력을 전해오고 있다.

스페이스 음 음악회

일 시 | 2월 7일(금), 14일(금), 20일(목), 28일(금)
오후 8:00 대극장

문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

7일(제379회) 피아니스트 하지원의 렉처 콘서트 '소나타의 모든 것'

'정확한 악보 해석을 바탕으로 둔 탄탄한 해설을 가진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고있는 피아니스트 하지원의 렉처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 소나타 '템페스트', 라벨 '소나티네', 그리고 베르크 '소나타 작품 1' 등 시대와 작곡가에 따라 같은 형식을 어떻게 다른 음악적 언어를 사용하여 담아내는지를 해설과 함께 연주를 통해 들려준다.

• 입장료/전석 1만원



14일(제380회) 이병주 밴드의 '발렌타인데이 콘서트'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색소포니스트 이병주를 중심으로 독보적 영역을 구축한 쟁쟁한 실력자들이 모인 이병주 밴드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연인들을 위한 로맨틱한 무대를 선사한다.

• 입장료/전석 3만원(와인&케이터링 포함)

20일(제381회) 2020022020 보컬콘서트 '노는놈들-숫가락'

테너 염상윤, 손동현, 바리톤 김호산, 베이스 장우경으로 구성된 '숫가락'의 무대.

'수놈들의 노래'라는 뜻을 지닌 '숫가락'은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남성단원들이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무대로 웃음과 감동을 전해준다.

• 입장료/전석 2만원



28일(제382회) 지림씨의 재즈로망스 5번째 'T-Band Blue' 편

재즈와 판소리의 색다른 만남, 지림씨의 재즈로망스 5번째 무대.

재즈피아니스트 하지림과 악가·무 형태의 종합예술단체 'T-Band Blue'

와의 조인트 무대로, 신호수(고수), 정선희(소리), 정효선(아쟁, 구름)이 판소리 '춘향가'를 색다르게 편성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입장료/전석 1만원

박수현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2월 10일 월요일 오후 6: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박수현 010-6566-1894

...



동의대학교 주최 2017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중등부 1등, 제25회, 제27회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고등부 금상, (사)한국음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주최 제46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1등, 부산대학교 주최 2019 전국학생음악콩쿠르 금상, (사)대한예능진흥회 주최 제31회 서울음악콩쿠르 2등 등 국내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박수현 플루트 독주회. 박수현은 현재 부산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프로그램

이베르/독주 플루트를 위한 소품
라이네케/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운디네'
쿨라우/서주와 변주 작품 63

뒤티앙/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네
생상스/타란텔라 가단조 작품 6

• 피아노/박현경 • 클라리넷/우수현

하지원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2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정확한 악보 해석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해설을 가진 연주'라는 극찬을 받은 바 있는 피아니스트 하지원 귀국 독주회.

부산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도미,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와 석사학위 전액 장학

금을 받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하지원은 제7회 뉴욕 아티스트 국제콩쿠르에서 3위 입상하여 뉴욕 링컨센터의 브루노 발터 오디토리움에서 입상자 리사이틀을, 펜실베이니아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오디션에 우승하여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2015 American Protégé 국제콩쿠르에서는 2위에 입상, 카네기홀에서 뉴욕 데뷔무대를 가진 바 있다.

하지원은 현재 성공회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부산현대음악앙상블 기획연주회 Busan Contemporary Music Ensemble Project Concert

일 시 | 2월 21일 금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현대음악앙상블 010-9928-3733

...



지난 2008년 작곡가 이규봉을 예술감독으로 젊은 전문연주자를 중심으로 창단된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의 2020년 첫 기획연주회.

특히 창작작품의 초연을 통해 음악의 지평을 넓히며 작곡과 청중을 연결하는 소통과 공감의 음악을 지향해오고 있는 부산현대음악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작곡가 황선영, 임지훈, 이승민, 육수근, 김범기, 이규봉의 창작곡을 들려준다.

케니 지(Kenny G) 발렌타인 콘서트

일 시 | 2월 23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벅스코 오디토리움

입장료 | 17만6천원, R석 15만4천원,

S석 13만2천원, A석 11만원, B석 8만8천원

문의 | (주)월드쇼마켓 1566-5490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재즈 뮤지션 케니 지(Kenny G)가 선사하는 로맨틱한 선물, 발렌타인 콘서트.

세계 3대 색소포니스트이자 제36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연주 작곡상을 수상하고 팝 역사

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케니 지는 지난 1979년 데뷔한 후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년만에 한국을 찾는 케니 지는 이번 무대에서 '발렌타인 콘서트'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로맨틱하면서도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2020 아지무스오페라단 신춘음악회 오페라 갈라콘서트

일 시 | 2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의 | 아지무스오페라단 010-8520-4649



오페라의 저변확대에 앞장서 온 (사)아지무스오페라단이 마련하는 2020 신춘음악회. 소프라노 신미경, 김혜경, 황윤정, 김은수, 김미성, 김달의, 테너 박호송, 강학윤, 김준연, 바리톤 박대용, 심정보가 출연,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와 2중창을 대형 영상자막과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봄의 소리’ 왈츠, 넬슨 도르마, ‘밤의 여왕’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 예술에 살고 사랑에 살고, 꽃의 노래, 투우사의 노래, 내가 거리를 걸어가면, 비열한 사제들 아 등 수곡

- 지휘/루이스 사란(파라과이 아순시온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박종휘(아순시온 국립음대 교수)
- 연주/카메라타부산 오케스트라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조희창의 클래식 레시피

일 시 |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
(6회 패키지 예매 시 30% 할인)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금정문화회관이 짝수 달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마련하는 브런치 콘서트 2월 무대.

개관 20돌을 맞아 올해 새롭게 단장된 ‘브런치 콘서트’는 ‘조희창의 클래식 레시피’라는 타이틀로, 월간 ‘객석’ 기자, KBS 1TV ‘클래식 오디세이’ 대표작가를 지낸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해설과 지역 연주자들의 연주로 진행된다.

2월 ‘책 속의 클래식’에 이어 4월 ‘엘레지와 라멘토’, 6월 ‘크로스오버 뮤직’, 8월 ‘길 떠나는 클래식’, 10월 ‘세레나데와 로망스’, 12월 ‘댄싱 클래식’라는 주제로 역사와 문학, 철학, 미술을 아우르는 음악 이야기가 펼쳐진다.

winsome 기타 듀오 제1회 관객과 함께하는 소통 콘서트

일 시 | 2월 29일 토요일 오후 7:00
스페이스 음
입장료 | 초대
문의 | 스페이스 음 557-3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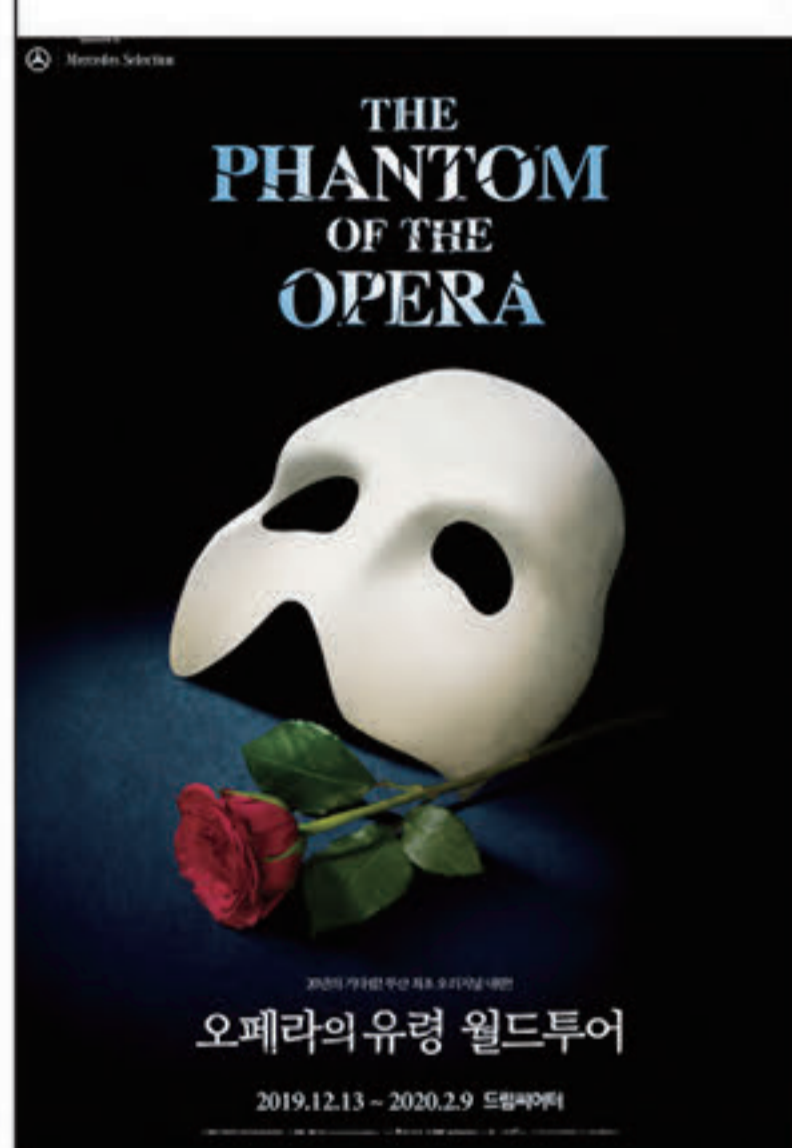
신예 기타리스트 고정현, 이선주로 구성된 winsome 기타 듀오가 마련하는 제1회 관객과 함께하는 소통 콘서트.

한국기타협회 제38회 전국기타콩쿠르 최우수상, 제1회 인천국제기타페스티벌콩쿠르 은상을 수상한 winsome 기타 듀오는 이번 무대에서 클래식기타 두대로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장르를 재해석, 화려한 테크닉과 주법, 이들만의 색깔 있는 감성으로 들려준다.

연극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2020년 2월 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없음) 부산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9만원, B석 6만원
문의 | 클럽서비스(주) 1577-3363



오리지널 공연으로서는 처음 부산에서 개최되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 부산공연.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아름다운 음악과 파리 오페라 하우스, 지하 미궁, 거대한 상들리에 등 화려한 무대, 무대를 덮는

230여 벌의 의상 등으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아온 이번 무대에서는 역대 최연소 ‘유령’ 조나단 록스머스를 비롯해 최고의 무대에 어울리는 월드 클래스의 캐스트로 오리지널 무대의 진수를 선보인다.

연애하기 좋은 날

일 시 | 1월 2일(목)-4월 5일(일) 평일 오후 5:00,
7:00, 토요일 오후 2:30, 5:00, 7:30,
일요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대한민국 남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연애 에피소드를 온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로맨틱 코미디극.

연애와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함께 공유하며 속 시원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연애하기 좋은 날’

은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 오랜 기간 연애에 몰들어 처음처럼 새롭지 않은 연인, 그리고 다가올 연인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남녀 모두에게 공감과 재미를 선사한다.

룸넘버 13

일 시 | 1월 4일(토)-3월 8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30, 6:3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라이어’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레이 쿠니의 야심작 ‘룸넘버 13’. 호텔에 체크인하고 들어선 여당 국회의원 리차드와 야당 총재비서 제인은 만남의 기쁨도 잠시 난데없이 발코니 창문에 엮

려 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지만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가는 데...

영국의 ‘로렌스 올리비에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룸넘버 13’은 지난 2008년 한국 초연 이후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는 스토리로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원아워

일 시 | 3월 5일-6일 목-금요일 오후 8:00,
7일 토요일 오후 4:00, 7:00, 8일 일요일
오후 2:00, 5:00 **일터소극장**
문 의 | 극단 물음피 010-2247-7606

...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극단 물음피의 '원아워'.

망자들을 무사히 황천길로 보내는 임무를 수행하는 '구천컴퍼니'의 베테랑 저승사자인 김 팀장과 이제 갓 회사에 들어온 어리바리한 신입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세 명의 고객(망자) 때문에 입사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맞는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팀장과 신입 앞에 그들을 돕겠다는 수상한 여자가 나타나고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원아워 프로젝트'를 제안하는데...

이미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이야기해온 주제인 '죽음과 시간'을 물음피만의 색깔과 방식으로 풀어낸 '원아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유쾌하고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무용

금정문화회관 20돌 재개관 첫 공연 명품창작발레 **인어공주**

일 시 | 2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2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VIP석 7만원, R석 6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3

...



올해로 개관 20돌을 맞는 금정문화회관이 개관 20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명품창작발레 '인어공주'.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이 이끄는 K-Arts 무용단이 선보이는 '인어공주'는 지난 1997년 안데르센 동화를 바탕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선희 무용원장이 안무한 작품으로, 당시에는 20분 가량의 파드 되 소품으로 창작되었으나 2001년 전막 발레작품으로 재탄생되어 그동안 국내에서 전석 매진 신화를 이끌어왔다. 특히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출신의 발레무용수가 출연하여 고난도의 춤과 연기로 한국발레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영화

(재)영화의전당 문화가 있는 날 무료상영회 **운동주, 달을 쏘다**

일 시 | 2월 26일(수)(시간미정)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련하는 'SAC on Screen' 2월 무료영화상영회 '운동주, 달을 쏘다'.

'SAC on Screen'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된 우수 공연들을 영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역동적

인 화면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가 대형 스크린 속에 펼쳐진다.

이번 '운동주, 달을 쏘다'는 서울예술단이 지난 2017년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서 공연한 작품으로, 운동주의 생애와 그가 남긴 아름다운 시들로 채워진, 문학·음악·춤·극이 어우러지는 창작가무극이다.

콘서트

2020 적재 콘서트 어떤 하루 in 부산

일 시 | 2월 15일 토요일 오후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당신이 바로 '보이스퀸' 전국투어 콘서트

일 시 | 2월 15일 토요일 오후 2:00, 6:00
부산벙스코 제1전시장 1홀
입장료 | VIP석 9만9천원, R석 8만8천원
S석 7만7천원
문 의 | (주)우리기획 1566-9621

2020 장윤정 라이브 콘서트

일 시 | 2월 22일 토요일 오후 2:00, 6:00
KBS부산홀
입장료 | VIP석 13만2천원, R석 12만1천원
S석 9만9천원
문 의 | (주)밝은누리 053-1566-9621

행사

김옥균의 클래식음악여행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연제구청 대회의실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수강료 | 3개월 15만원(연제구청 강좌는 무료)
문 의 | 연제구청 평생학습과 665-4506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문화센터 810-2351~2

...



MBC 부산문화방송에서 'FM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 김옥균(현재 클래식음악 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음악 해외공연실황 영상감상회).

프로그램

베를린 필하모닉의 2019 발트뷔네 콘서트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2018 로열발레 실황)
갤럭시 심포니 'SF영화음악콘서트'(2019년 덴마크 국립교향악단)
쇤부른 궁전의 빈 필하모닉 2019 여름밤 음악회 등

정두환의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좋은 만남' 시(詩)와 음악(音樂)의 만남 II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보수동책방골목 문화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정두환 017-574-0423

...



문화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만들기를 꿈꾸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이 진행하는 화요음악강좌.

지난 2003년 3월 부산문화회관 음악감상실에서 시작된 후 지난해 5월 70회 특집음악회를 가진 바 있는 화요음악강좌

는 그동안 인문학과 예술을 통섭하는 강좌로 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4일(737회) 프랑스 상송
11일(738회) 미국 팝송
18일(739회) 영혼의 노래-가스펠 송
25일(740회) 이 달의 책 읽기 '은밀한 생'(파스칼 키냐르 저, 송의경 옮김, 문학과지성사)

2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00, 6일(목)
오후 7:00, 14일(금) 오후 7:00
(무료 아카데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목요일 오후 2:00) **시네바움**
입장료 | 일반 1만5천원, 학생 1만원(1회 수강료)
※ 논어아카데미 무료, 창희의 수작글방 월 5만원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3일(월) 오후 7:00 물리학의 최전선(3) 우주의 미스터리 '암흑에너지'를 찾아라'

• 강사/조송현(웹진 인저리타임 대표,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겸임교수)

4일(화), 11일(화), 18일(일), 25일(일) 오전 10:30 윤산의 논어 아카데미

• 강사/윤산 김수청(부산대 교양교육원 외래교수,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 연구위원)

4일(화) 오후 7:00 재즈를 탐하다(6) 스윙(Swing)

• 강사/이기병(동의대 음악학과 교수)

6일(목), 13일(목), 20일(목), 27일(목) 오후 2:00 글짓는 하루-창희의 수작글방

• 강사/박창희(컬럼니스트, 부산시사편찬위원,
스토리텔러, 스토리랩 수작 대표)

6일(목) 오후 7:00 이야기, 손자병법

• 강사/박승섭(부경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10일(월) 오후 7:00 소크라테스는 왜 즐거워했는가? 플라톤, '파이돈'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과 교수)

11일(화) 오후 7:00 레비나스와 함께하는 하루 타자성과 초월

• 강사/문성원(부산대 철학과 교수)

14일(금) 오후 7:00 金, 夜金야금, 도병찬의 뮤직 파이프(2) 덴마크 왕립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영화음악

• 강사/도병찬(음악평론가, 前 KBS PD)

17일(일) 오후 7:00 근현대 중국을 읽는 키워드(3) 农(농農)과 城

• 강사/이보고(부경대 글로벌자율전공학부 교수)

18일(화) 오후 7:00 정해성의 문화공간(8) 현대 문화에 나타난 지식인 유형

• 강사/정해성(문학박사, 문화평론가, 문화공간
Raum-Y 대표)

24일(일) 오후 7:00

우리시대 고전이 탄생하기까지, 연암과 열하일기

• 강사/김남이(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25일(화) 오후 7:00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1) 크리스토퍼 말로우(Christopher Marlowe)의 죽음과 몰타의 유대인(Jew of Malta)

• 강사/김해룡(영문학박사, 前 한일장신대 교수)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강좌 음악으로 읽는 인문학 시즌 3

일 시 | 2월 11일(화), 25일(화) 오후 7:3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음악평론가 객근수가 진행하는 무지크바움 클래식 인문학 강좌.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작품을 발표했던 작곡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제5강 '그들은 왜 자기 이름을 숨겼을까?'(11일), 대립과 조화가 양립하는 콘체르토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는 제6강 '대립과 조화의 세계 콘체르토'(25일)가 펼쳐진다.

제149회 알바트로스 詩낭송콘서트

일 시 | 2월 15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문화홀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전시

제9회 부산미술대학 우수졸업작품 초대전

일 시 | 1월 8일(수)-2월 20일(목)
정준호갤러리
문 의 | 정준호갤러리 943-1004

북유럽 일러스트레이션展 My Winter Story, 숲길을 걸으며

일 시 | 1월 9일(목)-2월 3일(월)
롯데갤러리 광복점
입장료 | 무료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핀란드의 마티 피쿠야사와 린다 본드스탐, 스웨덴의 제니 스위딘, 덴마크의 안나 마르그레테 키에르고르 등 북유럽 일러스트 작가 4인의 북유럽 일러스트레이션展 'My Winter Story, 숲길을 걸으며'.

금정문화회관 개관 20돌 기념 특별전시 동화나라 식물나라展

일 시 | 1월 21일(화)-3월 11일(수)
금정문화회관 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6

금정문화회관이 2020년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 기획전 '동화나라 식물나라展'. 이번 전시에서는 동화 속 그림을 3차원의 구조물과 영상으로 재현한 작품과 식물세밀화협회 회원들의 수준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6시
- 체험진행(동화나라)/오전 10시~오후 5시 (사전예약 필수)

부산박물관 특별전 2020 경자년 쥐띠 해 전시 근면과 예지의 동물, 쥐

일 시 | 1월 21일(화)-3월 8일(일)
부산박물관 1층 로비
문 의 | 부산박물관 610-7111

타워갤러리 기획 2020 새해맞이 그림전

일 시 | 2월 1일(토)-2월 10일(월)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타워갤러리 기획 제19회 타워현대여성작가전

일 시 | 2월 11일(화)-2월 18일(화)
타워아트갤러리
문 의 | 타워아트갤러리 464-3939





경계를 넘는 월드 뮤직

안은지, 신설령 공저 / 예술
576p / 2만 4천 원

‘월드 뮤직’을 사전 그대로 직역하면 ‘세계의 음악’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서구 음악(미국과 영국의 주류 팝 음악 등)을 제외한 세계의 음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월드 뮤직은 자메이카의 스카와 레게, 브라질의 보사노바, 아르헨티나의 탱고, 아프리카 대륙의 민속음악 등 그 자체로 다양한 민족의 민속 음악에 뿌리를 둔 음악을 가리키고 있다. 이제는 ‘대중음악의 새로운 대안’ 정도로 해석되고 정착되어 쓰이고 있다. 음악을 잘 안다 하더라도 월드뮤직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부족하다. 월드 뮤직에 대한 한글 서적의 절대적 빈곤 현상을 타개하고자 음악 전공자 이은지, 음악문화학 전공 학자 신설령 두 사람의 저자가 힘을 합쳐 이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과 미국의 음악이 소개되어 있다. 다루는 나라의 음악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자세하게 수록해 이해를 돕는다. 음악을 글로만 이해하기에는 아쉽다. 그래서 이 책에는 각 장르별 음악 소개와 함께 대표 작곡가 및 가수의 음악을 손쉽게 들어볼 수 있도록 유튜브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QR 코드가 제공되어 있다. 음악과 더불어 그 음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환경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패션, 음악영화를 노래하다

진경옥 지음 / 산지니
242p / 2만 원

동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진경옥 명예교수가 영화 속의 패션을 말하는 또 한편의 책을 냈다. 전작 <패션, 영화를 디자인하다> <패션, 영화를 스타일링하다>에서 영화 속 의상들이 어떻게 스토리와 인물의 감정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 다양한 영화를 통해 보여주었다면, 이번 책은 음악영화 편이다. 한국 관객에게 큰 사랑을 받은 음악영화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음악영화’는 음악이 영화의 주요소가 되며, 음악가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나 대사와 상황이 음악으로 대체되는 영화를 말한다.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관객들은 노래만으로도 영화를 떠올린다. 이 책에 소개된 <보헤미안 랍소디>의 ‘Bohemian Rhapsody’, <8마일>의 ‘Lose Yourself’, <보디가드>의 ‘I Will Always Love You’, <맘마미아 2>의 ‘Waterloo’, <라라랜드>의 ‘City Of Stars’ 등은 노래만 들어도 영화 장면이 떠오른다. 그리고 또 하나 영화의 주인공들의 패션도 떠오른다. 프레디 머큐리의 점프슈트, <라라랜드> 미아의 초록과 노란색 드레스, 비틀즈의 몹 톱 헤어와 칼라 없는 슈트, <물랑 루즈> 샤틀린의 붉은색 드레스는 팬들의 기억에 선명하다. 19편의 영화로 담아낸, 뮤지션이 사랑한 패션 이야기다.

명작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광표 지음 / 에코리브르
296p / 1만 9천 500원

고려청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명품이라는 데에 반론은 아마 없을 것이다. 국민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도자기 장인들은 고려청자를 재현한다. 고려청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명품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을까. 그렇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2010년 충남 태안의 바다에서 고려청자 매병 2점이 발굴됐다. 청자 매병은 훗날 보물 1783호, 1784호로 지정됐다. 그런데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함께 나온 목간이었다. 목간은 청자 매병이 참기름과 꿀을 담은 단지라는 사실을 적고 있었다. 우리는 고려청자를 한국미를 대표하는 문화재로만 생각하는데, 당대에는 일상용품이었다. 백자 달항아리, 조각보, 민화 등도 마찬가지다. 제작 당시에는 최고 미술품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상용품이었을 수도 있는 고미술 문화재들은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 미술의 명작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이 책은 이런 의문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한국 근현대기의 고미술 컬렉션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특성, 컬렉션 형성 과정에서의 시대적·사회적·문화적 의미, 박물관·미술관이라는 제도와 공간을 통해 사람들이 컬렉션을 어떻게 만나고 수용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인식하는지를 고찰한다.

2019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성료

우수작은 극단 오오씨어터의 '토장군을 찾아라'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산예술인 스타발굴 프로젝트 '2019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이 부산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새로운 시선, 차세대 예술'이라는 주제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산지역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공연예술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이번 축제는 지역의 잠재력 있는 신진예술인들의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을 통해 '메이드 인 부산' 레퍼토리를 육성, 발전시키는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의 우수작으로는 극단 오오씨어터의 '토장군을 찾아라'가 선정됐다. 한국 전래동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는 신진작가의 초연작임에도 높은 완성도와 안정적인 추진이 돋보이면서 이번 축제의 의도와 가장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토장군을 찾아라'는 올해 부산문화회관 시즌프로그램 작품으로 초청받아 9월 3일부터 5일까지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관객들과 다시 만난다.

다이나믹 오케스트라 정기회원 단체가입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사랑과 감동을 나누는 아마추어 현악오케스트라인 '다이나믹 오케스트라'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했다.

지난 2015년 3월 창단된 후 그 해 11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연주활동을 가져오고 있는 '다이나믹 오케스트라'는 새롭게 개관한 부산문화회관 연습실 '다듬채'에서 올해 1월부터 매주 토요일 합주연습을 통해 실력을 쌓고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할인혜택과 부대서비스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사랑받으면서 매년 단체가입이 늘고 있다. 석포교회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정기회원에 단체가입해오고 있으며,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그랜드자연요양병원도 병원가족들의 정서요양을 위해 매년 단체가입하고 있다.

202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결원단원 모집 안내

☑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 모집인원 : 악장(1명), 더블베이스, 플루트, 호른, 트롬본(0명)
- 응시자격 - 만 28세 이하의 부산 소재 중·고·대학생 또는 대졸자 (인제대 포함, 대학교 휴학생 가능)
 - 부산 출신으로 타 지역대학 졸업 후 공고일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응시곡목 - 자유곡/협주곡 또는 소나타 빠른 한 악장(무반주)
 - 지정곡/원서접수 후 전자우편으로 배부
- 전형일시 및 장소 : 2020. 3. 7(토) 13:00(악장), 15:00(단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연습실
- 합격자 발표 : 2020. 3. 10(화) 17:00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bscc.or.kr)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2020. 2. 20(목) ~ 3. 4(수) 17:00까지
-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 다운로드)
재학(졸업·휴학)증명서 1부(3개월 이내)
- 접수처
전자우편 dongjoooh@bscc.or.kr
(접수 시 악보 전자우편으로 제공)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사무국(607-3118)

극장장의 손 편지 ⑫

극장장의 손 편지

(재)부산문화회관 대표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로비에서
시즌 공연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있는 관객들

시즌공연 방식을 둘러싼 논란들

이번 손편지에서는 우리나라 공연장의 시즌방식에 대한 여러 의견에 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시즌방식의 반대논리와 그에 대한 필자의 반박논리를 정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시즌방식을 말하는 '시즌제'는 고유명사도 보통명사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 공인된 또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제도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양과 한국은 각기 그 방식들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 공연장에서 하는 시즌방식이 서양의 그것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시즌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단일 장르의 예술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용극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예술단체의 제작 공연으로 시즌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00극장의 오페라 시즌, 발레시즌, 연극시즌, 무용시즌 등으로 불리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의 시즌방식이죠. 독일의 경우만 예외로 여러 단체가 한 극장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장르별로 각각 시즌이 구성됩니다. 단체별로 시즌을 구성할 때, 자주 핵심 콘셉트나 주제가 일부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가령 올해 부산시향처럼 '베토벤 탄생 250주년'에 맞게 베토벤의 작품들이 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라벨의 교향곡 전곡 도전시리즈' 같은 예도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예술단체 중심의 시즌을 구성한다면, 한국은 전국 1천3백여 개 극장 중 열 개도 채 안 되지만 극장 중심의 시즌이 구성되죠. 왜 그런가 하면 단일 장르의 예술단체가 극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대학로 등에서 극단이 소극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한 극장에서 여러 개의 예술단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거나(광역시 문화회관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일부 공공극장) 아니면 예술단체 없이 극장만 운영하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러하니 거기에 맞게 시즌 구성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도 먼저 이런 방식을 도입한 유럽이나 미국은 시즌제가 맞고, 나중 생긴 우리나라는 아니라 하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문화적 변용'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시즌 기간의 차이 때문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보통 가을에서 다음해 봄까지가 시즌 기간입니다. 여름은 휴가로 보냅니다. 원래 300여 년 전 유럽의 궁정이나 오페라극장에서의 시즌은 가톨릭의 위세에 눌려서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 다음 해 사순절 초반까지 약 2개월 남짓이었다가 종교의 세력이 날로 약화되면서 앞뒤로 확장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가을에 시작하는 것도 당시 극장을 지원하던 왕과 귀족들의 여름휴가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네들의 시즌기간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시즌이란 개념도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더구나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연도 때문에도 서구방식의 시즌기간 설정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체 중심으로 시즌을 꾸린 국립중앙극장이 서구처럼 가을과 봄 사이에 시즌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맘만 먹으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여름은 덥고 대개 휴가가 많아서, 공연에 몰입하기에는 밤이 긴 겨울이 낫다는 것도 일리가 있게 느껴집니다.

시즌방식의 도입을 꺼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시즌공연 발표를 하고 나서 그보다 더 매력 있는 공연이 나타나면 어찌느냐?”는 말도 더러 하는 것을 봅니다. 제작 중심이 아니라 초청 중심의 극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시장이 커지는 만큼 그런 공연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공연들은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다음 시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시즌방식



을 버려야 할 이유는 눈곱만큼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힘들게 된다는 논리는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실제로 시즌 발표가 다가오면 할 일이 많아지고 평소보다 일의 강도와 폭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저런 준비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는 일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는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기는 하지만, 연간 하는 일의 총량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때 좀 힘들어서 시민들의 선택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이 높아진다면 해 볼 만한 일이 아닐까요? 힘이 드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미리미리 되어있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평소에 작품을 많이 보고 선택을 미리미리 해 둔다면 그만큼 더 여유 있는 준비가 가능해질 것이고 그만큼 일시적으로 힘이 드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시즌 방식은 하기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기도 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논리를 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은 이들인 것이 재미있습니다. 시즌방식을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거나 심지어 공연장에서 제대로 기획을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제가 이런 논란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은 행여 이런 선부른 논리들로 인하여 어렵게 시작한 시즌방식이 중단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도시에서는 제가 떠난 이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꾸준히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다시 얻게 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2020-21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연극/뮤지컬

착한 여우들의 유쾌한 반란!

<여자만세 2>

문화 | 중극장 3.19.(목)~3.20.(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햄릿>

문화 | 중극장 5.30.(토) 3:00pm
All Seats 20,000원



2020년 창작뮤지컬 최고의 화제작

뮤지컬 <팬레터>

문화 | 중극장 6.12.(금)~6.14.(일)
금 7:30pm 토 3:00pm, 7:00pm 일 3:00pm
R 88,000원 S 66,000원 *패키지 제외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디 오디언스>

문화 | 중극장 6.27.(토) 3:00pm
All Seats 20,000원



‘그래, 삶이란 이런거지’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시민 | 소극장 7.31.(금)~8.1.(토) 금 7:30pm, 토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연극계 황금콤비 김광보 연출 & 고연옥 작가 신작

<결혼> 부산문화회관·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문화 | 중극장 9.18.(금)~9.20.(일) 금 7:30pm
토일 3:00pm /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셰익스피어의 열두밤 이야기

<십이야(十二夜)>

시민 | 소극장 9.26.(토)~9.27.(일) 3:00p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발레 / 무용

‘드라마틱 발레’의 거장 에이프만 발레단 내한공연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문화 | 대극장 5.23.(토)~5.24.(일) 7:3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Souheil Michael Khoury

원작자 ‘셰익스피어’가 나타났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문화 | 중극장 7.25.(토)~7.26.(일)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거대한 스윙재즈 클럽의 열기 속으로!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문화 | 대극장 8.28.(금)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부산문화회관 &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 / 리옹댄스비엔날레 공동제작

안은미 신작 <호랑이와 용>

문화 | 중극장 12.4.(금)~12.5.(토) 금 7:30pm, 토 3:0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클래식

지금, 가장 핫한 두 영 아티스트의 만남!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문화 | 대극장 5.12.(화) 7:30pm
R 70,000원 S 50,000원 A 20,000원



프렌치 베토베니언의 베토벤 소나타

프레데리크 기 리사이틀

문화 | 챔버홀 6.16.(화) 7:30pm
All Seats 30,000원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베토벤 스페셜리스트의 귀환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문화 | 대극장 9.25.(금) 7:30pm
V 120,000원 R 90,000원 S 60,000원 A 30,000원



오스모 벤스케 지휘 × 이지운 협연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문화 | 대극장 10.30.(금) 7:3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Adieu 2020 & Happy New Year 2021

2020 제야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31.(목) 10: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패키지 제외



새해를 여는 천상의 소리

빈 소년 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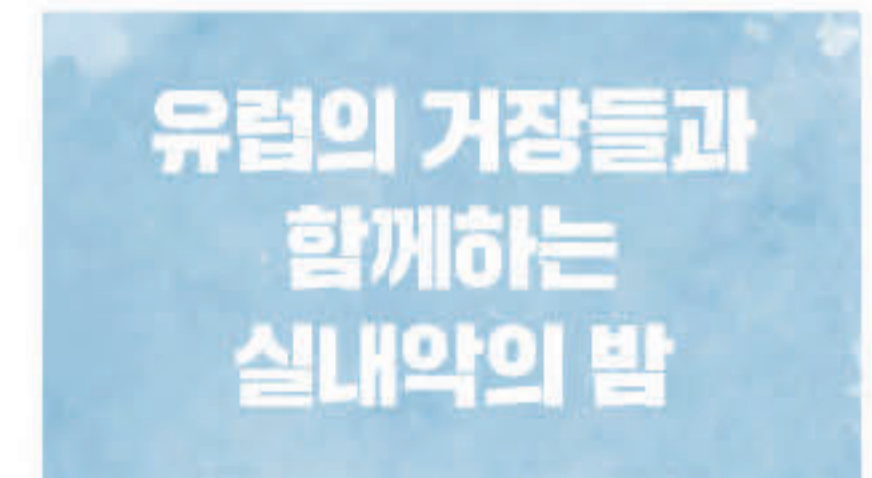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2021.1.23.(토)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10,000원 *패키지 제외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문화 | 중극장 2021.2.21.(일) 5:00pm
R 50,000원 S 30,000원 A 10,000원



마티네 콘서트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응광>

문화 | 중극장 2.28.(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리스트 드니 성호>

문화 | 중극장 4.24.(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동요, 클래식이 되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문화 | 중극장 5.29.(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바이올린 로맨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

문화 | 중극장 7.31.(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드라마틱 플루트 <플루티스트 필립 운트>

문화 | 중극장 8.28.(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베토벤, 영웅이 되다 <피아니스트 홍민수>

문화 | 중극장 10.30.(금) 11:00am
All Seats 10,000원



오페라

부산오페라하우스 성공건립
2020 부산오페라 Week

문화 | 대극장 & 중극장 10.10.(토)~10.18.(일)
평일 7:30pm / 주말 및 공휴일 5:0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BSCC 우수레퍼토리 앙콜공연
오페라 <리글레토>

문화 | 대극장 2021.2.26.(금)~2.27.(토) 7:30pm
V 100,000원 R 7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 패키지 제외



국악 / 창극

판소리 아이돌과 두 번째 달의 만남
김준수, 두 번째 달 <팔도유람>

문화 | 중극장 3.25.(수)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세계를 누비는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시민 | 소극장 4.23.(목)~4.24.(금)
목 7:30pm, 금 11:00am
R 4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원작보다 강하다!
국립창극단 <변강쇠 짝 찍고 옹녀>

문화 | 대극장 7.17.(금)~7.18.(토)
금 7:30pm, 토 3:00pm
V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킹스턴 루디스카 x 연희컴퍼니유희
유희스카

문화 | 중극장 11.5.(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콘서트 / 탱고

무적전설
이승환 30주년 콘서트

시민 | 대극장 7.18.(토)~7.19.(일) 토 6:00pm, 일 5:00pm
V 154,000원 R 132,000원 S 110,000원 A 99,000원
* 패키지 제외



감동을 넘어선 마법의 시간
2020 디즈니 인 콘서트

시민 | 대극장 8.29.(토) 5:00pm
V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피아졸라 탱고 앙상블의 진수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문화 | 중극장 9.24.(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A 20,000원



아트서커스

한 편의 완벽한 서커스 드라마
세븐 핑거스 <여행자>

문화 | 대극장 6.12.(금)~6.13.(토) 금 7:30pm, 토 3:00pm
V 80,000원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Alex

지역프로젝트

한 여름밤의 실내악 축제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문화 | 중극장 & 챔버홀 8.15.(토)~8.29.(토)
평일 7:30pm / 주말 및 공휴일 5:00pm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문화 | 중극장 9.3.(목)~9.5.(토)
목·금 10:30am, 1:30pm / 토 11:00am, 2: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문화재단 공동기획
2020 부산 브랜드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문화 | 중극장 11.14.(토)~11.15.(일) 3: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문화재단 공동기획
2020 부산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작

문화 | 중극장 11.28.(토)~11.29.(일) 3:00pm
R 30,000원 S 20,000원 * 패키지 제외



어린이 / 가족

세 마리 펭귄의 우정 이야기
<8시에 만나>

문화 | 사랑채 3.3.(화)~4.5.(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EBS 번개맨 20주년 기념대작
뮤지컬 <번개맨>

문화 | 대극장 5.2.(토)~5.3.(일)
토 11:00am, 2:00pm, 4:30pm / 일 11:00am, 2:00pm
R 60,000원 S 50,000원 * 패키지 제외



범인을 찾아라!
<프랭키와 친구들>

문화 | 사랑채 6.2.(화)~7.26.(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극단 학전 & 김민기 연출의 스테디셀러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시민 | 소극장 7.3.(금)~7.4.(토)
금 10:00am, 토 11:00am, 3:00pm
R 30,000원 S 20,000원



어린이 전래동화 뮤지컬
<방귀쟁이 며느리>

문화 | 사랑채 8.27.(목)~10.25.(일) 11:00am
(월·수 공연없음) All Seats 20,000원 * 패키지 제외



부산시립예술단 2020 시즌 프로그램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교향악단 _ 정기연주회

제558회 정기연주회

New Year's Concert 2020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16.(목)~1.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59회 정기연주회

French Nuance 프랑스식 뉘앙스

문화 | 대극장 2.14.(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0회 정기연주회

Bohemian Groove 보헤미안

문화 | 대극장 3.6.(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1회 정기연주회

Baroque to Classical 바로크에서 고전까지

문화 | 중극장 3.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2회 정기연주회

Cheers! 짬!

문화 | 대극장 4.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3회 정기연주회

(un)clear 모호함과 확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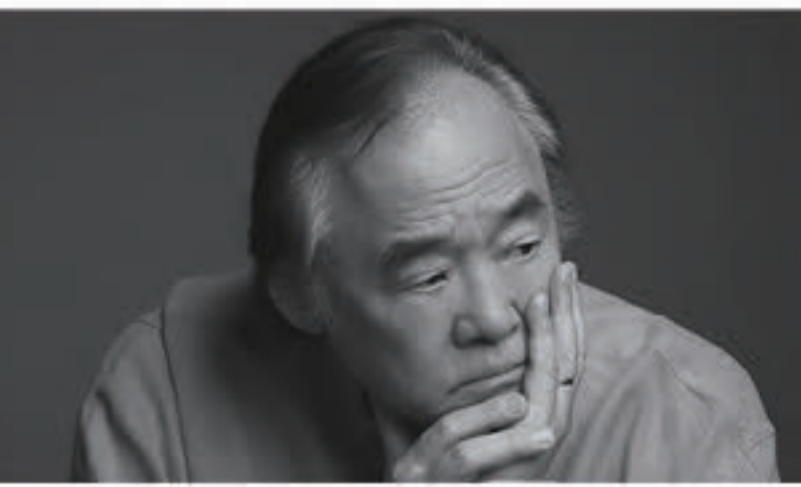
문화 | 대극장 5.15.(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4회 정기연주회

BPO meets Kun-Woo Paik 거장의 레제로

문화 | 대극장 6.19.(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5회 정기연주회

O Sole Mio 이탈리아 음악휴가

문화 | 대극장 7.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6회 정기연주회

Again, R.Strauss! I 부산시향의 슈트라우스 어게인! I

문화 | 대극장 9.23.(수)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7회 정기연주회

unique 개성

문화 | 대극장 10.23.(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8회 정기연주회

Frame 틀

문화 | 중극장 11.10.(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69회 정기연주회

Shostakovich's 7th Symphony 부산시향의 쇼스타코비치

문화 | 대극장 11.24.(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제570회 정기연주회

Beethoven's 250th Birthday in Busan 송년음악회 - 해피벌스데이, 루트비히!

문화 | 대극장 12.17.(목)~12.18.(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교향악단 _ 특별연주회

BPO Thanks Concert

부산시향의 感謝 감사

문화 | 중극장 2.24.(월)~2.25.(화) 2:00pm
All Seats 5,000원



BPO Open Door Concert

부산시향의 나눔

문화 | 중극장 3.26.(목) 4:00, 7:00pm
All Seats 5,000원



BPO Chamber Music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문화 | 챔버홀 4.29.(수)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Family Day
부산시향의 가족음악회

문화 | 대극장 5.29.(금)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Open Rehearsal
부산시향의 미완성음악회

문화 | 중극장 6.17.(수) 7:30pm
 All Seats 5,000원



BPO Romantic Night
부산시향의 로망스

문화 | 중극장 7.7.(화)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Youth Concert
부산시향의 클래식은 내친구

문화 | 대극장 8.11.(화) 3:30,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Kids Concert
부산시향의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중극장 9.10.(목)~9.11.(금) 11:00am
 All Seats 5,000원



BPO & Young Solists
제76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10.8.(목) 7:30pm
 All Seats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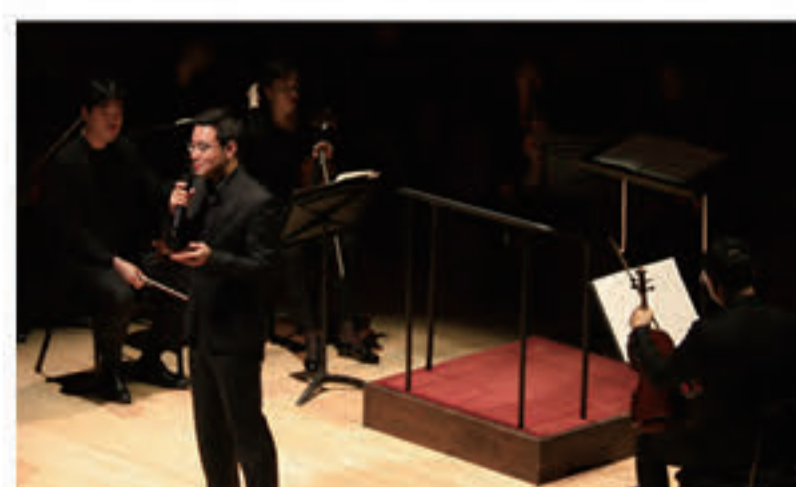
BPO Chamber Music
부산시향의 실내악공장

문화 | 챔버홀 10.3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BPO Night Lab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문화 | 중극장 12.9.(수) 9:00pm
 All Seats 10,000원



합창단 _ 정기연주회

제179회 정기연주회 및 이기선 예술감독 취임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음악시리즈 II
 현대합창 거장들의 합창세계**

문화 | 대극장 3.31.(화) 7:30pm
 All Seats 10,000원



호국의 달 기념 제180회 정기연주회

이 땅에 기쁨과 평화를

문화 | 대극장 6.26.(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181회 정기연주회

최석태 부산 칸타타 & 창작합창곡

문화 | 대극장 9.22.(화) 7:30pm
 All Seats 10,000원



제182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17.(목)~12.18.(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합창단 _ 특별연주회

합창으로 만나는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문화 | 중극장 2.13.(목) 7:30pm
 All Seats 10,000원



전래동요에 의한 가족 음악극

옛날 옛적에

문화 | 중극장 5.21.(목)~5.22.(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가요합창음악회 2020 Summer Fantasy

김동률과 이적(카니발) 편

문화 | 대극장 7.23.(목) 8:00pm
 R 20,000원 S 10,000원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3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10.19.(월)~10.22.(목) 6:00pm
 All Seats 무료



청소년을 위한
힐링콘서트

문화 | 대극장 11.2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제207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화평음악회'

문화 | 중극장 6.26.(금) 8:00pm
R 10,000원, S 5,000원



무용단 _ 정기공연

제81회 정기공연
**수석안무자 선정공연 2
<Odyssea FE2020b>**

문화 | 대극장 3. 19.(목)~3.20.(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제208회 정기연주회
창작실내악

문화 | 챔버홀 11.25.(수) 8:00pm
All Seats 10,000원



제82회 정기공연
예술감독 취임공연

문화 | 대극장 11.5.(목)~11.6.(금) 7:30pm
All Seats 10,000원
관람연령 | 초등학교 이상



* 2013년 무용공연작

제209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12.23.(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국악관현악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신년다례연(新年茶禮宴)

문화 | 대극장 2.4.(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무용단 _ 특별공연

특별공연
2020 우리춤 산책

시민 | 소극장 4. 16.(목)~4.17.(금) 7:30pm
All Seats 5,000원



특별연주회
雅樂의 밤

문화 | 챔버홀 5.21.(목) 8:00pm
All Seats 10,000원



특별공연
2020 출추는 동화

문화 | 사랑채 5. 11.(월)~5.22.(금)(토, 일 제외) 7:30pm
※단체공연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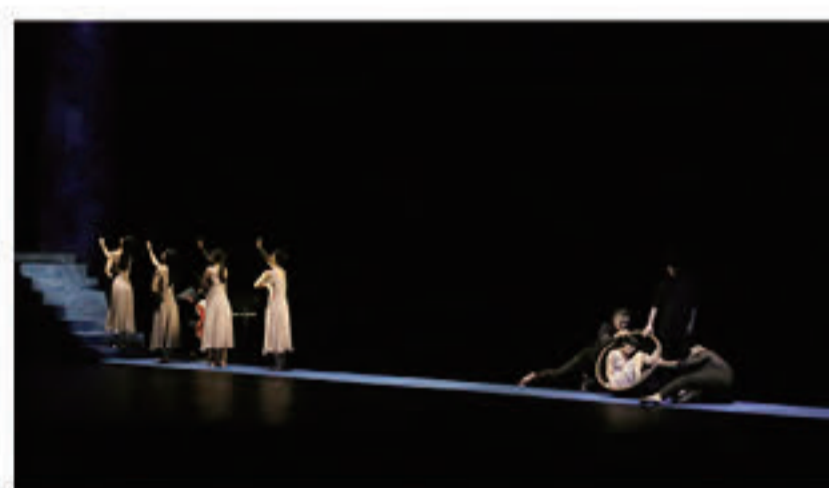
특별연주회
명품 재창작 관현악

문화 | 중극장 7.14.(화) 8: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공연
2020 안무가 양성프로젝트 '몸으로 쓰는 시'

문화 | 중극장 8. 20.(목) 7:30pm
All Seats 5,000원



특별연주회
팔빙수 같이 시원한 콘서트

문화 | 대극장 8.12.(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국악관현악단 _ 정기연주회

제205회 정기연주회
중견 해금연주자를 위한 협연의 밤 시리즈 I

문화 | 대극장 2.25.(화) 7:3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제46회 청소년 협연의 밤

문화 | 중극장 9.25.(금) 8:00Pm
All Seats 2,000원



제206회 정기연주회
제9대 수석지휘자 취임 연주회

문화 | 대극장 4.22.(수) 8: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연주회
'풍류' 명기·명창·명무의 무대

문화 | 중극장 10.20.(화) 8:00pm
R 10,000원, S 5,000원



극단 _ 정기공연

제67회 정기공연

벚꽃동산

시민 | 소극장 4.6.(월)~4.11.(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10,000원



제68회 정기공연

갈매기

문화 | 대극장 7.3.(금)~7.12.(일)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20,000원



제69회 정기공연

체홉의 이야기

시민 | 소극장 11.12.(목)~11.14.(토)
 평일 7:30pm / 주말 5:00pm
 All Seats 10,000원



극단 _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제1기

뮤지컬 '피터팬'

문화 | 중극장 2.20.(목)~2.23.(일)
 평일 7:30pm / 주말 5:00pm
 R 10,000원 S 5,000원



특별공연

얼씨구 왕국의 삼총사

문화 | 사랑채 4.16.(목)~5.4.(월)
 평일 11:00am / 주말 3:00pm
 5.5.(화) 11:00am, 2:00pm
 All Seats 10,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_ 정기연주회

제63회 정기연주회

라흐마니노프

문화 | 대극장 4. 3.(금) 7:30pm
 All Seats 2,000원



제64회 정기연주회

Never Ending Story(주제:이야기)

문화 | 대극장 9. 11.(금) 7:30pm
 All Seats 2,000원



제65회 정기연주회

2020 송년음악회 'Travel to America'

문화 | 대극장 12. 22.(화) 7:3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2020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중극장 5. 28.(목) 7:30pm
 All Seats 2,000원

2020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특별연주회

여름방학 음악회

문화 | 중극장 8. 14.(금) 7:30pm



특별연주회

유망주음악회 III - 실내악

문화 | 챔버홀 10. 24.(토)~10.25.(일) 7:30pm
 All Seats 무료

유망주음악회 III -
 실내악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정기연주회

제157회 정기연주회

양탄자 타고 음악여행 Season II

문화 | 대극장 5. 30.(토) 5:00pm
 All Seats 2,000원



제158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9. 12.(토) 5:00pm
 All Seats 2,000원



제159회 정기연주회

Merry Christmas in Love

문화 | 대극장 12. 19.(토) 5:00pm
 All Seats 2,000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_ 특별연주회

특별연주회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ly Concert

문화 | 대극장 7. 25.(토) 5:00pm
 All Seats 2,000원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음악회

교과서 음악회

문화 | 중극장 8. 21.(금)~8.22.(토) 5:00pm
 All Seats 2,000원



특별연주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11. 7.(토)~11.8.(일) 5:00pm
 All Seats 무료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Package Ticket

2020-21 BSO

프리미엄 패키지 (*선착순 100세트 한정)

- 프리미엄 공연 7편 동시 구매 시 40% 할인
 - 프리미엄 공연 5편 이상 구매 시 30% 할인
 - 프리미엄 공연 3편 이상 구매 시 20% 할인
- 프리미엄 1.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프리미엄 2.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프리미엄 3. 세븐 핑거스 <여행자>
 프리미엄 4.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프리미엄 5. 2020 디즈니 인 콘서트
 프리미엄 6. 안은미 신작 <호랑이와 용>
 프리미엄 7. <여자만세 2>
 프리미엄 8.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프리미엄 9.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클래식 패키지

- 클래식 공연 5편 이상 구매 시 30% 할인
 - 클래식 공연 3편 이상 구매 시 20% 할인
- 클래식 1.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클래식 2. 프레데리크 기 리사이틀
 클래식 3. 루돌프 부흐빈더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
 클래식 4.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클래식 5.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연극 패키지

- ~~㉠ 200,000~~ 140,000 ㉡ 120,000 84,000 ㉢ 80,000 56,000
- 연극 1. <여자만세 2>
 연극 2.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연극 3. <결혼>
 연극 4. <십이야(十二夜)>
- * 연극 공연 4편 모두 선택 시 30% 할인(단, 패키지 구성공연 동일등급에 한함)

발레 / 무용 패키지

- ~~㉣+㉤ 180,000~~ 126,000 ㉥ 160,000 112,000
 ㉦ 100,000 70,000 ㉧ 60,000 42,000
- 발레/무용 1.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발레/무용 2.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발레/무용 3. 안은미 신작 <호랑이와 용>
- * 최고 등급 V+R 교차 예매 가능
 * 발레/무용 공연 3편 모두 선택 시 30% 할인(단, 패키지 구성공연 동일등급에 한함)

국악 패키지

- ~~㉨ 120,000~~ 84,000 ㉩ 80,000 56,000 ㉪ 60,000 42,000
- 국악 1. 김준수, 두 번째 달 <팔도유람>
 국악 2. 블랙스트링
 국악 3. 유희스카
- * 국악 공연 3편 모두 선택 시 30% 할인(단, 패키지 구성공연 동일등급에 한함)

Season Programs

NT Live 패키지

- 40,000 > 28,000

NT Live 1. <햄릿>

NT Live 2. <디 오디언스>

* NT Live 상영작 2편 모두 선택 시 30% 할인(단, 패키지 구성공연 동일등급에 한함)

마티네 패키지

- 마티네 콘서트 6편 동시 구매 시 30% 할인
- 마티네 콘서트 4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마티네 콘서트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10% 할인

자유 패키지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5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3편 이상 동시 구매 시 10% 할인

* 마티네콘서트, NT Live 제외

패키지 구매 시 유의사항

- 패키지 예매는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PC)와 고객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예매: www.bscc.or.kr
 - 고객지원센터 전화예매: 051-607-6000(ARS 1번)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동일공연 중복선택 불가)
- 모든 패키지는 묶음구성이므로, 공연별 편당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모든 패키지는 구성공연의 첫 공연 시작 이후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패키지 취소는 첫 공연 전날 오후 5시까지, 전화 취소만 가능합니다.
 - 단, 첫 공연이 일요일 또는 월요일일 경우, 그 전 주 금요일 5시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 패키지 구성공연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 예매가 조기매진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부산문화회관



지하철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역 하차,
5번출구로 나와서 유엔 교차로쪽으로
도보 10분거리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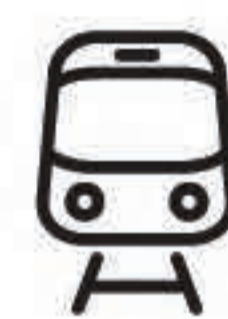
- 시내버스 51번, 68번, 134번, 138번
- 마을버스 남구9번, 남구10번



셔틀버스

- 저녁시간
모든 공연 시간 1시간 전 / 30분 전 2회 운행
(※ 공연 시작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변경)
- 낮시간
모든 공연 시작 30분 전 1회 운행

부산시민회관



지하철

1호선 범일역 하차, 2번 출구(도보 10분 소요)
2호선 문현역 하차, 3번출구(도보 3분 소요)



버스

- 시내버스
2번, 68번, 11번, 80번, 99번, 83-1번, 63번, 57번, 138번, 23번, 83번, 10번, 108번, 81번, 43번, 52번, 5-1번, 22번, 40번, 134번, 27번, 26번, 41번, 82번, 101번, 42번, 1583번, 24번
- 마을버스 남구3번, 남구5번
- 좌석버스 1000번, 1003번, 1004번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 가능시간

평일 09:00~18:00

▪ (재)부산문화회관 고객지원센터

051)607-6000

ARS ① 한국어 문의

ARS ② 외국어 문의

VIP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회원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초대권 4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0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 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이후 공연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2월 28일(금), 4월 24일(금), 5월 29일(금), 7월 31일(금),
8월 28일(금), 10월 30일(금) 오전 11: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연극 '여자만세 2' [종료]

3월 19일(목)-2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9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김준수, 두 번째 달 '팔도유람' [종료]

3월 25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20매)

컨템포러리 국악 그룹 '블랙스트링' [종료]

4월 23일(목) 오후 7:30, 24일(금) 오전 11: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레이 첸 & 선우예권 슈퍼 듀오 콘서트 [종료]

5월 12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40매)

에이프만 발레 '안나 카레니나'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종료]

5월 23(토)-24일(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영국 연극계 화제작 'NT-Live'

5월 30일(토), 6월 27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40매)

세븐 핑거스 '여행자' [종료]

6월 12일(금) 오후 7:30, 13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12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R석 20매)

프레데리크 기 리사이틀 [종료]

6월 16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선착순 20매)

가족극 '우리는 친구다'

7월 3일(금) 오전 10:00, 4일(토)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3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VIP

연극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 [종료]

7월 31일(금) 오후 7:30, 8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7월 31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발레시어터 '한여름 밤의 꿈' [종료]

7월 25일(토)-26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25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하는 '챔버페스티벌'

8월 15일(토)-29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챔버홀(회당 선착순 20매)

국립현대무용단 '스윙' [종료]

8월 28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S석 20매)

**부산 신진예술 페스티벌 최우수작
'토장군을 찾아라'**

9월 3일(목)-4일(금) 10:30, 13:30, 5일(토) 11:00, 14: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100매)

연극 '결혼'(대전예술의전당 공동제작)

9월 18일(금) 오후 7:30, 19일(토)-20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S석 20매)

아스토르 피아졸라 퀸텟 콘서트 [종료]

9월 24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연극 '십이야(十二夜)' [종료]

9월 26일(금) 오후 7:30, 27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26일 공연에 한해 선착순 S석 20매)

서울시립교향악단 2020 내셔널 투어

10월 30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VIP석 40매)

안은미 신작 '호랑이와 용'

12월 4일(금) 오후 7:30, 5일(토)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당 선착순 R석 20매)

2020 제야음악회

12월 31일(목) 오후 10: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빈소년합창단 2021 신년음악회 [종료]

2021년 1월 23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선착순 R석 40매)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하는 실내악의 밤 [종료]

2021년 2월 21일(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선착순 R석 40매)

* 1인 2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고객개발팀(607-6116~7)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 회장

최수기 부일정보링크(주) 회장

* 부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상온누리약국

* 사무처장

윤영기 (주)선광 대표이사

* 이사회원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광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신호 (주)덕신체인 대표이사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박영기 에스더블유팜 대표이사
 박장호 (주)피에스제이 대표이사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환 대표이사
 임성국 하이원해운항공 대표이사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투체어지점 지점장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조기종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 일반회원

강남주 (전)부경대학교 총장
 김 균 (주)선경화성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성수 (주)태영유니텍 대표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영욱 김&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종식 주식회사 JJK 회장
 김진동 원창에프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철 춘해병원 의무원장
 김형우 (주)천마 대표이사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노경원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노은식 디케이락 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재청 해운대 로드비치호텔 회장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박성복
 박성환 대동병원 이사장
 박혜빈 세종기획 이사
 박홍근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성승모 부일정보링크(주) 대표이사
 신명희 (전)해운대 동백합창단 단장
 신상현 리더스금융판매 위드컨설팅 대표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현 성모안과병원 병원장
 이성임 엘가 대표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정일 SK증권(주) 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은자
 정민섭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영희 공연예술 전위 실장
 정의화 (전)국회의장
 조성락 속편한내과 원장
 조종래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충영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진경옥 세무법인 영지 대표이사
 하정태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한원우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허 준 신세계 안과의원 대표원장
 현임숙 브니엘예술고등학교 부장

※ 2020년 1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 호 게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부산시립예술단 전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예술의 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대극장 좌석 네이밍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후원 금액	법인/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이사 회원	500 이상	법인/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1회 무료 (연간)	2개 좌석
	3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20% 할인	1개 좌석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전시, 아카데미, 컨퍼런스 홀 사용 등은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함. ※ 일부 공연 및 전시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사무처장 윤영기(010-7361-7273)

제559회 정기연주회
프랑스식 뉘앙스
FRENCH NUANCE

2020. 2. 14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베토벤 · 「피델리오」 서곡
Beethoven · Overture to "Fidelio"

드뷔시 · 펠리아스와 멜리장드 모음곡 (국내초연)
Debussy · Pelléas et Mélisande Suite (Korean Premier)

드뷔시 · 목신의 오후 전주곡
Debussy · Prélude à l'Après-midi d'un faune, L.86

드뷔시 · 「바다」, 3개의 교향적 스케치
Debussy · "La mer", trois esquisses symphoniques, L.109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아드리앵 페뤼송 Adrien Perruchon, Conductor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7(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서비스 운영(무료)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영)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부산시향의
감사
感謝

2020. 2. 24 MON / 25 TUE 2:00 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바흐 · G 선상의 아리아
Bach · Air on the G String

헨델 · "쾌활한 사람, 사려 깊은 사람, 온화한 사람" 중 '새벽이 밤을 훔쳐 가듯이'
Händel · "As Steals the Morn upon the Night" from "L'Allegro, il Penseroso ed il Moderato"

로시니 · 춤
Rossini · La Danza

슈트라우스 2세 · "봄의 소리" 왈츠
Strauss II · "Frühlingsstimmen" Waltz

베르디 ·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
Verdi · "La donna è mobile" from "Rigoletto"

베르디 ·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Verdi · "Brindisi: Libiamo, ne' lieti calici" from "La traviata"

슈베르트 · 교향곡 제8번 「미완성」
Schubert · Symphony No.8 "Unfinished"

지휘 이민형 Min Hyung Lee, Conductor
소프라노 신민원 Minwon Shin, Soprano
테너 조윤환 Yun Hwan Cho, Tenor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7(정기회원)
할인 전석초대 ▶ 만65세 이상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서비스 운영(무료)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영)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중견 해금연주자를 위한
협연의 밤 시리즈 I

지휘 김정수(예술감독)



해금협주곡
[활의 노래]
작곡: 이정연
[서용석류 해금산조 협주곡]
작곡: 이준호
[터널의 끝을 향해]
작곡: 박영란 - 부산초연
[추상]
작곡: 이경섭
[월백 · 설백 · 천지백]
작곡: 김성경

2020. 2. 25(화)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560회 정기연주회
보헤미안
BOHEMIAN GROOVE

2020. 3. 6 FRI 7:30 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Theater, Busan Cultural Center

스메타나 · 「나의 조국」 중 "몰다우"
Smetana · "Vltava" from "Má vlast"

리스트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Liszt · Piano Concerto No.1 in E flat major, S.124

드보르작 · 교향곡 제8번
Dvořák · Symphony No.8 in G major, Op.88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이민형 Min Hyung Lee, Conductor
피아노 홍민수 Minsoo Hong, Piano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 B석 5,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3111~3(교향악단), 6116~7(정기회원)
할인 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정 | 임산부 20% ▶ 정기회원 | 학생(만24세이하) | 외국인 ※단체(10~30%할인) 및 학생단체(3,000원권) ▶ 전화문의

서비스 운영(무료)
출발지: 대연지하철역 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앞 → 부산문화회관 출발시간: 월~금, 공연 1시간전/30분전(2회 운영)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이제까지 이런 프랑켄슈타인은 없었다 NT라이브 최고의 흥행작

베네딕트 캄베레지 · 조나리 밀리
프랑켄슈타인
2019. 10. 6 (일) 2:00pm, 6:00pm

현대 영국의 거장 테네시 윌리엄즈의 풀리처상 수상작

질리언 앤더슨 · 벤 포스터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2019. 11. 10 (화) 2:00pm, 6:00pm

루스 윌슨
헤다 기블러
2020. 2. 15 (토) 2:00pm, 6:00pm

세익스피어의 <햄릿>, 톰 스토포드의 희극적 재해석

다니엘 라트클리프 · 조슈아 맥마이어
로젠크란츠와 길덴스턴은 죽었다
2020. 2. 29 (토) 2:00pm, 6:00pm

National Theatre Live

라이브 스크린으로 즐기는 **NT-Live**
영국의 명작 연극

NT-Live 패키지 할인

4편 동시 구매 시 (50% 할인)	80,000원 ▶ 40,000원	2편 이상 동시 구매 시 (20% 할인)	40,000원 ▶ 32,000원
---------------------	-------------------	------------------------	-------------------

예매 | 부산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051-607-6000 | 인터파크 티켓 ticket.interpark.com 1544-1555
입장료 | 전석 20,000원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영국 국립극장 | 제작 | 영국 국립극장(National Theatre)

Y U H K I K U R A M O T O

Hopeful Tomorrow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2월 15일 (토)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문의 및 예매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www.bscc.or.kr |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www.ticketpark.com |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티켓 R석 7만원 | S석 5만원 | A석 3만원 | B석 2만원

박찬민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티네 콘서트**

부산일보사 THE BUSANILBO

2.28 Fri 오페라, 재즈가 되다 바리톤 이영광	4.24 Fri 나의 기타 이야기 기타리스트 드니성호	5.29 Fri 동요, 클래식이 되다 피아니스트 박중화
7.31 Fri 바이올린 로망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재민	8.28 Fri 드라마틱 플루트 플루티스트 팡윤우	10.30 Fri 베트벤, 영웅이 되다 피아니스트 흥만우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오전 11시 전석 10,000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051-607-6000) | 협찬 SHINSEGAE

마티네 패키지 안내 | 마티네콘서트 6편 동시구매시 30%할인 | 4편 이상 동시구매시 20%할인 | 3편 이상 동시구매시 10%할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06년 독일 아동극 대본상>
<2006년 독일 청소년 아동문학상>

작을리히 뮐

8 시에 파나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2020. 3. 3(화)~4. 5(일) 오전 11시 (월·수요일 공연없음)

-주최 |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2만원 (24개월 이상 입장가능)
-문의 및 예매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1번) www.bscc.or.kr | 인터파크 1544-1555 www.ticketpark.com
-단체 | 10인 이상 65% 할인(전화예매만 가능)

Copyright © Verlag der Autoren, Frankfurt am Main, Germany All rights reserved

COLOURS

COLOURS

2020 김 필 콘서트

2020.2.8(SAT) 6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예매 예스24, 인터파크, 멜론티켓 문의 1566-5490 wsmi.co.kr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2,3층에 한함 / 1566-5490 전화예매시 ◆◆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 제1기 공연

뮤지컬 피터팬



2020. 2. 20(목) ~ 2. 23(일) 목,금 19:30 토,일 17:0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제작 부산시립극단 예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051-607-6000 ARS 1번 티켓 R석 1만원 S석 5천원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관람자
원작 James Matthew Barrie 대본/작사 강보람 작곡 전현미 연출 김지용 그림 이예린 금양초등학교 5학년 《부산시립극단 어린이뮤지컬아카데미 제1기 포스터 공모 금상 수상작》

착한 여우들의 유쾌한 반란

여자만세2



2020. 3. 19(목) - 20(금)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양희경 최지연 정아미 서송희 하성민

작가 국민성 연출 장경섭 예술감독 손정우 음악 우종민 무대 민병구 의상 김정향
조명 공홍표 분장 김정연 조연출 추범길 진행 최성봉, 김연희

GIFT CARD



1만원 선불카드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정합니다.

COUPON



20% Discount

안경나라(동래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승인
제60079~40134호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48534

COUPON



10% Discount

필하모니

이 쿠폰과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
됩니다.
• 예매 후 티켓수령 시 본 쿠폰과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www.facebook.com/artcrushkorea

www.instagram.com/artcrush_

www.evakorea.com

070.4800.9301

부산은행과 함께하는

home eva armisen

19.12.25-20.4.5

부산문화회관 전시실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연극 '연애하기 좋은 날'

1월 2일(목)-4월 5일(일)
 평일 오후 5:00, 7:00, 토요일 오후 2:30, 5:00,
 7:30, 일요일 오후 2:00, 5:00(1/25일 오후
 4:00, 7:00, 1/26일-27일, 3/1일 오후 2:00,
 5:00, 1/24일, 1/28일, 매주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전석 3만원
 장소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해리스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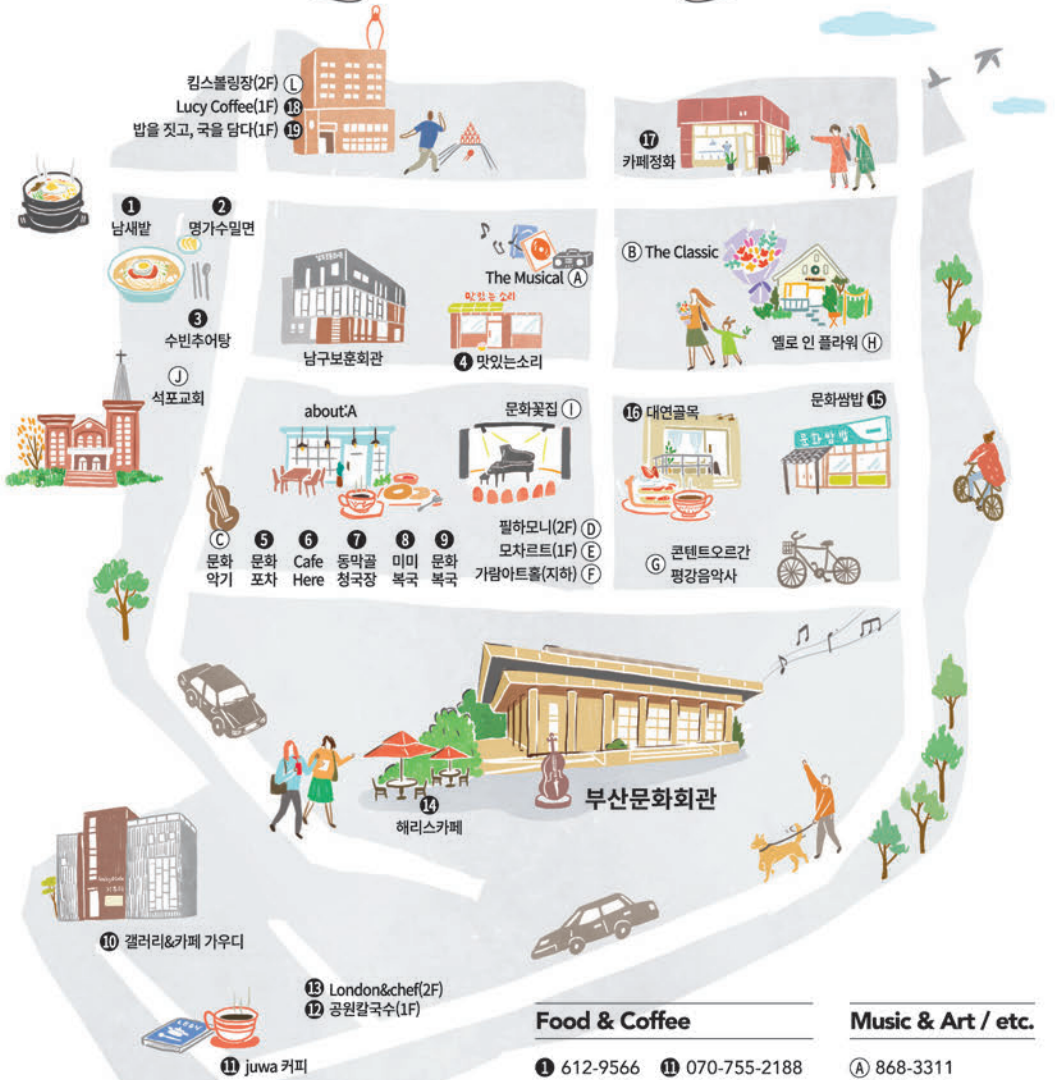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필하모니

식사 1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051)628-2592

Surrounding map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Food & Coffee

- ① 612-9566 ⑪ 070-755-2188
- ② 624-9776 ⑫ 611-3973
- ③ 626-7111 ⑬ 908-1111
- ④ 611-4241 ⑭ 625-9402
- ⑤ 626-4448 ⑮ 626-2292
- ⑥ 622-7412 ⑯ 010-3996-6498
- ⑦ 611-3589 ⑰ 623-0772
- ⑧ 628-8009 ⑱ 628-3832
- ⑨ 621-7040 ⑲ 714-3559
- ⑩ 621-5788

Music & Art / etc.

- Ⓐ 868-3311
- Ⓑ 868-3311
- Ⓒ 625-7275
- Ⓓ 628-2592
- Ⓕ 622-1456
- Ⓖ 621-6669
- Ⓖ 626-7900
- Ⓘ 080-337-3370
- Ⓙ 622-9722
- Ⓛ 625-8704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안경나라(동래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08번길 5
051)505-8987

GIFT CARD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0. 2. 29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받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INVITATION TO THE ARTS
2020
02
FEBRUARY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개선해야 할 점은?

